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가정학박사 학위논문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work, leisure life, and social
network of employed single-person households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강은주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송혜림

이 논문을 가정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 년 7 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강은주

강은주의 가정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정민자 (인)

심사위원 허은정 (인)

심사위원 박수경 (인)

심사위원 고영삼 (인)

심사위원 송혜림 (인)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2024 년 7 월

감사의 글

훌륭한 가르침으로 이끌어주신 지도교수 송혜림 교수님,
한결같은 맘으로 응원해주신 저희 가족들

그리고

그 동안 격려하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 문 초 록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연구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강 은 주
지 도 교 수 송 혜 림

본 연구는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우리 사회의 현상과 이에 따른 구조적·환경적 변화에 주목하여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특성을 살펴본 다음, 일-생활 균형 관점과 생태체계적 관점을 적용하여 개인 체계와 사회환경 체계 변수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선정된 변수를 포함해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 관련 변수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통계적 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 내용과 관련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통계청의 ‘2023 사회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 1인 가구의 일과 관련된 특성의 경우, 직업 선택 시 수입 그리고 안정성과 같은 외재적 동기를 고려하고 있었으며, 여가 활용에 있어 만족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 특성과 관련해 취업 1인 가구는 자금차입 도움 요청 대상이 없다는 응답이 46.8%로 나타나, 긴급상황 시 경제적인 대처에 있어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과 관련되어 경제적 요소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의 영역별 특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 특성에서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직장 내 교육 훈련의 기회가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력이 크고, 여가생활 특성에 있어서는 주말 여가 활동을 가족 및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할 때가 여가 활용 만족도에, 사회적 관계망 특성 중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가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생활 균형 관점과 생태체계적 관점을 적용해 개인 체계와 사회환경 체계의 변수를 선정하였고,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에 이들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개인 체계에서는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임금(하는 일과 비교하여) 만족도가 주관적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환경 체계에서는 일 특성과 관련해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직장 내 교육

훈련 기회 만족도와 인간관계 만족도가, 여가생활 특성에서는 주중 및 주말 여가 활동을 혼자서 하는가의 여부, 사회적 관계망 특성은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단체 활동 관련 학술 단체 참여와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참여, 종교 단체 참여가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주관적 만족도에 대해 유의미한 변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각 영역별 특성이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일 특성에서는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임금 만족도, 근로시간 만족도, 직장 내 교육 훈련의 기회 만족도가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에서는 독서 경험 유무가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적 관계망 특성에서는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가 있을 수록, 단체 활동 관련 종교 단체와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학술 단체에 참여할 때, 주관적 만족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영역의 특성이 영역별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한 결과, 일 특성에서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임금 만족도와 하는 일 만족도, 인간관계 만족도가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와 부분 매개 효과가 있으며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망 특성은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가사 도움 요청 대상 유무, 단체 활동 관련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참여가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와 부분 매개 효과가 있고,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넘어 일-생활 균형, 삶의 균형 등이 강조 및 이 슈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과 가정생활 우선 정도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눠 영역별 만족도와 주관적 만족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가 활용 만족도는 일 우선 집단과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그리고 일 우선 집단과 가정생활 우선 집단 간에,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는 일 우선 집단과 가정생활 우선 집단 간에, 주관적 만족도는 일 우선 집단과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리하면, 여가 활용 만족도는 일 우선 집단이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과 가정생활 우선 집단보다 낮아 일을 우선시할 때, 노동시간과 집중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여가 시간 또는 여가 활동이 줄어들게 되어 여가생활 만족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역시 가정생활 우선 집단보다 일 우선 집단이 낮게 나타나 여가 활용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일을 우선시하는 집단의 경우, 다양한 인간관계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활동 등이 충분치 않으므로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이 주관적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삶의 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적으로 취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실천적 함의의 측면에서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 즉 삶의 만족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주제에 따라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의 세 가지 영역으로 제안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과 관련해 유연근무제와 같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및 제도들이 보다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 역량 강화 및 일과 생활의 균형 등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고용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가생활에서는 취업 1인 가구가 문화 예술 관람 및 활동, 스포츠, 관광, 취미 및 자기 개발 등 다양한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여가 시간 보장 등 여가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내 여가 시설을 확충하여 취업 1인 가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다양한 여가 활동 정보를 어려움 없이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관계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취업 1인 가구가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취업 1인 가구를 위한 지역사회 모임 등 프로그램 제공과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및 정보 공유들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일-생활 균형 관점과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취업 1인 가구의 삶의 만족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해 먼저, 일-생활 균형 관점에서는 취업 1인 가구가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마련 및 시행 그리고 기업이나 직장에서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문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생태체계적 관점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과 함께 취업 1인 가구로서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다차원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 관련 특성에 따라 이들의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 영역에서의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생태체계적 관점을 통해 이미 그 유용성을 검증한 바, 1인 가구 그리고 1인 가구를 둘러싼 환경의 여러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유기성을 고려해 종합적인 차원에서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취업 1인 가구, 일, 여가생활, 사회적 관계망, 주관적 만족도, 일-생활 균형 관점, 생태체계적 관점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6
제2장 이론적 배경	9
제1절 일-생활의 균형 관점과 생태체계적 관점	9
제2절 1인 가구의 현황과 특성	14
제3절 선행연구 고찰	21
제4절 연구가설	32
제3장 연구설계	35
제1절 연구모형	35
제2절 연구자료 및 연구 대상	37
제3절 분석방법	38
제4절 변수의 측정	44

제4장 연구 결과 및 분석	53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3
제2절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	56
제3절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	75
제4절 세 집단(일 우선 집단,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가정생활 우선 집단)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	94
제5장 결론 및 제언	111
제1절 연구결과 요약과 논의	111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후속 연구를 제안	117
참고문헌	120
부 록	130
Abstract	135

표 목 차

<표 1>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8
<표 2> 일-생활 균형 관점과 생태체계적 관점	13
<표 3> 성별에 따른 1인 가구(2015년~2022년)	15
<표 4> 우리나라 연령대별 1인 가구(2018년~2022년)	16
<표 5> 우리나라 거주지역별 1인 가구(2020년~2022년)	17
<표 6> 연구가설에 따른 분석방법 (1)	40
<표 7> 연구가설에 따른 분석방법 (2)	41
<표 8> 연구가설에 따른 분석방법 (3)	42
<표 9> 연구가설에 따른 분석방법 (4)	43
<표 10>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기준(1)	47
<표 1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기준(2)	48
<표 1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기준(3)	49
<표 1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기준(4)	50
<표 1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기준(5)	51
<표 15>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기준(6)	52
<표 1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54
<표 17>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55
<표 18> 취업 1인 가구의 일 관련 실태와 특성 (1)	58
<표 19> 취업 1인 가구의 일 관련 실태와 특성 (2)	59
<표 20> 취업 1인 가구의 일 관련 실태와 특성 (3)	60
<표 21> 취업 1인 가구의 일 관련 실태와 특성 (4)	61
<표 22> 취업 1인 가구의 여가생활 관련 실태와 특성 (1)	63
<표 23> 취업 1인 가구의 여가생활 관련 실태와 특성 (2)	64
<표 24> 취업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관련 실태 및 특성 (1)	66
<표 25> 취업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관련 실태 및 특성 (2)	67
<표 26> 취업 1인 가구의 일 특성이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70
<표 27> 취업 1인 가구의 여가생활 특성이 여가 활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72
<표 28> 취업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이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	74
<표 29> 취업 1인 가구의 개인 체계 변수가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76
<표 30> 취업 1인 가구의 사회환경 체계 변수가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78

〈표 31〉 인구사회학적 변수(성별, 연령대, 교육정도, 거처종류, 점유형태, 가구소득)를 통제한 경우, 취업 1인 가구의 일 특성이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80
〈표 32〉 인구사회학적 변수(성별, 연령대, 교육정도, 거처종류, 점유형태, 가구소득)를 통제한 경우, 취업 1인 가구의 여가생활 특성이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82
〈표 33〉 인구사회학적 변수(성별, 연령대, 교육정도, 거처종류, 점유형태, 가구소득)를 통제한 경우, 취업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이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85
〈표 34〉 취업 1인 가구의 일 특성이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88
〈표 35〉 취업 1인 가구의 여가생활 특성이 여가 활용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90
〈표 36〉 취업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이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93
〈표 37〉 일 우선 집단의 일반적 특성 (1)	96
〈표 38〉 일 우선 집단의 일반적 특성 (2)	97
〈표 39〉 일 우선 집단의 일반적 특성 (3)	98
〈표 40〉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의 일반적 특성 (1)	100
〈표 41〉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의 일반적 특성 (2)	101
〈표 42〉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의 일반적 특성 (3)	102
〈표 43〉 가정생활 우선 집단의 일반적 특성 (1)	104
〈표 44〉 가정생활 우선 집단의 일반적 특성 (2)	105
〈표 45〉 가정생활 우선 집단의 일반적 특성 (3)	106
〈표 46〉 일과 가정생활 우선 정도에 따른 세 집단(일 우선 집단,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가정생활 우선 집단)의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여가 활용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차이	109
〈표 47〉 일과 가정생활 우선 정도에 따른 세 집단(일 우선 집단,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가정생활 우선 집단)의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여가 활용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차이: Games-Howell 사후분석 결과	110
〈표 48〉 ‘2023 사회조사’ 조사 내용 구성 (1)	130
〈표 49〉 ‘2023 사회조사’ 조사 내용 구성 (2)	131
〈표 50〉 ‘2023 사회조사’ 조사 내용 구성 (3)	132
〈표 51〉 ‘2023 사회조사’ 조사 내용 구성 (4)	133
〈표 52〉 ‘2023 사회조사’ 조사 내용 구성 (5)	134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필요성	5
<그림 2> 연도별 우리나라 1인 가구 수(2015~2022년)	14
<그림 3> 우리나라 1인 가구의 거주종류(2022년)	18
<그림 4> 우리나라 1인 가구 소득(2021~2022년)	18
<그림 5> 연구모형	3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나 혼자 산다’의 1인 가구가 천만 시대가 되었다(SBS, 2024). 2050년에는 그 비중이 더욱 늘어, 인구수의 절반을 밑도는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테일리팝, 2024).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의 증가는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물론 먹고 쉬고 일하고 공부하는 모든 일상과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해지는 트렌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맞춰 1인 가구가 소비하는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시장, 1인 가구 대상 정책과 제도적 서비스 및 현장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김정은 외, 2023).

1인 가구 니즈를 반영한 트렌드로 가전제품은 소형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등장과 더불어 주거 형태도 변모하고 있다. 사는 공간을 물리적으로 나눈 ‘세어하우스’에서 ‘코리빙하우스’로 주거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이제는 생활, 문화, 가치관, 관심사 등을 공유하며, 창의적인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1인 가구에 맞춰진 다양한 콘셉트의 코리빙하우스가 공급되고 있다(테일리안, 2024). 또한,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1인 가구 간에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셜다이닝 모임, 1인 가구 맞춤형 강의, 마음 건강 상담, 1인 가구 온라인 소통방 지원 등 지자체마다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테일리팝, 2024). 실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현장에서도 ‘1인 가구 마음 힐링 프로그램’,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모임-책잇아웃’, ‘1인 가구 지원 사업-중장년 수다 살롱’, ‘1인 가구 컨설팅-재무설계’ 등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사업,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2024).

이처럼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학문적 영역에서도 1인 가구를 주제로 많은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1인 가구 관련 연구 주제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현황 및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강은나, 이민홍, 2016; 변미리, 2015; 이여봉, 2017; 이명진 외, 2014), 1인 가구의 일상생활 및 주거생활 등 생활 관련 연구(이성림, 이승주, 2016; 이지현, 정라나, 2018; 조주현, 김주원, 2010; 권세연, 박환용, 2014; 이창효, 이승일, 2010), 1인 가구의 범죄 및 안전에 대한 연구(강지현, 2017; 장진희, 2018; 황성은 외, 2013), 1인 가구의 건강 관련 연구(임유진, 박미현, 2018; 김현성 외, 2019; 이하나, 조영태, 2019; 신미아, 2019)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연구들을 보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삶의 만족, 삶의 질, 행복에 관한 연구들(권종선, 2019; 서명희 외, 2017; 최성현, 2020; 김가원, 황혜신, 2021; 신미아, 2023; 권태연, 2024; 김수진, 류주연, 2023; 이현민, 최미선, 2022)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인 가구의 삶의 만족 또는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질적 풍요를 어느 정도 이룬 사회에서는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 경제적 조건 외에 다양한 요소들이 부각된다. 특히,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면서 사회적 자본이나 관계적 재화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비물질적 요소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삶의 균형, 여가의 질, 가정의 건강성, 인간관계, 공동체 참여를 통해 얻는 보람 등이 그것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괜찮은 삶, 좋은 생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향도 발견할 수 있다(송혜림, 2021). 1인 가구의 행복, 삶의 질, 건강성, 생활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 역시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탐색과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삶의 만족에 관심을 두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영역들을 조망하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삶의 만족, 삶의 질 또는 행복 수준을 보면 그 수준이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난다(이선희, 2023; 민보경, 2022; 한송이 외, 2022; 서울연구원, 2022; 민보경, 2023a). 이선희(2023)의 연구를 보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부족한 여가 활동과 사회적 고립감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미치며,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1인 가구의 행복을 분석한 민보경(2022)의 연구에서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행복감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인 행복감을 비롯하여 생활 수준과 건강, 대인관계, 안전감, 미래의 안정,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의 양, 일에 대한 만족도 등의 측면에서 1인 가구의 만족도가 다인 가구의 만족도에 비해 낮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송이 외(2022)의 연구를 통해서도 1인 가구의 경우, 다인 가구보다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 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 항목에서 삶의 질이 낮을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인 가구의 삶의 질은 다인 가구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연구원(2022)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재정 상태와 대인관계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다인 가구의 행복지수(10점 만점 중 6.4점)보다 더 낮은 행복지수(10점 만점 중 5.7점)를 보여준다.

나 홀로 사는 1인 가구는 여럿이 함께 생활하는 다인 가구와 비교해 전반적인 행복감, 영역별 만족도가 낮고 무엇보다 생활 수준에 있어 만족이 낮으므로 1인 가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민보경, 2023a).

선행자료와 연구를 종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가구 형태 중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1인 가구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삶의 만족이나 삶의 질, 행복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결과들을 고려할 때, 다양한 영역과 요소, 측면들을 고려한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1인 가구의 삶의 만족이나 삶의 질, 행복에 대한 높은 관심과 더불어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 역시 부각되고 있다. 즉, 1인 가구를 비롯하여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균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윤소영, 2019). 이에, 1인 가구의 삶의 만족과 삶의 질, 행복 수준을 위해 1인 가구의 일-생활 균형에 대해 주목해야 함을 강조할 수 있다.

송혜림과 강은주(2021)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높은 행복 수준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생활 균형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은 직장생활을 통해 더욱 인식하게 되는 것은 물론, 1인 가구이므로 자기계발이나 여가생활을 통해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지명(2019)의 경우, 청년 취업 1인 가구의 삶의 질 관련 특성은 일과 여가의 균형 수준과 유의적인 관계를 가지며, 일과 여가의 균형에 여가 만족도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일과 생활의 균형은 특히 취업생활을 하는 1인가구의 일상생활 그리고 삶의 만족, 행복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만족, 삶의 질이나 행복과 관련해서는 취업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과 생활 특히, 일과 여가생활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윤소영(2019)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여가생활에 만족할수록 ‘행복함’을 인식한다고 한다. 그런데 통계청(2023)의 ‘2023 통계로 보는 1인 가구’를 보면 1인 가구의 여가 활용 만족도는 전체 인구의 여가 활용 만족도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일-생활 균형에 있어서는 일과 더불어 휴식 등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여가생활 영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인 가구의 행복을 연구함에 있어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와 신뢰수준 등이 이들의 행복과 관련이 있으며(민보경, 2023b),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특성상 다른 사람과의 소통과 상호작용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망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 ‘나를 부양해주는 가족이 없어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외롭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통계청, 2021),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10명 중 3명 정도는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 힘들거나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연구원, 2022). 결국 1인 가구는 혼자 생활하며 살아가야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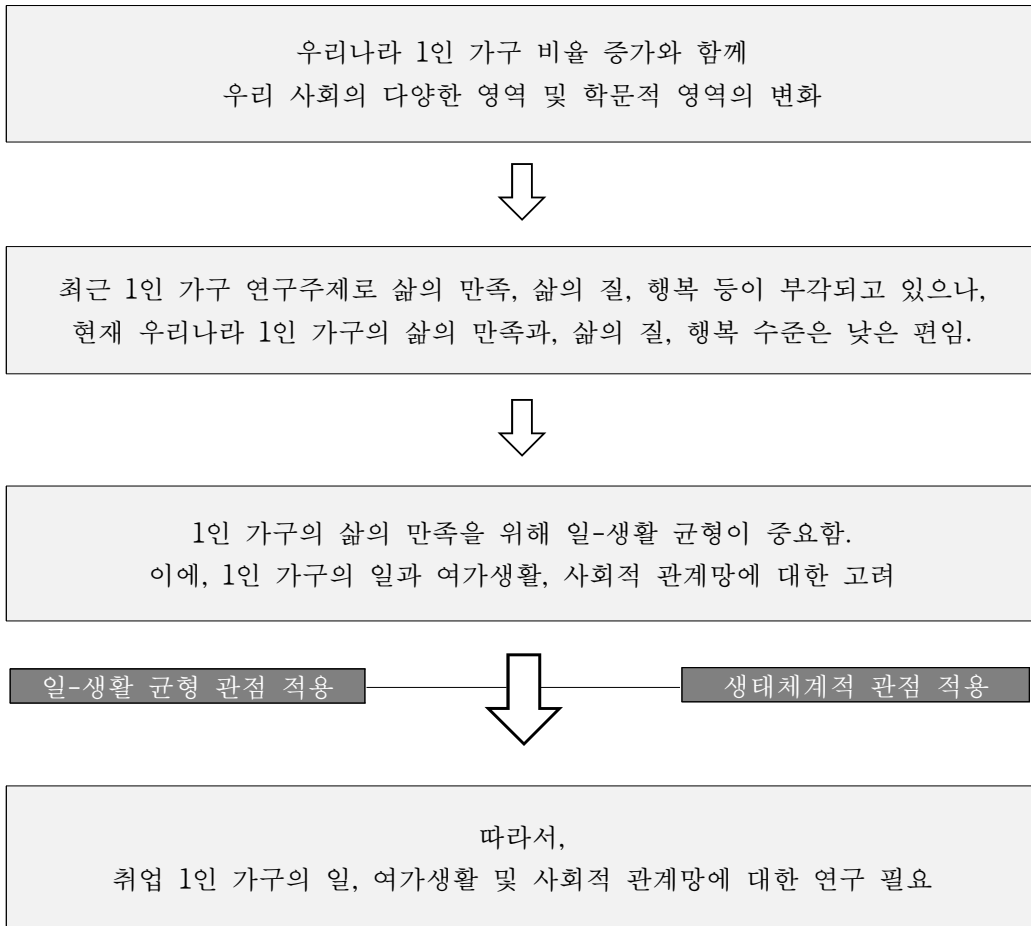
는 과정에서 고립감, 우울감 등으로 인해 낮은 삶의 만족, 삶의 질, 행복 수준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1인 가구는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등 사회적 관계망이 잘 형성되면 삶의 만족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최순화, 2021).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취업 1인 가구의 삶의 만족, 삶의 질, 행복에 대한 연구에서 일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 특히, 일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을 분석함에 있어 일-생활 균형 관점과 생태체계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유용함을 강조할 수 있다. 우선, 앞서 말한대로 일-생활 균형은 우리의 삶의 만족과 삶의 질, 행복 수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세대와 연령, 젠더 등 상관없이 모두가 일과 생활 사이에서 균형적인 삶을 누릴 필요가 있으므로 1인 가구 역시 일-생활 균형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인 가구는 나 홀로 살아가기에 개인적 요소와 사회환경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1인 가구의 일상과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생태체계적 관점을 통해 1인 가구의 개인 특성 그리고 1인 가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 분석하고 나아가 1인 가구의 삶의 만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와는 다르게 혼자 생활하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소득 및 수입을 마련해야 하므로 이들에게 일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과정에서 휴식 등 여가생활을 어떻게 보내는지, 여가 시간을 보낼 때는 혼자서 여가 활동을 하는지 혹은 타인과 함께 하는지, 또는 나 홀로 생활하며 어떠한 특별한 상황들(예: 아플 경우 등) 속에서 도움 요청과 같은 소통이 잘 이뤄지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개인과 관련된 특성을 비롯하여 혼자서 생활을 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는 등 사회환경 체계를 고려해 삶의 만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므로 일-생활 균형 관점과 생태체계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에 주목하여 이들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과 관련된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일-생활 균형 관점과 생태체계적 관점을 적용해 개인 체계와 사회환경 체계 관련 변수들을 선정하여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1인 가구의 일-생활 균형 및 여가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견고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 정책 설계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본 연구는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사회적 현상과 이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에 주목하여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취업 1인 가구의 삶의 만족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정책 설계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연구 목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인 취업 1인 가구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취업 1인 가구에 필수적인 요소인 일을 비롯하여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 영역과 관련하여 실제 어떠한 상태이며, 어떠한 특성들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 특성이 각 영역별 만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봄으로써 전반적인 일자리, 여가 활용 및 개인적 인간관계에 대해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 즉 취업 1인 가구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의 분석을 통해 삶의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인 가구의 삶의 만족, 행복 수준과 관련이 있는 일-생활 균형과 생태체계적 관점을 적용해 개인 체계와 사회환경 체계 변수를 선정하고 이러한 변수들이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본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해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취업 1인 가구의 각 영역의 특성이 영역별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처럼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와 관련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1인 가구의 삶의 만족 증진을 위한 방법 도출의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에 따라 1인 가구를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유형별로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의 자료인 ‘2023 사회조사’에 제시되어 있는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문항을 바탕으로 취업 1인 가구의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 정도에 따라 세 집단(일 우선 집단,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가정생활 우선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 집단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 관련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일 우선 집단,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가정생활 우선

집단에 따라 각 영역별 만족도(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여가 활용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는 취업 1인 가구에 대해 그리고 이들의 특성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자인 취업 1인 가구의 성별, 연령, 거주지역, 교육정도, 거주종류 등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봄과 함께 이들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이 어떠한지 각각의 영역(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실태와 특성을 파악한다. 이어 취업 1인 가구의 일 특성과 여가생활 특성, 사회적 관계망 특성이 각각의 영역별 만족도, 다시 말해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여가 활용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생활 균형 관점과 생태체계적 관점을 적용하여 개인 체계와 사회환경 체계의 변수를 선정하고, 선정한 개인 체계 변수와 사회환경 체계 변수를 바탕으로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취업 1인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했을 경우, 이들의 일 특성과 여가생활 특성, 사회적 관계망 특성이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본다. 또한, 취업 1인 가구의 영역별 특성(일 특성, 여가생활 특성, 사회적 관계망 특성)이 영역별 만족도(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여가 활용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취업 1인 가구를 일과 가정생활에 대한 우선 정도에 따라 세 집단(일 우선 집단,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가정생활 우선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세 집단 간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여가 활용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을 통한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먼저, 취업 1인 가구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들을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에 따라 세 집단(일 우선 집단,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가정생활 우선 집단)으로 나눠 유형별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생활 균형 관점과 생태체계적 관점의 적용을 통한 취업 1인 가구의 전반적인 일자리, 여가 활용 및 개인적 인간관계를 포함하여 이들의 주관적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취업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 정책 설계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 1〉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p>연구 목적</p>	<p>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파악함. 그리고 취업 1인 가구의 삶의 만족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정책 설계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p>	
<p>연구 내용</p>	<p>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1인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성별, 연령, 거주지역, 교육정도 등) 분석
	<p>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실태와 특성 파악 • 취업 1인 가구의 일 특성이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가생활 특성이 여가 활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망이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p>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생활 균형 관점과 생태체계적 관점을 적용해 개인 체계와 사회환경 체계 변수 선정 • 개인 체계 변수와 사회환경 체계 변수가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된 경우, 취업 1인 가구의 일 특성, 여가생활 특성, 사회적 관계망 특성이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취업 1인 가구의 각 영역의 특성(일 특성, 여가생활 특성, 사회적 관계망 특성)이 영역별 만족도(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여가 활용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p>세 집단(일 우선 집단,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가정생활 우선 집단)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1인 가구의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 정도에 따라 세 집단(일 우선 집단,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가정생활 우선 집단)으로 구분하여 세 집단의 특성 파악 • 세 집단 간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여가 활용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차이 분석
<p>연구 기대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1인 가구와 이들을 일과 가정생활 우선 정도에 따라 유형화한 세 집단(일 우선 집단,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가정생활 우선 집단)의 실태와 특성 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일-생활 균형 관점과 생태체계적 관점의 적용을 통한 취업 1인 가구의 전반적인 일자리, 여가 활용 및 개인적 인간관계를 포함하여 주관적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궁극적으로 취업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정책 설계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2장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일-생활 균형 관점과 생태체계적 관점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1인 가구의 현황과 특성들에 대해 살펴본 다음, 관련 선행연구들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제1절 일-생활 균형 관점과 생태체계적 관점

본 연구는 취업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에 대해 주목하고자 하며, 이들의 삶의 만족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의 필요성에서도 언급했듯이 1인 가구의 삶의 만족, 행복과 관련이 있는 일-생활 균형과 생태체계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강조할 수 있다.

1. 일-생활 균형 관점

현대사회에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1인 가구 역시 일과 생활의 균형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송혜림, 강은주, 2021).

일-생활 균형의 정의를 보면, 일과 일 이외의 영역 등에 시간과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를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를 통해 삶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김정운 외, 2005).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생활 균형에서의 ‘일 이외의 영역’에 대해 살펴보면 초기에는 일 이외의 영역을 ‘가족’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뚜렷했었다고 볼 수 있다(이수현, 2021). 그러나 최근에는 일 이외의 영역과 관련하여 여가 활동 및 놀이 등 개인의 심리적 잠재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여가’의 영역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과 생활(삶)의 균형을 설명할 때, 일과 여가의 균형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손영미, 박정열; 양지명, 2019 ‘재인용’).

앞서 살펴본 ‘일과 생활 균형’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대상이 취업 1인 가구임을 고려해 본다면 직장생활과 함께 여가생활을 해내야 하는 취업 집단을 이해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관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기존의 생애주기별 단계에 맞춰 삶을 살아간다고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1인 가구로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취업이나 직장생활은 이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

더욱이 취업 집단의 경우에는 일과 생활 사이에서의 균형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즉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의 부담과 불규칙성, 주말 근무로 인해 현실에서는 일-생활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다시 말해 취업을 했거나 직장생활 또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노동 중심적인 생활로 인해 업무에 대한 피로감이 커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등 여가 시간을 누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취업 1인 가구는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일 생활과 여가생활 등 전반적인 생활에서 불균형적인 삶을 경험하기도 한다(송혜림, 강은주, 2021).

또한, 1인 가구는 혼자서 생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일-생활 균형 관점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인 가구로 생활할 때는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대해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하여 가사노동 또는 돌봄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나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일 경우에는 가사노동, 돌봄노동 관련 모든 부분을 혼자서 수행해야 하므로 비효율적임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만약, 직장에서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 오프라인으로 가사노동 및 돌봄 노동 관련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 상황들, 예를 들어 신용카드나 등기우편을 받아야 한 다거나, 은행이나 세무서 등에서 대면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다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 일을 처리해야 할 때, 1인 가구인 이들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시간에 쫓기는 등 생활이 불균형해지기도 한다(송혜림, 강은주, 2022).

따라서, 취업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일-생활 균형 관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수 있다. 취업 1인 가구라는 대상에 일-생활 균형 관점을 적용하여 이들이 1인 가구로서 겪는 어려움 등을 개선시키는 등 균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생활 균형에서의 일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여가’ 영역 뿐만이 아니라 관계 및 친구,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이에, 타인과의 관계, 즉 사회적 관계망이 강조된다(손영미, 박정열; 양지명, 2019 ‘재인용’).

사회관계망이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계의 집합이다. 다양한 배경 속에서 정서적, 물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사람들끼리 형성하고 있는 모든 관계를 의미한다. 이 때, 사회관계망 범위 내에는 개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 친구, 이웃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지원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자원을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상호관계를 포함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회관계망은 사회구조와 개인의 내면적 특성을 연결하는 실질적 통로로 작동함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즉, 개인이 어떠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실제 개인의 건강(심리적, 신체적, 정서적)에 차이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김현성 외, 2019).

이러한 맥락에서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나 홀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여가생활에 대한 사회적 교류나 가정생활 등을 유지하기 위한 도움 요청 등 1인 가구로서 사회적 관계망을 잘 맺고 있느냐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사회적 관계망을 고려하여 일-생활 균형 관점에서의 취업 1인 가구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생활 균형은 삶의 만족, 행복 수준과도 관계가 있다. 윤수인과 이홍직(2020)의 연구에서는 임금노동자의 경우, 일-생활 균형 인식이 높을수록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재완과 강혜진(2018)은 일-생활 균형은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 간의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킴으로써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결국 일-생활 균형을 일과 일 이외의 영역으로 나눌 때, 일과 여가생활, 사회적 관계망이 포함되고, 일-생활 균형이 개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개개인의 삶의 만족 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일-생활 균형 관점의 적용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생태체계적 관점

1인 가구라는 차원에서 이들의 경우, 개인적인 특성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1인 가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1인 가구의 생활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생태체계적 관점이란 인간체계를 생태체계로 보는 현실적 접근법이다. 생태체계는 환경과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통합적으로 기능하는 체계를 말한다(손화희, 2004). 그리고 생태학적인 환경은 한 가지 구조 안에 하위 구조가 각각 포함된 동심원적 구조로 보며, 하위구조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적체계, 거시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Bronfenbrenner; 장명숙, 박경숙, 2012 ‘재인용’).

미시체계는 개인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 관계에 있는 환경체계로 가족, 이웃 등의 요소를 포함하며, 중간체계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 간의 관계, 즉, 가정과 학교의 관계 또는 학교와 직장과의 관계 등을 의미한다(서중수, 양지훈, 2020). 외적체계는 개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그 개인에게 간접적으로 발달에 영향을 주는 환경체계로 자녀에게 있어 부모의 직장과의 관계와 같이 그 개인을 직접 둘러

러싸고 있지 않는 체계이며, 거시체계는 개인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의 문화, 법, 종교, 정책과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을 의미한다(장명숙, 박경숙, 2012).

이러한 생태체계적 관점에 대한 접근과 관련해 국내 학자들의 경우, 연구자들에 따라 생태학적 관점의 하위체계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onfenbrenner(1979)가 생태체계를 개인과 환경체계(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구분한데 반하여, 배나래와 박충선(2009)은 외체계를 제외하고, 개인 체계, 미시체계, 중간체계와 거시체계로 분류하였다. 홍경숙과 전대성(2010)의 경우, 개인 체계와 사회환경 체계로 구분하여 사회환경 체계에 사회적지지, 사회활동 참여와 같은 미시체계 특성 외에 주변 생활환경 등과 같은 외체계적 특성을 포함하였고, 박소연과 박소영(2018)은 개인 체계와 사회환경 체계로 나눠 사회환경 체계에 가족 요인과 같은 미시체계와 사회보장소득 수급유무 등과 같은 거시체계적 특성을 포함함으로써 연구자의 연구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생태체계적 관점의 하위체계를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서종수, 양지훈, 2020).

이러한 생태체계적 관점 관련 1인 가구의 연구들을 보면, 노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이현민과 최미선(2022)은 1인 가구 역시 환경 속의 인간으로서 이들을 둘러싼 지역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높은 삶의 만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기민과 정은경(2011)의 연구에서는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생태체계적 접근은 삶의 질 향상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더불어 개인은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맺음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보고, 개인 체계와 사회환경 체계로 구분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을 살펴봄과 더불어 이들의 삶의 만족 수준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생태체계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강조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이 1인 가구라는 것에 집중한다면 우리 사회에서의 1인 가구는 개인으로서의 삶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잘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으므로 생태체계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을 살펴보기 위해 일-생활 균형 관점과 생태체계적 관점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관점을 바탕으로 개인 체계와 사회환경 체계 변수들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수들을 포함하여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것은 취업 1인 가구의 삶의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에서의 다차원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표 2〉 일-생활 균형 관점과 생태체계적 관점

관점 유형	접근 방법 및 내용	
일-생활 균형 관점	연구의 대상 관련에서의 접근	<p>본 연구의 대상은 취업 집단임. 취업 집단은 노동 중심적인 생활로 자유로운 휴식 등의 여가 시간 사용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기도 함. 이로 인해 취업 집단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생활에서의 불균형이 나타나므로 일-생활 균형 관점이 부각됨.</p> <p>본 연구의 대상은 혼자서 생활한다는 특징을 지닌 1인 가구임. 나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직장생활을 비롯하여 가사노동, 돌봄노동 관련 모든 부분을 혼자서 수행해야 하므로 일-생활 균형을 고려해야 함.</p>
	연구 주제 및 일-생활 균형의 개념 관련에서의 접근	<p>본 연구의 주제는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연구로 일-생활 균형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 또한, 일-생활 균형의 개념은 일과 일 이외의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일 이외의 영역에는 ‘여가’ 영역 뿐만이 아니라 관계 및 친구,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등이 포함되면서 타인과의 관계, 즉 사회적 관계망이 강조됨(손영미, 박정열; 양지명, 2019 ‘재인용’).</p>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및 행복 간의 관계에서의 접근	<p>본 연구에서는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이와 관련하여 삶의 만족과 행복 수준에는 일-생활 균형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윤수인, 이홍직, 2020; 이재완, 강혜진, 2018).</p>
생태체계적 관점	연구의 대상 관련에서의 접근	<p>본 연구의 대상은 1인 가구임.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는 개인으로서의 삶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잘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으므로 생태체계적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함.</p>

제2절 1인 가구의 현황과 특성

본 절에서는 이 연구의 대상인 1인 가구와 관련하여 현황과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1인 가구의 현황에서는 1인 가구와 관련된 성별 등 일반적 특성에 대해 들여다보고자 하며, 1인 가구의 특성에서는 1인 가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 장점 및 고충, 생활에서의 특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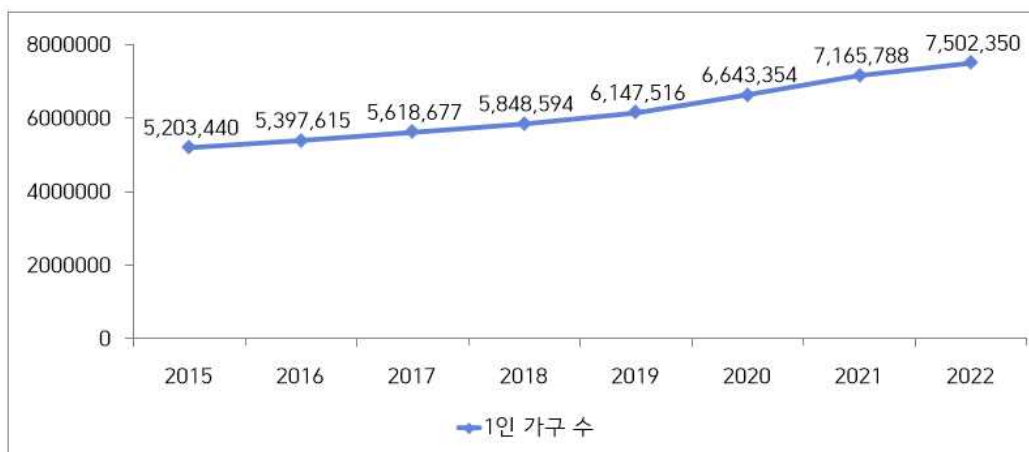
1. 1인 가구의 현황

1인 가구의 현황에서는 1인 가구의 수,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 1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2>를 보면, 1인 가구수는 2015년 5,203,440가구에서 해마다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7,502,350가구임을 알 수 있다. 이에, 2022년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34.5%이며,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로 우리나라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네이버, 2024).

<그림 2> 연도별 우리나라 1인 가구 수(2015~2022년)

단위: 가구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우리나라 1인 가구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남성 1인 가구보다는 여성 1인 가구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1년 여성 1인 가구 수 3,582,018가구, 남성 1인 가구 수는 3,583,770가구로 남성 1인 가구 수가 여성 1인 가구 수보다 1,752가구가 많았으나, 2022년에 다시 여성 1인 가구 수(3,751,279가구)가 남성 1인 가구 수(3,751,071가구)보다 208가구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성별에 따른 1인 가구(2015년~2022년)

단위: 가구

연도 성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여성	2,610,477	2,721,754	2,826,828	2,942,274	3,093,783	3,338,956	3,582,018	3,751,279
남성	2,592,963	2,675,861	2,791,849	2,906,320	3,053,733	3,304,398	3,583,770	3,751,071
합계	5,203,440	5,397,615	5,618,677	5,848,594	6,147,516	6,643,354	7,165,788	7,502,350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우리나라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다음의 <표4>와 같다.

202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25~29세로 이 연령대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 30~34세가 많으며, 그 다음으로 60~64세, 65~69세, 55~59세, 50~54세, 35~39세, 40~44세, 20~24세, 45~4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20세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우리나라 연령대별 1인 가구(2018년~2022년)

단위: 가구

연령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세 미만	58,154	59,415	76,202	54,052	53,088
20~24	402,476	431,750	492,331	492,845	485,508
25~29	617,468	685,831	774,580	870,707	901,044
30~34	522,405	554,883	618,401	704,883	774,710
35~39	470,332	480,733	497,117	521,151	524,136
40~44	400,122	401,653	427,295	467,949	494,473
45~49	464,099	470,000	476,521	482,287	483,104
50~54	450,375	470,795	497,959	541,978	568,098
55~59	524,069	528,252	541,536	558,936	569,407
60~64	494,506	531,357	580,701	646,566	675,366
65~69	375,398	401,256	458,284	529,542	577,241
70~74	330,897	352,769	382,524	413,137	442,851
75~79	340,000	343,332	350,191	358,008	366,133
80~84	246,166	264,647	278,856	304,030	339,221
85세 이상	152,127	170,843	190,856	219,717	247,970
합계	5,848,594	6,147,516	6,643,354	7,165,788	7,502,350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가 많은 거주지역으로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1인 가구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22년 기준 경기도의 1인 가구는 1,634,147가구, 서울특별시 1인 가구는 1,564,187가구를 알 수 있다.

〈표 5〉 우리나라 거주지역별 1인 가구(2020년~2022년)

단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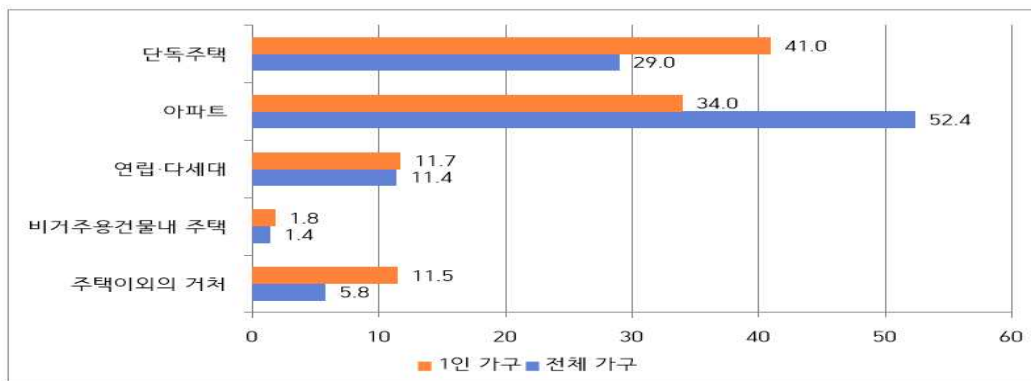
행정구역별(시군구)	연도		
	2020	2021	2022
서울특별시	1,390,701	1,489,893	1,564,187
부산광역시	455,207	487,362	511,745
대구광역시	304,543	326,866	341,667
인천광역시	324,841	355,657	376,392
광주광역시	193,948	212,385	221,464
대전광역시	228,842	240,932	249,006
울산광역시	122,848	133,061	137,096
세종특별자치시	43,577	45,706	50,561
경기도	1,406,010	1,543,100	1,634,147
강원도	231,371	245,012	254,441
충청북도	236,208	252,251	260,948
충청남도	304,973	327,432	340,741
전라북도	255,269	276,153	284,613
전라남도	256,633	274,108	283,429
경상북도	388,791	416,697	430,969
경상남도	417,737	450,490	468,772
제주특별자치도	81,855	88,683	92,172
전국	6,643,354	7,165,788	7,502,350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우리나라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주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전체 가구와 달리 단독주택(41.0%)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아파트(34.0%), 연립·다세대(11.7%), 주택 이외의 거처(11.5%), 비거주용건물내 주택(1.8%)로 나타났다.

<그림 3> 우리나라 1인 가구의 거처종류(202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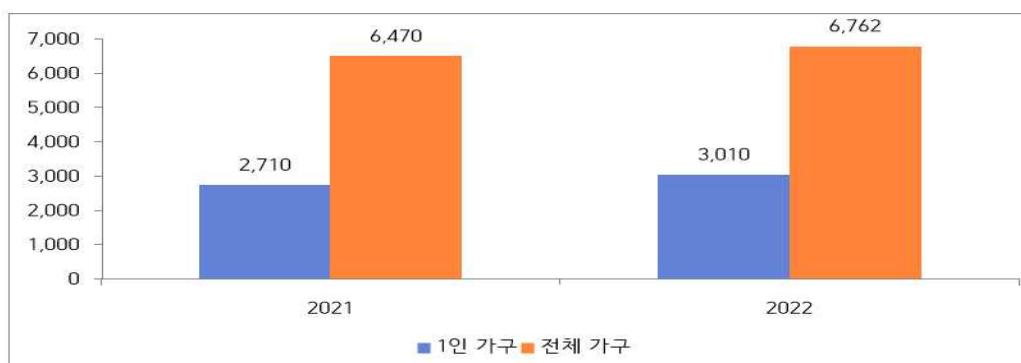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인 가구의 소득을 보면, 2021년 2,710만원에서 2022년 3,010만원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우리나라 1인 가구 소득(2021~2022년)

단위: 만 원



출처: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2. 1인 가구의 특성

앞서 살펴본 1인 가구의 현황에 이어 1인 가구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1) 1인 가구의 동기, 장점 및 고충

우선, 1인 가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보면, 혼자가 편해서(45.6%)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학교 또는 직장 때문에(39.0%),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22.1%), 독립을 원해서(15.8%)의 순임을 확인할 수 있다(이신애 외, 2022).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1인 가구를 선택하게 되는 과정은 비자발적이 되기보다는 자발적, 스스로가 원해서 1인 가구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송혜림과 강은주(2021)의 연구 결과와도 동일한데, 이 연구에 참여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경제적 독립이 가능해짐으로써 대부분 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1인 가구로서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1인 가구의 삶의 만족은 1인 가구의 삶을 선택하는 자발성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1인 가구로서의 장점을 보면, “혼자라 편안하고 자유로움”이 많이 부각된다(정인, 강서진, 2019). 혼자서 생활하는 1인 가구는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이 가능하며, 편안하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인 가구는 일 또는 여가생활 등을 포함해 1인 가구 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단순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자신만의 판단으로 선택가능한 이점이 있다.

이는 결국 다시 1인 가구가 1인 가구 생활을 지속하고 싶은 이유로도 이어진다. 1인 가구 생활 지속 의향에 대해 절반이 넘는 경우(56.3%)가 1인 가구로 살아가고 싶다는 응답과 함께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혼자가 편해서’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신애 외, 2022).

그런데, 혼자라서 편안하고 자유로운 등 1인 가구의 장점이 있는 반면, 1인 가구는 혼자서 생활하며 고충을 경험하기도 한다. 1인 가구로서의 고충으로는 경제활동의 지속력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이 꼽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인, 강서진, 2019; 관악구, 2023).

1인 가구의 경우,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혼자서 생활을 계속해 유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불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지속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1인 가구에게는 직장생활 또는 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민보경, 2023b).

또 다른 고충으로는 외로움을 가장 많이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관악구, 2023; 정인, 강서진, 2019; 데일리팝, 2022). 양준영(2022)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망은 그 형태에 따라 주관적 행복, 건강, 삶의 질 등 많은 영역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외로움이나 우울 등의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어 혼자 사는 1인 가구에게 있어 사회적 관계의 의미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민보경, 2023b).

2) 1인 가구의 생활에서의 특성

앞서 1인 가구의 특성과 관련해, 1인 가구를 시작한 동기, 1인 가구의 장점, 1인 가구의 고충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제 1인 가구의 생활과 관련된 모습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1인 가구의 생활과 관련된 모습을 보면, 일-생활 균형을 중요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1인 가구 역시 업무 후, 혼자서 여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일 중 약 2일 정도는 취미활동을 한다거나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정인, 강서진, 2019). 이를 통해 1인 가구의 경우, 자기 계발이나 취미, 여가 등으로 혼자서 생활하며 독립적인 삶의 실현 등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송혜림, 강은주, 2021).

또, 일상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1인 가구의 어려움을 보면 식사하기, 집안 청소하기, 주거환경 수리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인, 강서진, 2019). 1인 가구는 식사 준비 및 섭취, 청소, 주거 공간 수리 등 일상적인 돌봄에 대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또, 식재료비, 수리비, 월세 등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적인 측면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 1인 가구 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와 같은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게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송혜림, 강은주, 2022).

1인 가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도 사회적 관계망에 취약한 이들은 마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보다 인터넷 검색 또는 최대한 본인 스스로 해결하거나 가족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정인, 강서진, 2019).

정리하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혼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함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 모든 생활이나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면서 계속해 직장생활을 해야 하고, 직장생활 속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위한 자신만의 취미활동으로 여가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외로움을 느낀다거나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 취약한 사회적 관계망에 놓여져 있다.

이와 같은 1인 가구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제 1인 가구의 요구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인 가구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에 대한 요구도를 보면 1순위는 ‘신체 건강 증진(건강, 먹거리, 운동 처방)’으로 나타났고, 2순위 ‘마음 건강 증진(심리상담, 우울감 및 스트레스 관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1인 가구의 신체·심리적으로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빠르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체력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참석 희망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재무설계(돈 관리, 노후준비 등), 생활 관리,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건강 보건 관련 교육(식생활, 건강관리) 순으로 나타나 1인 가구는 자립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가/일상생활 프로그램 참여 의향과 관련해서는 ‘영화/미술관 등 관람 및 감상’에 대한 응답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취약한 사회적 관계망에 놓인 1인 가구임을 고려해 이들에게 ‘정보교류의 장’의 필요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경우(49.4%)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1인 가구에게 필요한 문화 및 사회적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소모임 지원에 대한 수요(28.6%)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응답 비율(42.8%)이 높게 나타남과 함께 가장 필요한 경제적 지원 정책으로 ‘건전한 경제생활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제도)’과 ‘맞춤형 구인·구직 정보제공’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관악구, 2023).

1인 가구의 요구도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 여가생활, 사회적 관계망,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개선이 이뤄져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1인 가구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3절 선행연구 고찰

선행연구 고찰에 있어 1인 가구의 일과 삶의 만족, 1인 가구의 여가생활과 삶의 만족,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과 삶의 만족의 세 가지 세부주제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1. 1인 가구의 일과 삶의 만족

일과 완전히 분리된 인간의 삶과 일이 없는 사회는 상상할 수가 없다(강수택, 1991). 일은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많은 영향을 주고, 삶의 참다운 의미와 보람을

가져다준다(정진곤, 2001).

이처럼 일은 개개인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혼자 살아가야 하는 1인 가구에게도 마찬가지다. 김수영 외(2022)는 1인 가구에게 일과 노동은 단순히 생산활동을 넘어서 ‘자기생산(self production)’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1인 가구는 일 또는 노동을 멈추게 되면 자기의 존재 역시 무의미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 생계유지 목적 이상으로 노동에 계속해서 투신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나 홀로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한 1인 가구에게는 일, 노동, 취업 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일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계청(2023)에서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의 내용에서는 2022년 우리나라의 취업자인 1인 가구 수는 455만 5천 가구로 나타났다. 취업 1인 가구의 연령대는 50~64세가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15~29세 순이었다. 이들의 직업 유형을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사무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가 많았다. 취업한 1인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37시간으로 남성은 39.3시간, 여성은 34.2시간으로 나타나 여성에 비해 남성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이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송혜림과 강은주(2021)의 연구에서 1인 가구가 혼자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는 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독립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주중과 주말 생활패턴을 살펴보면, 대부분 1인 가구의 경우, 취업으로 인해 주중에는 근무, 주말에는 휴무의 패턴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직업과 직종의 특성에 따라 주중의 근무 시간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양지명(2019)은 1인 가구 중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한 결과, 청년 취업 1인 가구는 직장에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휴가를 사용한다는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취업 1인 가구의 경우, 연간 휴가 사용 일수는 5일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5일 이상~10일 미만, 10일 이상 순이었다. 주당 근무 시간은 40시간 이하, 40시간 초과~52시간 이하, 52시간 초과 순으로 적지 않은 수가 주 5일 제도와 주 40시간 근무제의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시간의 근로는 불균형적인 생활로 이어지므로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민주(2017)의 연구에서 1인 가구 중 취업을 한 경우의 직업 유형을 보면 기능원·관련 기능 및 장치, 기계조작·조립 종사자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사무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관리자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 가구의 종사상 지위는 대부분이 상용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주업시간으로는 40시간 이상~50시간 미만이 가장 많은 형태로 나타났고, 정기휴일과 관련해서는 일주일에 2일

휴무(주 5일제)가 가장 많았으며, 취업과 관련해 직업, 종사상지위, 정기휴일, 근무일, 주업에 따라 생활시간사용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앞서 선행연구들을 통해 1인 가구의 경우, 경제적 독립을 위해 취업이 필수적이고, 이는 1인 가구의 생활패턴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여러 직업 유형 등에 따라 근무 시간이 다양하며, 생활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1인 가구의 일 생활과 관련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패턴 및 조건, 직업 유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봐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1인 가구의 연령대에 따라 일과 관련된 내용들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일하는 20대 1인 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유유선(2021)은 20대의 여성 취업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불안정한 일자리로 취업과 퇴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들의 직업 유형은 전문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간단한 입사절차와 접근이 용이한 서비스직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0대 여성 1인 가구는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불합리한 노동문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여봉(2017) 역시 일과 관련해 불안정한 청년 1인 가구의 상황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여봉(2017) 연구에서의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 일선에 뛰어들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경우가 많고, 임시직 및 일용직 비율, 실업률이 다인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회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임시직이나 실업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내몰린 청년 1인 가구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앞선 연구 결과와는 다소 다르게 김종숙(2014)의 연구에서는 청년 1인 가구의 취업자 비중과 상용직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지위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년기 여성 1인 가구는 고용상태 면에서 구직활동 참여가 매우 낮으며, 정부의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년기에는 강화된 고용지원을 통해 이 시기의 소득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이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 외(2022)에 따르면 1인 가구 중 대다수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중장년 1인 가구와 청년 1인 가구의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청년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근로 능력이 가장 높고, 임금근로자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비율이 많으며, 노년 1인 가구는 임시직 근로자 비율이 많아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호 외(2016)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경우,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취업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취업 욕구는 연령이나 건강 상태 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노년층의 경우에는 향

후 취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 마련에 대한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1인 가구의 경우, 대다수가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연령대와 같은 특성에 따라 일과 관련하여 직면한 상황들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내용에 이어 1인 가구의 일 또는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통계청(2023)에서 조사한 결과, 2023년 1인 가구 중 취업을 한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는 34.5%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취업 1인 가구가 전반적인 일자리와 관련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 1인 가구의 근로 여건 만족도와 관련하여 만족과 불만족 영역을 세부적으로 나눠 살펴보면, 만족하는 영역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폭력 방지 영역에 대한 만족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간관계와 하는 일 순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로 여건에 대해 불만족한 영역은 직장에서의 장래성, 임금, 복리후생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고려해 봐야 하는 이유는 1인 가구의 일 또는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이 1인 가구의 생활 전반의 만족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일자리 현황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이태형과 윤성원(2023)은 1인 가구의 청년들은 직장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정규직 유무나 근무 기간 등이 부분적으로 정신건강, 신체적 건강, 생활환경 만족도와 관계가 있고 특히,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삶의 질이 좋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강승엽(2018)의 연구에서도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고용환경 측면이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과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청년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워라벨의 중요성과 함께 적절한 근로시간, 유연한 근로시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성민(2018)의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청년, 중년, 노년 1인 가구 모두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1인 가구는 경제적 요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에게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월소득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1인 가구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청년 1인 가구에 비해 안정된 고용과 소득을 보이며, 월소득이 높아지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장년 1인 가구는 생계유지 이상의 영향력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노

년 1인 가구에게는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경우에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인 가구의 행복에 대해 분석한 민보경(2022)은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생활 수준과 일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감에 대해 더 영향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1인 가구에게 있어 양질의 일자리는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추구하고, 일 중심적인 생활과 함께 시간 및 공간을 구성하며, 일과 자기정체성을 동일시하며 살아간다(김수영 외, 2022). 더욱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이 갖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일 또는 직장생활 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살아가기에는 보다 나은 삶의 만족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일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들을 비롯하여 1인 가구의 일 관련 특성들을 파악하고, 이들의 일과 관련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1인 가구의 전반적인 생활의 만족, 삶의 만족 수준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1인 가구의 여가생활과 삶의 만족

여가란 경제활동 이외의 휴식을 비롯한 다양한 취미활동을 누릴 수 있는 시간, 개인이 조절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2024). 구체적으로 여가의 개념에 대해 서헌(2017)의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여가 개념은 시간적 개념과 비경제적 활동 개념, 마음가짐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시간적 개념은 하루 24시간 내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 관련 활동에 대한 시간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숙면 시간, 개인 준비 시간, 이동 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시간을 여가로 보는 견해이다. 여가의 개념 중 시간적 개념은 매우 현실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개념이자 현대 여가의 개념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비경제적 활동 개념은 쉽게 말해 레크레이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 활동을 하는 이가 본인을 위해 자유 선택으로 여가 활동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본인이 어떤 형태의 여가 활동을 “왜?” 하는지에 대해 설명이 가능한 접근방식으로 볼 수 있다.

마음가짐의 개념은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의 여가 개념, 즉 시간적 개념과 비경제적 활동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여가를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는 개념은 좋은 감정들을 통해 자아표현, 자아성취, 자아실현의 감정에 이르게 되는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 여가의 활동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자유로운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경

협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은 스스로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즐거움을 제공한다. 그리고 여가 활동에 대한 몰입 및 집중은 개인에게 만족감과 성취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일과 일 이외의 영역, 다시 말해 일과 여가생활들을 누리며, 워라벨(Work-Life Balance)을 유지할 수 있어 행복감을 경험하게 된다(윤소영, 2019).

통계청(2023)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여가 활동의 주된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 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어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위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 활동 유형을 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전체 인구에 비해 정적인 활동으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 활동은 TV시청으로 드러났다. 연령대별로 여가 활동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29세 이하와 30대의 경우에는 친구 만남, 이성 교제, 미팅, 소개팅에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40대는 쇼핑 및 외식, 50~64세와 65세 이상은 TV시청, 산책 및 걷기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기보다는 다소 단조롭게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인 가구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을 보면, 평일 여가 시간은 3~5시간 미만으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주말에는 여가 시간으로 5~7시간을 보냄으로써 확실히 평일보다 주말에 다소 여가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시간과 관련해 권안나(2021)의 연구 결과를 보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여가 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여가 시간에 비해 희망 여가 시간이 높으며 여가 시간 충분도가 낮게 나타남으로써 절대적인 시간이 넉넉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2023)에서 조사한 1인 가구의 월평균 여가 활동 비용을 보면 15만원 이상에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7만원 미만, 9~15만원 미만 순이었다. 양지명(2019)은 여가생활을 위한 여가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그들이 여가 활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다고 하였는데, 20대의 경우에는 비용의 한계에 부딪혀 여가 활동 선택에 있어 제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도한 업무량의 영향은 적극적인 여가 활동을 좌절시키게 만드는 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연차 또는 휴가를 활용하여 넉넉하지 않은 휴가 기간 동안 빠듯한 일정으로 여행을 한다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휴식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여가생활과 관련하여 함께 여가를 즐길 대상, 파트너 역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활동에서의 파트너의 경우에는 여가 활동 선택에 많은 영향을 줌과 동시에 1인 가구에게 외로움의 정서를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양지명, 2019).

1인 가구의 여가생활은 개인의 즐거움 또는 심리적 안정과 생활의 균형을 위

해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1인 가구의 만족스러운 여가생활을 위해서는 여가 시간, 비용, 여가 활동 유형, 여가 활동 파트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영금과 윤소영(2018)의 연구를 통해 1인 가구의 여가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해 세대별로 살펴보면, 에코세대가 여가의 필요성 및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고, 베이비붐세대와 청소년세대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X세대가 여가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학업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세대, 에코세대, X세대, 베이비붐세대에서는 평일 여가 시간이 노년세대에 비해 비교적 적었으며, 에코세대와 X세대, 베이비붐 세대의 시간 충분도가 청소년세대, 노년세대와 비교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활동 유형에 따른 참여와 관련하여 문화·예술 관람 활동의 경우에는 노년세대의 참여는 낮은 반면, 문화적 관심이 높은 청소년세대와 에코세대에서는 높은 참여를 보였고, 스포츠 관람 및 참여 역시 노년세대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제약으로 관람과 참여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광 활동은 시간과 비용의 여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에코세대가 높은 참여율과 높은 여가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취미와 오락의 경우에는 연령이 낮은 세대에서의 높은 참여 그리고 사회 및 기타 활동은 2-3개 수준에서 노년세대의 높은 참여를 알 수 있었다. 이는 세대별 삶에서 축적된 교육, 생활에 있어 서로 다른 경험이 각 세대별 1인 가구의 생활 여건적 요소들과 맞물려 여가 활동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여가 경험 행태를 살펴본 김지혜와 윤지인(2020)은 청년 1인 가구의 경우에는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나 홀로 즐기는’ 여가 경험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여가생활은 집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집에서 즐기는 여가’였으며, 청년세대의 1인 가구는 여가 경험을 풍요롭게 하고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카페 투어, 맛집 탐방이나 좋아하는 활동의 소모임에 참여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등 ‘소셜미디어 활용’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여가 활용 만족도를 살펴보면 2023년 1인 가구의 여가 활용 만족도는 전체 인구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불만족의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에 이어 건강·체력부족, 시간 부족, 취미·파트너 부재, 시설·정보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3).

이와 더불어 양지명(2019)의 연구 결과에서는 일과 여가의 균형을 얼마만큼 느끼냐에 따라 여가 활동에서 오는 만족감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하고 싶은 여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또한 만족스런 여가생활을 위해 중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워라벨(Work-Life Balance)의 중요성과 함께 그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일과 여가의 균형 정도에 따라 또는 여가생활이 만족스럽

거나 그렇지 못함에 따라 삶의 만족, 삶의 질, 행복 수준 등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조규준(2023)는 여가 사용시간 비율이 많은 국가들의 경우, 노동시간이 길지 않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특징임을 밝혀냈다. 이와 함께 나라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생활 활성화가 삶의 만족도 증가에 일정 부분 기여함을 강조하였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금미와 김상미(2023)의 연구 결과를 보면 여가 활동에 대해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참여한 집단이 그리고 수동적인 여가 활동 참여집단보다 능동적 여가 활동 참여집단이 여가 활동 만족은 물론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 여가 활동 참여와 여가 만족도는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권안나(2021)의 연구에서는 높은 여가 활동 참여, 충분한 여가 시간, 높은 희망 여가 시간 등이 1인 가구로서의 삶에 대한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영미와 김영수(2021)는 여가생활에 만족할수록 사회적 친분 관계가 긍정적인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여가 활동 참여의 중요성 인식 및 여가생활 참여기회의 확대 등 개선 방안들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연구 결과들을 통해 여가는 우리의 삶의 만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충분한 여가 시간과 여가 활동 등으로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3.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과 삶의 만족

우리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더불어 살아간다’는 표현을 종종 사용한다. 이는 다시 말해 타인과의 관계 맺음에 대한 필요성, 즉 우리가 살아가며 행복한 삶을 위해 사회적 관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관계망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이 풍부하게 형성되었을 경우에는 심리적 안정과 더불어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김재이, 2022).

따라서, 사회적 관계망은 학술적으로든, 일상생활 속에서든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구 사회에 비해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서로 다르면

서도 보완적인 사람들 간에 연결이 되기도 하고, 서로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 간에 유대감을 가져 사회적 자본이 발전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단절된 사회적 관계로 외로움을 느끼고, 고립 상태에 빠져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한준 외, 2014).

특히,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와는 달리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특성상 불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며, 1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고독사, 우울, 외로움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나 홀로 사는 1인 가구에게 사회적 고립, 연결망, 참여 등 사회적 관계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진다(민보경, 2023b).

이에,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과 관련하여 다음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연구원(2022b)에 따르면 1인 가구는 문제 발생에 따른 상의 및 식사 등 가족과의 생활과 소통에 대해 가끔 하거나 거의 안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크고, 전반적인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외로움은 가족과의 관계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유정 외(2016)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최유정 외(2016)의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경우, 가족과 동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접촉 정도나 상호 정서적 교감이라는 양적, 질적 차원에서 모두 가족과 약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척이나 친구 관계 또한 상대적으로 긴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가족, 친척, 친구와의 관계의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 모두 다인 가구 거주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인다. 비공식적이고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1인 가구가 취약한 것은 혼자 생활하는 삶에 있어 정서적으로 상쇄해 줄 수 있는 여타의 자원이 충분치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해 세대별로 살펴보면, 노혜진(2018)의 연구에서는 청년 1인 가구가 타인과 함께 있는 시간은 하루에 약 74분으로 나타났다. 다른 가구 유형과 비교했을 때, 그 수준이 55~60%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의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여성이면서 월평균 개인 소득이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인 경우에 사회적 관계 시간이 증가한 반면, 종사상지위가 상용직이거나, 직업이 관리전문직, 기능장치조립직일 때, 사회적 관계 시간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또 다른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본 양준영(2022)의 연구 결과를 보면 청년 1인 가구는 친구를 제외하고는 가족과 친인척 등 혈연관계를 비롯하여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멀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다인 가구 청년

들에 비해 사회적 교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대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많았으며, 문제상황 발생 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율 역시 다인 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나 청년 1인 가구들은 사회적 교류가 양적으로는 많을지라도 실제 사회적 관계망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 1인 가구 대상으로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중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노후 준비에 대해 연구한 성혜영(2021)은 중년 1인 가구의 경우, 다인 가구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하며, 단체활동 참여 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년 1인 가구의 특성과 관련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중년 1인 가구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는 작아지지만, 단체활동 참여는 많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 중년 1인 가구가 남성 중년 1인 가구보다 사회적 관계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육정도와 가구소득 관련 주관적 소득이 높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망과 단체활동, 인간관계 만족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중년 1인 가구는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상태가 열악하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을 위한 사회적 자원 연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권혁철과 김형용(2017)은 중년층 남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중년층 남성 1인 가구의 경우,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인 가구에 비해 응답 비율이 적게 나타나 중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사회적 지지망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취약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의 수준이 낮아 이들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유미 외(2024)의 연구에서는 노인 여성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의 원만한 수준이 노인 여성 다인 가구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노인 여성 1인 가구는 동거하지 않는 가족과의 관계 점수, 친구 및 타인과의 관계 점수, 사회활동 참여 비율 정도가 노인 여성 다인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외부 자극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은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유수열과 조옥선(2023)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평균이 5점 만점에 3.38점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에 그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2년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서의 사회적 관계망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하락

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 만족도는 57.7%, 인간관계 만족도는 46.7%로 전체 가구보다 각각 6.8%, 6.1% 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코노미 뉴스, 2022).

이와 같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만족도 관련 결과들에 대해 고려를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이들의 주관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김재이(202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 관련 요인인 인간관계 전반적 만족도와 가족 만족도는 세대별(청년, 중장년, 노년) 모든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관계망 만족도의 긍정적인 결과는 이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

유수열과 조옥선(2023)은 1인 가구의 경우, 가족, 직업, 사회적 친분, 여가생활 등 개인의 주변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더욱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하며, 1인 가구의 만족스런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옥분(2018)의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관련해 제도적 신뢰, 사회적 관계망, 직장생활과의 연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직장과의 연계가 강할수록, 제도적 신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클수록 1인 가구의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혼자서 생활하는 1인 가구의 보다 나은 삶의 만족을 위해서라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관악구(202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사회적 관계망에 대해 얼마나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위급상황 우려에 대한 고충이 크고, 중장년층은 외로움에 대한 고충이 커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를 위한 정보교류 장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1인 가구가 다수이고, 가장 필요한 1인 가구 문화 및 사회적 지원정책으로 ‘소모임 지원’을 선호하고 희망한다는 자체가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지원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사회적 관계망과 삶의 만족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1인 가구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이들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전략 마련과 새로운 1인 가구 시대에 맞는 제도와 준비가 필요함을 고려해 볼 수 있다(민보경, 2023a).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파악과 주관적 만족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취업 1인 가구

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과 함께 이들의 삶의 만족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 제도 등을 비롯하여 개선될 수 있는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제4절 연구가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들이 영역별 만족도(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여가 활용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에, 일-생활 균형 관점과 생태체계적 관점을 적용하여 개인 체계 변수와 사회환경 체계 변수를 선정하고, 개인 체계와 사회환경 체계의 변수가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이어,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된 경우, 취업 1인 가구의 각 영역의 특성이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다음 취업 1인 가구의 각 영역의 특성이 영역별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자료인 ‘2023 사회조사’에 제시되어 있는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문항을 바탕으로 취업 1인 가구를 세 집단(일 우선 집단,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가정생활 우선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취업 1인 가구의 일과 가정생활 우선 정도에 따른 세 집단 간에 영역별 만족도(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여가 활용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만족도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정하에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연구가설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취업 1인 가구의 일 특성, 여가생활 특성, 사회적 관계망 특성은 영역별 만족도 즉,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여가 활용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취업 1인 가구의 일 특성은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취업 1인 가구의 여가생활 특성은 여가 활용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취업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은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취업 1인 가구의 개인 체계와 사회환경 체계는 주관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취업 1인 가구의 개인 체계는 주관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취업 1인 가구의 사회환경 체계는 주관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된 경우, 취업 1인 가구의 일 특성, 여가 생활 특성, 사회적 관계망 특성은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된 경우, 취업 1인 가구의 일 특성은 주관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된 경우, 취업 1인 가구의 여가생활 특성은 주관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된 경우, 취업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은 주관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취업 1인 가구의 일 특성, 여가생활 특성, 사회적 관계망 특성은 영역별 만족도를 각각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취업 1인 가구의 일 특성은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취업 1인 가구의 여가생활 특성은 여가 활용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3. 취업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은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5.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 정도에 의한 세 집단(일 우선 집단,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가정생활 우선 집단)에 따라 영역별 만족도(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여가 활용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1.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 정도에 의한 세 집단(일 우선 집단,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가정생활 우선 집단)에 따라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2.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 정도에 의한 세 집단(일 우선 집단, 일과 가정

생활 균형 집단, 가정생활 우선 집단)에 따라 여가 활용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3.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 정도에 의한 세 집단(일 우선 집단,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가정생활 우선 집단)에 따라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4.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 정도에 의한 세 집단(일 우선 집단,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가정생활 우선 집단)에 따라 주관적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3장 연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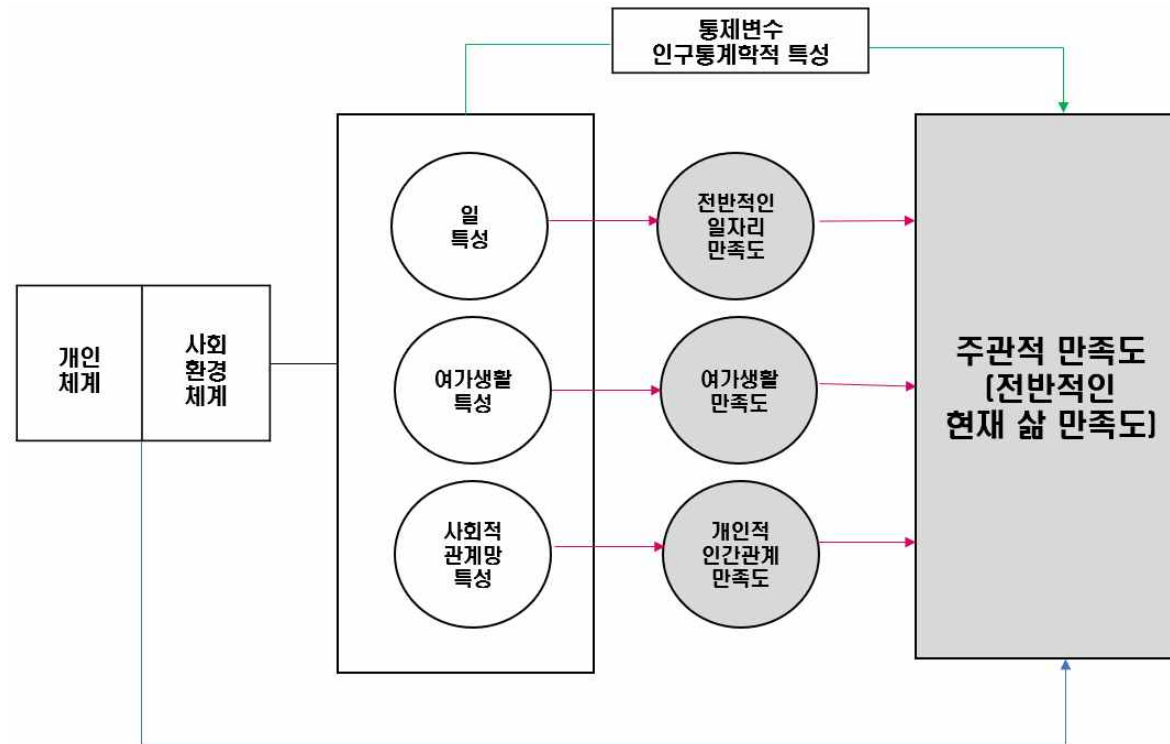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연구의 모형을 제시하고, 연구를 위한 자료와 연구 대상, 분석 방법, 변수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의 실태와 특성을 살펴보고, 각 영역(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이 영역별 만족도(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여가 활용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먼저 일-생활 균형 관점과 생태체계적 관점을 적용하여 개인 체계와 사회 환경 체계 변수를 선정하고, 선정한 변수들이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했을 경우, 취업 1인 가구의 일 특성과 여가생활 특성, 사회적 관계망 특성이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그리고 취업 1인 가구의 각 영역(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이 영역별 만족도(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여가 활용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연구모형

제2절 연구자료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3년 5월 17일부터 2023년 6월 1일까지 17개 시·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통계청의 ‘2023 사회조사¹⁾’ 원자료를 활용하였다(통계청, 2024).

주 5일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우리 사회의 근무 여건들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중한 업무량으로 번아웃 증후군이 나타나거나 조용한 사직과 같은 현상들이 이슈화되고 있다. 또한, 장시간 근로로 타임푸어를 겪게 됨으로써 계속해서 워라벨 즉, 일-생활 균형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다(강은주, 2024). 이러한 맥락에서 통계청에서는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을 파악하여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조사를 매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사회조사는 홀수 해와 짝수 해에 따라 조사 범위와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다. 홀수 해에는 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부문에 대해 조사가 실시되며 짝수 해는 건강, 교육과 훈련, 범죄와 안전, 가족, 생활환경 부문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 사회조사’와 관련 당해 홀수 해였으므로 공통 부문, 일반 복지 부문, 장애인 복지 부문, 노인 복지 부문, 사회참여 부문, 여가 부문, 소득과 소비 부문, 노동 부문, 개인 및 가구 일반사항의 9개의 영역을 바탕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에 대해 연구하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공통 부문의 주관적 만족도, 사회참여 부문의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신뢰, 사회적 관계망, 단체 참여, 여가 부문의 독서 경험 유무, 문화 예술·스포츠 관람 유무, 레저 시설 이용 유무, 국내 관광 여행 경험 유무, 해외여행 경험 유무, 여가 활용(주중과 주말 여가 활동 및 여가 활동 파트너), 여가 활용 만족도, 여가 활용의 불만족 이유, 향후 희망하는 여가 활동, 노동 부문은 직업 선택 요인,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고용의 안정성, 직업 유형, 종사상 지위, 근로 여건 만족도(임금, 복리후생, 근무 환경, 근로시간, 하는 일, 장래성, 인사 관리, 인간관계,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사업체의 직장 내 폭력방

1) 사회조사는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임. 매년 5월 15일이 포함된 주의 수요일을 기준 시점으로 조사 실시함.

지 노력, 직장 내 교육 훈련의 기회,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가 있다. 이처럼 원 자료에는 노동(일), 여가(여가생활), 사회참여(사회적 관계망) 부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의 만족도에 대해서도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과 관련해 보면,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2023 사회조사’에는 총 35,417명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세대 구분에 대해 1인 가구라고 응답하였고, 경제활동 유무와 관련해 취업에 응답하였으며, 종사자 지위에 대해 임금근로자에 응답한 케이스와 함께 20세 이상 69세 이하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선택해 총 2635명을 추출하여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연령대 선정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사회는 100세 사회로 정년 연장 등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통계청(2023)의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는 취업 1인 가구 중 50~64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일반적인 특성을 위해 연령대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60세 이상부터 69세 이하의 빈도수가 458명(17.4%)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59세)와 그 비율이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의 연령대는 20세 이상부터 69세 이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자료 사용과 관련해서는 울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후, 심의면제확인을 승인받았다(IRB No. 2024R0005-001).

제3절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 등을 살펴보고자 IBM SPSS Statistics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통계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 1인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과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의 실태와 특성을 살펴보고자 빈도, 백분율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일 특성과 여가생활 특성, 사회적 관계망 특성이 영역별 만족도 즉,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여가 활용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와 관련하여 먼저, 개인 체계와 사회환경 체계의 변수가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했을 경우, 일 특성과 여가생활 특성, 사회적 관계망 특성이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취업 1인 가구의 각 영역별 특성이 영역별 만족도

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즉, 일 특성이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여가생활 특성이 여가 활용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적 관계망 특성이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매개변수 회귀분석(매개효과)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취업 1인 가구를 세 집단(일 우선 집단,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가정생활 우선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취업 1인 가구의 일과 가정생활 우선 정도에 따른 세 집단 간에 영역별 만족도(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여가 활용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만족도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 연구가설에 따른 분석방법 (1)

구분	연구가설		분석방법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	연구가설 1. 취업 1인 가구의 일 특성, 여가생활 특성, 사회적 관계망 특성은 영역별 만족도 즉,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여가 활용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취업 1인 가구의 일 특성은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중 회귀분석
		가설 1-2. 취업 1인 가구의 여가생활 특성은 여가 활용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취업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은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7〉 연구가설에 따른 분석방법 (2)

구분	연구가설		분석방법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	연구가설 2. 취업 1인 가구의 개인 체계와 사회환경 체계는 주관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취업 1인 가구의 개인 체계는 주관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중 회귀분석
		가설 2-2. 취업 1인 가구의 사회환경 체계는 주관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했을 경우, 취업 1인 가구의 일 특성, 여가생활 특성, 사회적 관계망 특성은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했을 경우, 취업 1인 가구의 일 특성은 주관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계적 회귀분석
		가설 3-2.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했을 경우, 취업 1인 가구의 여가생활 특성은 주관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했을 경우, 취업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은 주관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8〉 연구가설에 따른 분석방법 (3)

구분	연구가설		분석방법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	연구가설 4. 취업 1인 가구의 일 특성, 여가생활 특성, 사회적 관계망 특성은 영역별 만족도를 각각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취업 1인 가구의 일 특성은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개변수 회귀분석
		가설 4-2. 취업 1인 가구의 여가생활 특성은 여가 활용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3. 취업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은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9〉 연구가설에 따른 분석방법 (4)

구분	연구가설		분석방법
<p>세 집단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p>	<p>연구가설 5.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 정도에 의한 세 집단(일 우선 집단,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가정생활 우선 집단)에 따라 영역별 만족도 즉,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여가 활용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p>	<p>가설 5-1.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 정도에 의한 세 집단(일 우선 집단,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가정생활 우선 집단)에 따라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p>	<p>일원배치 분산분석</p>
		<p>가설 5-2.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 정도에 의한 세 집단(일 우선 집단,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가정생활 우선 집단)에 따라 여가 활용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p>	
		<p>가설 5-3.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 정도에 의한 세 집단(일 우선 집단,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가정생활 우선 집단)에 따라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p>	
		<p>가설 5-4.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 정도에 의한 세 집단(일 우선 집단,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가정생활 우선 집단)에 따라 주관적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p>	

제4절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주관적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를 측정하고자 “귀하는 자신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원자료에 제시된 ‘1. 매우 만족한다’, ‘2. 약간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약간 불만족한다’, ‘5. 매우 불만족한다’를 다시 재설정하여 ‘매우 불만족한다(1점)’, ‘약간 불만족한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만족한다(4점)’, ‘매우 만족한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만족도 즉, 현재 삶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 관련 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 변수에 일-생활 균형 관점과 생태체계적 관점을 적용하여 개인 체계와 사회환경 체계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일 관련 변수로는 직업 선택 요인,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고용 안정성, 직업 유형, 종사상 지위, 근로 여건 만족도(임금(하는 일과 비교하여), 복리후생, 근무 환경(안전, 위생 상태 등), 근로시간, 하는 일, 장래성, 인사 관리(승진, 배치, 이동), 인간관계(상하, 동료 간),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사업체의 직장 내 폭력(언어폭력, 성희롱 등) 방지 노력, 직장 내 교육 훈련의 기회) 관련 문항들이 있다.

여가생활 관련 변수에는 독서, 문화 예술·스포츠 관람, 레저시설 이용, 국내 관광 여행, 해외여행 경험, 주중과 주말 여가 활동 유형, 주중과 주말 여가 파트너, 여가 활용의 불만족 이유, 향후 희망하는 여가 활동 관련 문항들이 있다.

사회적 관계망 변수로는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가사도움 요청 대상 유무, 차금차입 도움 요청 대상 유무, 대화 상대 도움 요청 대상 유무, 교류 가족친척 대상 유무, 교류 가족친척 이외 대상 유무, 단체 참여(친목·사교 단체(계 모임, 동창회 등),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종교 단체(자비원, 선교회, 교리 연구회 등), 시민 사회단체(환경 단체, 봉사 단체 등), 학술 단체, 이익 단체(노동조합, 의사회, 약사회 등), 정치 단체, 지역사회 모임(반상회, 입주자 대표회 등), 기타) 관련 문항들이 있다.

이에 대해 일-생활 균형 관점과 생태체계적 관점을 적용하여 개인 체계와 사

회환경 체계 변수를 선정할 수 있다.

개인 체계와 사회환경 체계 변수 선정과 관련, 생태체계적 관점에 대한 접근은 연구자의 연구 내용 및 특성에 따라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서중수, 양지훈, 2020)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개인 체계는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 관련 변수들로부터 개인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개인적인 요소들, 즉 개인적인 상황과 특성, 경험, 가치관들이 나타나는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사회환경 체계 변수 선정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개인을 기준으로 다수와의 관계적인 측면이 드러나는 변수들로 선정하였다.

선정한 개인 체계와 사회환경 체계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 체계

개인 체계 변수로는 직업 선택 요인, 직업 유형, 종사상 지위, 고용의 안정성(불안함을 느끼는 정도), 근로 여건 만족도(임금(하는 일과 비교하여), 복리후생, 근무 환경, 근로시간, 하는 일, 장래성),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독서 경험 유무,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유무, 레저시설 이용 유무, 국내 관광 여행 경험 유무, 해외여행 경험 유무, 주중과 주말 여가 활동 유형, 향후 희망 여가 활동, 여가 활용의 불만족 이유, 가사도움 요청 대상 유무, 차금차입 도움 요청 대상 유무, 대화 상대 도움 요청 대상 유무, 교류 가족친척 대상 유무, 교류 가족친척 이외 대상 유무가 있다.

2) 사회환경 체계

사회환경 체계 변수와 관련해서는 근로 여건 만족도(인사 관리(승진, 배치, 이동), 인간관계(상하, 동료 간),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사업체의 직장 내 폭력(언어폭력, 성희롱 등) 방지 노력, 직장 내 교육 훈련의 기회)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주중 및 주말 여가 활동 파트너,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단체 참여(친목·사교 단체(계 모임, 동창회 등),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종교 단체(자비원, 선교회, 교리 연구회 등), 시민 사회단체(환경 단체, 봉사 단체 등), 학술 단체, 이익 단체(노동조합, 의사회, 약사회 등), 정치 단체, 지역사회 모임(반상회, 입주자 대표회 등), 기타) 관련 문항들이 있다.

3.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대, 교육정도, 거주종류, 점유형태, 가구소득)

본 연구를 위한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독립표본 t검정 또는 일원 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해 종속변수인 주관적 만족도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를 선정하였다. 이에, 통제변수를 성별, 연령대, 교육정도, 거주종류, 점유형태, 가구소득으로 설정하였다.

4. 매개변수: 각 영역별 만족도(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여가 활용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취업 1인 가구의 각 영역의 특성이 영역별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즉, 일 특성이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가생활 특성이 여가 활용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적 관계망이 개인적인 인간관계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매개변수는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와 여가 활용 만족도, 개인적인 인간관계 만족도 관련 문항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기준(1)

구분			변수명	변수 설명
종속변수			주관적 만족도	- 매우 불만족 한다=1(1점) - 매우 만족한다=5(5점)
독립 변수	일특성	개인 체계	직업 선택 요인	- 외재적 동기=1 - 내재적 동기=2 - 근무 환경(근무시간, 노동 강도 등)=3 - 기타 및 모르겠다=0(기준변수)
			직업 유형	- 전문관리=1 - 사무=2 - 서비스판매=3 - 농어업=4 - 기능노무=0(기준변수)
			종사상 지위	- 상용근로자=1 - 임시근로자=2 - 일용근로자=0(기준변수)
			고용 안정성(불안함을 느끼는 정도)	- 매우 많이 느낀다=1(1점) - 느끼는 편이다=2(2점) - 느끼지 않는 편이다=3(3점) - 전혀 느끼지 않는다=4(4점)

<표 1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기준(2)

구분		변수명		변수 설명	
독립 변수	일특성	개인 체계	근로 여건 만족도	임금(하는 일과 비교하여)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불만족한다=1(1점) - 약간 불만족한다=2(2점) - 보통이다=3(3점) - 약간 만족한다=4(4점) - 매우 만족한다=5(5점)
				복리후생 만족도	
				근무 환경(안전, 위생 상태 등) 만족도	
				근로시간 만족도	
				하는 일 만족도	
				장래성 만족도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우선=1 - 일과 가정생활 균형=2 - 가정생활 우선=0(기준변수) 	
	사회환경 체계	근로 여건 만족도	인사 관리(승진, 배치, 이동)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불만족한다=1(1점) - 약간 불만족한다=2(2점) - 보통이다=3(3점) - 약간 만족한다=4(4점) - 매우 만족한다=5(5점) 	
			인간관계 만족도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만족도		
			사업체의 직장 내 폭력(언어폭력, 성희롱 등) 방지 노력 만족도		
			직장 내 교육 훈련의 기회 만족도		

<표 1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기준(3)

구분		변수명	변수 설명	
독립 변수	여가 생활 특성	개인 체계	독서 경험 유무	- 있다=1 - 없다=0(기준변수)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유무	
			레저시설 이용 유무	
			국내 관광여행 경험 유무	
			해외여행 경험 유무	
		향후 희망 여가 활동 유형	- 휴식형=1	
			- 활동형=2 - 기타=0(기준변수)	
		여가 활용의 불만족 이유	-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므로=1	
			- 시간이 부족하므로=2	
			- 교통 혼잡 및 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하므로=3 - 여가 인프라가 부족하므로=4 - 개인 사유로=5 - 기타=0(기준변수)	
사회환경 체계	주중과 주말의 여가 활동 파트너	- 가족 및 친구(연인 포함)=1 - 동호회(종교 단체 등 포함) 구성원 및 직장 동료=2 - 혼자서=3 - 기타=0(기준변수)		

〈표 1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기준(4)

구분		변수명		변수 설명		
독립 변수	사회적 관계망 특성	개인 체계	가사도움 요청 대상 유무	- 있다=1 - 없다=0(기준변수)		
			차금차입 도움 요청 대상 유무			
			대화 상대 도움 요청 대상 유무			
			교류 가족친척 대상 유무			
			교류 가족친척 이외 대상 유무			
		사회환경 체계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 전혀 믿을 수 없다=1(1점) - 별로 믿을 수 없다=2(2점) - 약간 믿을 수 있다=3(3점) - 매우 믿을 수 있다=4(4점)	
			단체 참여	친목·사교 단체(계 모임, 동창회 등)		- 참여하였다=1 - 참여하지 않았다=0(기준변수)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종교 단체(자비원, 선교회, 교리 연구회 등)		
				시민 사회단체(환경 단체, 봉사 단체 등)		
				학술 단체		
				이익 단체(노동조합, 의사회, 약사회 등)		
정치 단체						
지역 사회 모임(반상회, 입주자 대표회 등)						
기타()						

<표 1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기준(5)

구분	변수명	변수 설명
통제변수	성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1 - 여자=0(기준변수)
	연령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9세=1 - 30~39세=2 - 40~49세=3 - 50~59세=4 - 60~69세=0(기준변수)
	교육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졸업 이하=1 - 중학교 졸업=2 - 고등학교 졸업=3 - 대학교 졸업=4 - 대학원 졸업=0(기준변수)
	거처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1 - 아파트=2 - 연립·다세대 주택=3 - 기타=0(기준변수)
	점유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1 - 전세=2 - 보증금 있는 월세=3 -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4 - 무상(자가는 아니지만 세 없이 무상으로 사는 경우)=0(기준변수)

<표 15>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기준(6)

구분	변수명	변수 설명
통제변수	가구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만원 미만=1 - 100~200만원 미만=2 - 200~300만원 미만=3 - 300~400만원 미만=4 - 400~500만원 미만=5 - 500만원 이상=0(기준변수)
매개변수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불만족한다=1(1점) - 약간 불만족한다=2(2점) - 보통이다=3(3점) - 약간 만족한다=4(4점) - 매우 만족한다=5(5점)
	여가 활용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제4장 연구 결과 및 분석

본 장에서는 취업 1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과 이들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의 실태와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일-생활 균형 관점과 생태체계적 관점을 적용하여 선정된 개인 체계와 사회환경 체계가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다.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의 변수를 통제할 경우, 일 특성, 여가생활 특성, 사회적 관계망 특성이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더불어 각 영역별 특성이 영역별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분석 실시 및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취업 1인 가구 중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 정도에 따라 세 집단(일 우선 집단,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가정생활 우선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고, 세 집단에 따라서 각각의 영역별 만족도와 주관적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성별은 여성 35.5%, 남성 64.5%로 남성 1인 가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0~39세 이상이 2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59세, 20~29세, 40~49세, 60~69세 순으로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1인 가구가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생애주기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은, 어느 연령대에서든 1인 가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경기신문, 2023).

거주지역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가 1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특별시 거주(10.3%)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대학교 졸업(50.1%), 고등학교 졸업(32.6%), 대학원 졸업(6.3%), 중학교 졸업(6.1%), 초등학교 졸업 이하(4.8%) 순으로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다.

1인 가구의 주거 종류를 보면, 대다수의 1인 가구가 단독주택(45.8%)에 거주하고 있고, 다음으로 아파트(33.5%), 연립·다세대 주택(11.8%), 기타(8.8%) 순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는 보증금 있는 월세가 49.4%로 가장 많았다. 1인 가구의 소득 수준을 보면, 200~300만원 미만의 비율(34.5%)이 가장 많고, 직업 유형은 기능노무(42.7%), 전문관리(20.6%), 사무(18.7%), 서비스 판매(16.9%), 농어업(0.8%) 순이었다.

요약하면, 취업 1인 가구의 경우에 성별은 남성, 연령대는 30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거주지역은 경기도 거주, 교육정도는 대학교 졸업 이상, 거처 종류는 단독 주택, 점유 형태는 보증금 있는 월세, 소득 수준은 200~300만원 미만, 직업 유형은 기능노무에 대해 다수 응답의 특성을 보인다.

<표 1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N=2635)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여성	936	35.5
	남성	1699	64.5
연령	20~29세	537	20.4
	30~39세	599	22.7
	40~49세	471	17.9
	50~59세	570	21.6
	60~69세	458	17.4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271	10.3
	부산광역시	136	5.2
	대구광역시	100	3.8
	인천광역시	134	5.1
	광주광역시	106	4.0
	대전광역시	119	4.5
	울산광역시	95	3.6
	세종특별자치시	146	5.5
	경기도	330	12.5
	강원도	132	5.0
	충청북도	157	6.0
	충청남도	197	7.5
	전라북도	120	4.6
	전라남도	167	6.3
	경상북도	154	5.8
	경상남도	172	6.5
제주특별자치도	99	3.8	

<표 17>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N=2635)

	구분	빈도	백분율(%)
교육정도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7	4.8
	중학교 졸업	161	6.1
	고등학교 졸업	859	32.6
	대학교 졸업	1321	50.1
	대학원 졸업	167	6.3
거처종류	단독주택	1206	45.8
	아파트	884	33.5
	연립·다세대 주택	312	11.8
	기타	233	8.8
점유형태	자가	666	25.3
	전세	447	17.0
	보증금 있는 월세	1303	49.4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80	3.0
	무상(자가는 아니지만 세 없이 무상으로 사는 경우)	139	5.3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93	7.3
	100~200만원 미만	533	20.2
	200~300만원 미만	909	34.5
	300~400만원 미만	502	19.1
	400~500만원 미만	210	8.0
	500만원 이상	288	10.9
직업 유형	전문관리	542	20.6
	사무	494	18.7
	서비스 판매	444	16.9
	농어업	21	0.8
	기능노무	1126	42.7

제2절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

본 절에서는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의 실태와 특성을 살펴보고, 각 영역의 특성들(일 특성, 여가생활 특성, 사회적 관계망 특성)이 영역별 만족도(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여가 활용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1.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 실태와 특성

1) 취업 1인 가구의 일 관련 실태와 특성: 직업에 대해 안정성과 수입 등을 고려하나 실제 고용 안정성 수준은 낮고, 근로 여건 만족 수준이 보통인 취업 1인 가구

취업 1인 가구의 일 관련 실태와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취업 1인 가구는 직업을 선택할 시에 외재적 동기(69.0%), 즉 명예·명성, 안정성, 수입을 가장 중요시하며 고려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내재적 동기(19.7%), 근무 환경(근무시간, 노동 강도 등)(10.3%) 순이었다.

일과 가정생활 우선 정도에 대해서는 일을 우선시한다(하는 편이다)는 의견이 48.4%로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나 1인 가구에 있어 일은 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고용 안정성과 관련 불안함을 느끼는 편이다가 41.9%로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보여 취업 1인 가구의 고용 안정성에 대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직업 유형으로는 기능노무(42.7%)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전문관리(20.6%), 사무(18.7%), 서비스판매(16.9%), 농어업(0.8%) 순이었다.

종사상 지위에 대한 결과를 보면 상용근로자가 70.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임시근로자(16.8%), 일용근로자(13.1%)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1인 가구 중 상용근로자는 절반 이상이지만 한 편으로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약 29.9% 정도이므로 고용 안정성으로부터 불안함을 느끼는 취업 1인 가구의 고충들을 연결시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취업 1인 가구의 근로 여건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면, 모든 근로 여건 만족도 관련 세부 항목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임금(하는 일과 비교하여)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다는 41.7%,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0.8%, 근무 환경(안전, 위생 상태 등)에 대한 만족도 관련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2.0%,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4.9%,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의 보통이다에 대한 응답 비율은

44.6%, 장래성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8.4%, 인사 관리(승진, 배치, 이동)에 대한 만족도의 보통이다에 대한 응답 비율은 42.4%, 인간관계(상하, 동료 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3.3%,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9.4%, 사업체의 직장 내 폭력(언어폭력, 성희롱 등) 방지 노력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9.4%, 직장 내 교육 훈련의 기회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4.4%,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0.7%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업 1인 가구의 근로 여건 만족도 결과에 따라 보다 만족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취업 1인 가구의 일 관련 실태와 특성을 요약하면, 취업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일과 가정생활 중 일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혼자 생활하며 생활 유지를 위한 경제적인 부담 등이 있기에 직업을 선택할 때는 수입 등과 관련된 외재적 동기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인 가구의 고충을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차지하는 것(관악구, 2023)처럼 이들은 혼자서 생활하며 소득이나 수입을 마련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직업을 가져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직업 선택 시에도 수입과 안정성 등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는 불안함을 느낀다는 취업 1인 가구가 많고, 일용 및 임시근로자가 29.9% 가량이 되므로 실제와 생각 차이에서 오는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할 수 있다.

그리고 취업 1인 가구의 직업 유형과 관련해서는 기능노무에 대한 응답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 여건 만족도에 대해서는 모든 세부 항목에서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은 보통이다에 대한 응답 결과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나 만족할 수 있는 근로 여건, 근무 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표 18> 취업 1인 가구의 일 관련 실태와 특성 (1)

(N=2635)

구분	빈도	백분율(%)	
직업선택요인	외재적 동기	1819	69.0
	내재적 동기	520	19.7
	근무 환경(근무시간, 노동 강도 등)	272	10.3
	기타	1	0.0
	잘 모르겠다	23	0.9
일·가정생활 우선 정도	일을 우선시한다(하는 편이다)	1276	48.4
	일과 가정생활 둘 다 비슷하게 생각한다	1027	39.0
	가정생활을 우선시한다(하는 편이다)	332	12.6
고용안정성	매우 많이 느낀다(불안함을 느낀다)	361	13.7
	느끼는 편이다(불안함을 느끼는 편이다)	1104	41.9
	느끼지 않는 편이다(불안함을 느끼지 않는 편이다)	891	33.8
	전혀 느끼지 않는다(불안함을 느끼지 않는다)	279	10.6
직업 유형	전문관리	542	20.6
	사무	494	18.7
	서비스판매	444	16.9
	농어업	21	0.8
	기능노무	1126	42.7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847	70.1
	임시근로자	442	16.8
	일용근로자	346	13.1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임금(하는 일과 비교하여)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한다	204	7.7
	약간 불만족한다	552	20.9
	보통이다	1098	41.7
	약간 만족한다	598	22.7
	매우 만족한다	172	6.5
	모르겠다	11	0.4

<표 19> 취업 1인 가구의 일 관련 실태와 특성 (2)

(N=2635)

구분	빈도	백분율(%)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한다	213	8.1
	약간 불만족한다	494	18.7
	보통이다	1076	40.8
	약간 만족한다	552	20.9
	매우 만족한다	147	5.6
	모르겠다	49	1.9
	해당 없다	104	3.9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근무 환경(안전, 위생 상태 등)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한다	127	4.8
	약간 불만족한다	434	16.5
	보통이다	1106	42.0
	약간 만족한다	704	26.7
	매우 만족한다	250	9.5
	모르겠다	14	0.5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한다	104	3.9
	약간 불만족한다	339	12.9
	보통이다	1183	44.9
	약간 만족한다	716	27.2
	매우 만족한다	281	10.7
	모르겠다	12	0.5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한다	83	3.1
	약간 불만족한다	310	11.8
	보통이다	1174	44.6
	약간 만족한다	790	30.0
	매우 만족한다	269	10.2
	모르겠다	9	0.3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장래성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한다	240	9.1
	약간 불만족한다	502	19.1
	보통이다	1013	38.4
	약간 만족한다	528	20.0
	매우 만족한다	172	6.5
	모르겠다	94	3.6
	해당 없다	86	3.3

<표 20> 취업 1인 가구의 일 관련 실태와 특성 (3)

(N=2635)

구분	빈도	백분율(%)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인사 관리(승진, 배치, 이동)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한다	162	6.1
	약간 불만족한다	402	15.3
	보통이다	1117	42.4
	약간 만족한다	395	15.0
	매우 만족한다	124	4.7
	모르겠다	107	4.1
	해당 없다	328	12.4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인간관계(상하, 동료 간)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한다	77	2.9
	약간 불만족한다	247	9.4
	보통이다	1141	43.3
	약간 만족한다	765	29.0
	매우 만족한다	308	11.7
	모르겠다	31	1.2
	해당 없다	66	2.5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한다	64	2.4
	약간 불만족한다	216	8.2
	보통이다	1301	49.4
	약간 만족한다	619	23.5
	매우 만족한다	239	9.1
	모르겠다	80	3.0
	해당 없다	116	4.4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사업체의 직장 내 폭력(언어폭력, 성희롱 등) 방지 노력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한다	45	1.7
	약간 불만족한다	148	5.6
	보통이다	1037	39.4
	약간 만족한다	641	24.3
	매우 만족한다	472	17.9
	모르겠다	99	3.8
	해당 없다	193	7.3

<표 21> 취업 1인 가구의 일 관련 실태와 특성 (4)

(N=2635)

구분		빈도	백분율(%)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직장 내 교육 훈련의 기회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한다	101	3.8
	약간 불만족한다	225	8.5
	보통이다	1171	44.4
	약간 만족한다	578	21.9
	매우 만족한다	245	9.3
	모르겠다	92	3.5
	해당 없다	223	8.5
전반적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한다	84	3.2
	약간 불만족한다	297	11.3
	보통이다	1336	50.7
	약간 만족한다	718	27.2
	매우 만족한다	200	7.6

2) 취업 1인 가구의 여가생활 관련 실태와 특성: 주중에는 혼자서, 주말에는 가족 및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 휴식형의 여가 활동을 하며, 경제적인 부담 등으로 만족 수준이 보통인 취업 1인 가구

취업 1인 가구의 여가생활 관련 실태와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형별 여가 활동 경험 유무와 관련해 독서 경험(50.7%)과 해외 여행 경험(85.7%)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55.6%), 레저시설 이용(67.8%)과 국내 관광 여행 경험(65.1%)은 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취업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독서와 같은 정적이거나 단순한 여가 활동보다는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이나 레저시설 이용 또는 국내 관광 여행과 같은 활동적인 여가에 대한 경험이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 1인 가구의 주중과 주말 여가 활동을 보면 주중에는 휴식형(76.0%)의 여가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취업 1인 가구는 주말 역시 주중과 같은 휴식형(63.7%)의 여가 활동으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 1인 가구가 주중에 동영상 콘텐츠 시청 등과 같은 휴식형으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주중에는 일과 노동, 직장생활을 해야 하므로 특별한 여가 활동보다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가 활동을 더욱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주말에는 주중보다 다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식형의 여가 활동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 1인 가구의 경우에는 휴식다운 여가, 편안한 여가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중과 주말의 여가 활동 파트너와 관련된 결과를 보면 주중은 혼자서 보내는 경우(61.7%)가 다수이고, 주말 여가 활동의 파트너는 가족 및 친구(연인 포함)(56.3%)에 대해 응답한 비율이 많았다. 취업 1인 가구의 경우, 주중에 비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주말에는 혼자서 여가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타인들과 함께 여가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등 사회적인 교류, 사회적인 관계가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희망하는 여가 활동에 대해서는 활동형에 대한 응답 비율이 85.5%로 휴식형(14.3%)보다 많았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앞서 살펴봤듯이 대다수의 취업 1인 가구가 휴식 형태의 여가 활동을 누리고 있으므로 향후 희망하는 여가 활동에 대해서는 활동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취업 1인 가구의 여가 활용 만족도는 보통이다(45.5%)에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여가 활용의 불만족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10.1%)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취업 1인 가구의 여가생활 관련 실태와 특성을 요약하면, 유형별 여가 활동(독서,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 레저시설 이용, 국내 관광 여행, 해외여행) 경험 유무와 관련하여 취업 1인 가구의 경우, 정적인 활동보다 활동적인 여가 활동에 대한 경험이 많으며, 주중과 주말 모두 휴식형의 여가 활동이 이뤄졌고, 주중에는 파트너 없이 혼자서, 주말에는 가족 및 친구(연인 포함)들과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또한, 실제의 주중과 주말 여가 활동이 휴식형인 반면 향후 희망하는 여가 활동은 활동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취업 1인 가구의 여가 활용 만족도는 보통 수준인 것을 알 수 있고, 여가 활용 불만족의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많은 응답 비율(10.1%)을 차지하고 있다.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할수록 행복함을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윤소영, 2019). 이에, 취업 1인 가구의 여가 활용의 불만족 이유를 고려하여 여가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방안 마련과 함께 취업 1인 가구가 만족스러운 여가생활을 통해 삶에 있어 높은 행복 수준과 높은 삶의 만족 수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22> 취업 1인 가구의 여가생활 관련 실태와 특성 (1)

(N=2635)

구분		빈도	백분율(%)		
유형별 여가 활동 경험 유무	독서	있다	1300	49.3	
		없다	1335	50.7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	있다	1464	55.6	
		없다	1171	44.4	
	레저시설 이용	있다	1787	67.8	
		없다	848	32.2	
	국내 관광 여행 경험	있다	1716	65.1	
		없다	919	34.9	
	해외 여행 경험	있다	377	14.3	
		없다	2258	85.7	
	주중 여가 활동	휴식형		2002	76.0
		활동형		631	23.9
기타		2	0.1		
주말 여가 활동	휴식형		1679	63.7	
	활동형		951	36.1	
	기타		5	0.2	
주중 여가 활동의 파트너	가족 및 친구(연인 포함)		742	28.2	
	동호회(종교 단체 등 포함) 구성원 및 직장동료		264	10.0	
	혼자서		1627	61.7	
	기타		2	0.1	
주말 여가 활동의 파트너	가족 및 친구(연인 포함)		1483	56.3	
	동호회(종교 단체 등 포함) 구성원 및 직장동료		212	8.0	
	혼자서		937	35.6	
	기타		3	0.1	

<표 23> 취업 1인 가구의 여가생활 관련 실태와 특성 (2)

(N=2635)

구분		빈도	백분율(%)
향후 희망하는 여가 활동	휴식형	377	14.3
	활동형	2254	85.5
	기타	4	0.2
여가 활용 만족도	매우 불만족한다	89	3.4
	약간 불만족한다	397	15.1
	보통이다	1199	45.5
	약간 만족이다	677	25.7
	매우 만족이다	273	10.4
여가 활용의 불만족 이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265	10.1
	시간이 부족하므로	111	4.2
	교통 혼잡 및 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하므로	3	0.1
	여가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17	0.6
	개인적인 사유로	89	3.4
	기타	1	0.0

3) 취업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관련 실태와 특성: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가 있고, 나 홀로의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도움 요청 상대가 있으나 단체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 수준이 보통인 취업 1인 가구

취업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의 실태와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와 관련된 문항의 응답 결과를 보면 약간 믿을 수 있다(51.8%)라고 응답한 비율이 많았다. 이어 별로 믿을 수 없다(38.4%), 매우 믿을 수 있다(4.9%), 전혀 믿을 수 없다(4.8%) 순이었다.

그리고 도움 요청 대상 유무에 있어서는 가사도움 요청 대상 유무 관련 있다(70.8%), 대화상대 도움 요청 대상 유무 역시 있다(79.0%), 교류하는 가족 또는

친척 대상 유무와 관련하여 있다(81.4%), 교류 가족 또는 친척 이외 대상 유무에도 있다(81.0%)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자금차입 도움 요청 대상 유무는 있다 53.2%, 없다 46.8%로 응답하여 다른 영역보다 유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취업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고충이 크다는 연구 결과(관악구, 2023)와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이여봉, 2017)가 있다. 이를 고려해 본다면 취업 1인 가구는 사회적 관계망 차원(자금차입 도움 대상 유무 관련)뿐만이 아니라 일(직업 선택 요인은 외재적 동기 관련 수입과 안정성)과 여가생활(여가 활용의 불만족 이유는 경제적 부담)의 모든 영역에서의 경제적 측면과 관련해 개선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된다.

단체 참여에 있어서는 친목·사교 단체 참여를 제외, 단체 활동 관련 전체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목·사교 단체 참여는 참여하였다 50.8%, 참여하지 않았다 49.2%로 참여 유무에 따른 응답 비율에 있어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종교 단체 참여는 참여하지 않았다(88.5%),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참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63.5%), 시민 사회 단체 참여는 참여하지 않았다(94.8%), 학술단체 참여 역시 참여하지 않았다(94.7%), 이익단체 참여도 참여하지 않았다(96.5%), 정치 단체에도 참여하지 않았다(99.1%), 지역사회 모임 참여도 참여하지 않았다(95.9%), 기타 참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99.7%)의 응답 비율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들과 함께 취업 1인 가구의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취업 1인 가구의 경우에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에 대해 보통에 응답한(40.2%)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약간 만족한다(36.8%)에 대한 응답한 비율이 많아 취업 1인 가구의 경우,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취업 1인 가구는 가사 도움, 대화상대 도움 요청 대상이나 교류할 수 있는 가족 또는 친척, 교류할 수 있는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대상은 있으나 단체 활동 참여와 관련해서는 참여율이 굉장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경우, 스스로 일을 하고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사회적인 참여와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다소 긍정적인 편으로 볼 수 있는 개인적인 인간관계 만족 정도를 유지하고, 고립되지 않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 가족센터 등의 현장에서 ‘소모임 지원’, ‘1인 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등의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관악구, 2023).

<표 24> 취업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관련 실태 및 특성 (1)

(N=2635)

구분		빈도	백분율(%)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전혀 믿을 수 없다	127	4.8
	별로 믿을 수 없다	1013	38.4
	약간 믿을 수 있다	1366	51.8
	매우 믿을 수 있다	129	4.9
가사도움 요청 대상 유무	있다	1866	70.8
	없다	769	29.2
자금차입 도움 요청 대상 유무	있다	1401	53.2
	없다	1234	46.8
대화상대 도움 요청 대상 유무	있다	2081	79.0
	없다	554	21.0
교류 가족친척 대상 유무	있다	2144	81.4
	없다	491	18.6
교류 가족친척 이외 대상 유무	있다	2135	81.0
	없다	500	19.0
단체 활동 관련 친목·사교 단체 참여 유무	참여하였다	1339	50.8
	참여하지 않았다	1296	49.2
단체 활동 관련 종교 단체 참여 유무	참여하였다	302	11.5
	참여하지 않았다	2333	88.5
단체 활동 관련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참여 유무	참여하였다	961	36.5
	참여하지 않았다	1674	63.5

<표 25> 취업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관련 실태 및 특성 (2)

(N=2635)

구분		빈도	백분율(%)
단체 활동 관련 시민 사회 단체 참여 유무	참여하였다	136	5.2
	참여하지 않았다	2499	94.8
단체 활동 관련 학술단체 참여 유무	참여하였다	140	5.3
	참여하지 않았다	2495	94.7
단체 활동 관련 이익단체 참여 유무	참여하였다	93	3.5
	참여하지 않았다	2542	96.5
단체 활동 관련 정치 단체 참여 유무	참여하였다	25	0.9
	참여하지 않았다	2610	99.1
단체 활동 관련 지역 사회 모임 참여 유무	참여하였다	109	4.1
	참여하지 않았다	2526	95.9
단체 활동 관련 기타 참여 유무	참여하였다	9	0.3
	참여하지 않았다	2626	99.7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매우 불만족한다	19	0.7
	약간 불만족한다	127	4.8
	보통이다	1060	40.2
	약간 만족한다	969	36.8
	매우 만족한다	460	17.5

2. 취업 1인 가구의 일 특성, 여가생활 특성, 사회적 관계망 특성이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여가 활용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 취업 1인 가구의 일 특성이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취업 1인 가구의 일 특성이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F=553.366(p<.001)$ 이며, 75.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일과 관련된 특성으로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변수인 직장 내 교육 훈련의 기회에 대한 만족도($\beta=.242, p<.001$), 임금(하는 일과 비교하여)에 대한 만족도($\beta=.159, p<.001$), 인간관계(상하, 동료 간)에 대한 만족도($\beta=.119, p<.001$),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beta=.128, p<.001$),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beta=.088, p<.001$),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에 대한 만족도($\beta=.088, p<.001$), 장래성($\beta=.071, p<.001$)에 대한 만족도,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beta=.083, p<.001$), 사업체의 직장 내 폭력(언어폭력, 성희롱 등) 방지 노력에 대한 만족도($\beta=.085, p<.001$), 인사 관리에 대한 만족도(승진, 배치, 이동)($\beta=.063, p<.001$) 그리고 직업 유형(서비스 판매)($\beta=-.023, p<.05$)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면,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직장 내 교육 훈련의 기회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변수인 임금(하는 일과 비교하여)에 대한 만족도,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인간관계(상하, 동료 간)에 대한 만족도, 근로시간과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에 대한 만족도, 사업체의 직장 내 폭력(언어폭력, 성희롱 등) 방지 노력에 대한 만족도,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 장래성에 대한 만족도, 인사 관리(승진, 배치, 이동)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직업 유형(서비스 판매) 순으로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에 상대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변수들인 직장 내 교육 훈련의 기회에 대한 만족도, 임금(하는 일과 비교하여)에 대한 만족도,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인간관계(상하, 동료 간)에 대한 만족도,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에 대한 만족도, 사업체의 직장 내 폭력(언어폭력, 성희롱 등) 방지 노력에 대한 만족도,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 장래성에 대한 만족도, 인사 관리(승진, 배치, 이동)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 수준이 높아지며, 그리고 직업 유형이 서비스 판매일수록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가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에 대해서는 근로 여건 변수 중 직장 내 교

육 훈련의 기회에 대한 만족도가 갖는 상대적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 1인 가구에게는 직장 내에서의 다양한 교육 및 훈련 기회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교육 훈련을 통해 자기 능력 향상과 함께 자기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어 교육 훈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 전반적인 일자리에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장 내 교육 훈련 기회 제공과 관련하여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의사소통 교육 및 훈련 등 다양한 주제 및 내용으로 교육, 훈련이 실시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회귀 분석의 기본 가정 검토와 관련하여 독립변수 간의 공차한계(*TOL*)는 0.1 이상, 분산팽창지수(*VIF*)는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Durbin-Watson은 1.965로 잔차들 사이에 자기상관이 없다.

<표 26> 취업 1인 가구의 일 특성이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B	SE	$\beta(p)$	TOL	VIF
(상수)	-.031	.045			
직장 내 교육 훈련의 기회에 대한 만족도	.225	.016	.242***	.438	2.281
임금(하는 일과 비교하여)에 대한 만족도	.137	.014	.159***	.434	2.303
인간관계(상하, 동료 간)에 대한 만족도	.110	.016	.119***	.434	2.307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120	.016	.128***	.411	2.434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	.080	.014	.088***	.499	2.006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에 대한 만족도	.087	.018	.088***	.376	2.659
장래성에 대한 만족도	.060	.015	.071***	.411	2.430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	.072	.015	.083***	.412	2.425
사업체의 직장 내 폭력(언어폭력, 성희롱 등) 방지 노력에 대한 만족도	.078	.015	.085***	.450	2.224
인사 관리(승진, 배치, 이동)에 대한 만족도	.058	.016	.063***	.403	2.478
직업 유형(서비스 판매)	-.055	.027	-.023*	.993	1.007
$F(p)$	553.366***				
$R^2(\text{adj. } R^2)$.754(.753)				
Durbin-Watson	1.965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직업 유형은 더미변수로 처리되었으며, 기능노무가 기준변수로 설정됨.

2) 취업 1인 가구의 여가생활 특성이 여가 활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취업 1인 가구의 여가생활 특성이 여가 활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F=10.961(p<.001)$ 로 나타났으며, 6.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여가 활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여가생활 특성에 있어 주말 여가 활동을 가족 및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할 때($\beta=.175, p<.001$), 여가 활용의 불만족 이유(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므로)($\beta=-.127, p<.01$), 해외 여행 경험 유무(있다)($\beta=.091, p<.05$)로 나타났다. 여가 활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면, 주말 여가 활동을 가족 및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일 경우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다음으로 여가 활용의 불만족 이유(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해외 여행 경험 유무 순이었다.

즉, 취업 1인 가구가 주말 여가 활동을 위해 가족 및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할 때, 해외 여행 경험이 있을 때는 여가 활용 만족도가 높아지는 반면, 여가 활용의 불만족 이유와 관련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면 여가 활용 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취업 1인 가구의 경우, 주말에 혼자가 아닌 가족 및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 여가 활동을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여가 활용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에 따라 이들이 주말 동안 다른 이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센터와 같은 현장에서 더불어 할 수 있는 유익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여가 활동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회귀 분석의 기본 가정 검토와 관련하여 독립변수 간의 공차한계(*TOL*)는 0.1 이상, 분산팽창지수(*VIF*)는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Durbin-Watson은 2.091로 잔차들 사이에 자기상관이 없다.

<표 27> 취업 1인 가구의 여가생활 특성이 여가 활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B	SE	$\beta(p)$	TOL	VIF
(상수)	1.804	.030			
주말 여가 활동을 가족 및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	.138	.035	.175***	.978	1.022
여가 활용의 불만족 이유(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098	.034	-.127**	.993	1.008
해외 여행 경험 유무(있다)	.144	.071	.091*	.978	1.023
$F(p)$	10.961***				
$R^2(\text{adj. } R^2)$.064(.058)				
Durbin-Watson	2.091				

주: 1) * $p < .05$, ** $p < .01$, *** $p < .001$

- 2) 주말 여가 활동의 파트너, 여가 활용의 불만족 이유, 해외 여행 경험 유무는 더미변수로 처리됨. 주말 여가 활동의 파트너의 경우에 기준변수는 기타, 여가 활용의 불만족 이유의 기준변수는 기타, 해외 여행 경험 유무는 없다가 기준변수로 설정됨.

3) 취업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이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취업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이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F=76.345(p<.001)$ 이고, 18.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망 관련 특성으로는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beta=.268, p<.001$), 자금차입 도움 요청 대상 유무($\beta=.120, p<.001$), 교류 가족친척 대상 유무($\beta=.095, p<.001$), 단체 활동 관련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참여($\beta=.078, p<.001$), 가사도움 요청 대상 유무($\beta=.075, p<.001$), 교류 가족친척 이외 대상 유무($\beta=.059, p<.01$), 단체 활동 관련 시민 사회단체 참여($\beta=.038, p<.05$), 단체 활동 관련 종교 단체 참여($\beta=.037, p<.05$)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이어, 자금차입 도움 요청 대상 유무, 교류 가족친척 대상 유무, 단체 활동 관련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참여, 가사도움 요청 대상 유무, 교류 가족친척 이외 대상 유무, 단체 활동 관련 시민 사회단체 참여, 단체 활동 관련 종교 단체 참여 순이었다.

즉,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자금차입 도움 요청 대상이 있을 때, 교류 가족친척 대상이 있을 때,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에 참여할 때, 가사도움 요청 대상이 있을 때, 교류 가족친척 이외의 대상이 있을 때, 시민 사회단체에 참여할 때, 종교 단체에 참여할 때,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 1인 가구가 사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잘 형성하여 타인과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 개인적 인간관계의 만족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는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 1인 가구가 전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친구, 동료 등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잘 형성될 수 있는 1인 가구의 친화적인 사회문화 구축이 필요하다.

회귀 분석의 기본 가정 검토와 관련하여 독립변수 간의 공차한계(TOL)는 0.1 이상, 분산팽창지수(VIF)는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Durbin-Watson은 1.854로 잔차들 사이에 자기상관이 없다.

<표 28> 취업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이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B	SE	$\beta(p)$	TOL	VIF
(상수)	2.230	.067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342	.023	.268***	.959	1.043
자금차입 도움 요청 대상 유무(있다)	.203	.035	.120***	.707	1.415
교류 가족친척 대상 유무(있다)	.205	.048	.095***	.634	1.578
단체 활동 관련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참여(참여하였다)	.137	.032	.078***	.926	1.080
가사도움 요청 대상 유무(있다)	.139	.039	.075***	.704	1.421
교류 가족친척 이외 대상 유무(있다)	.127	.048	.059**	.624	1.602
단체 활동 관련 시민 사회단체 참여(참여하였다)	.145	.069	.038*	.941	1.062
단체 활동 관련 종교 단체 참여(참여하였다)	.099	.048	.037*	.962	1.039
$F(p)$	76.345***				
$R^2(\text{adj. } R^2)$.189(.186)				
Durbin-Watson	1.854				

주: 1) * $p < .05$, ** $p < .01$, *** $p < .001$

- 2) 자금 차입 도움 요청 대상 유무, 교류 가족친척 대상 유무, 단체 활동 관련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참여, 가사도움 요청 대상 유무, 교류 가족 친척 이외 대상 유무, 단체 활동 관련 시민 사회단체 참여, 단체 활동 관련 종교 단체 참여는 더미변수로 처리됨.
대상 유무와 관련된 변수의 경우에는 기준변수는 없다, 참여 유무와 관련된 변수의 기준변수는 참여하지 않았다가 기준변수로 설정됨.

제3절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

1. 취업 1인 가구의 개인 체계와 사회환경 체계가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 개인 체계가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취업 1인 가구의 개인 체계(직업 선택 요인, 직업 유형, 종사상 지위, 고용 안정성, 근로 여건에 해당하는 변수들인 임금/복리후생/근무 환경/근로시간/하는 일/장래성에 대한 만족도,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독서 경험 유무,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 유무, 레저시설 이용 유무, 국내 관광 여행 경험 유무, 해외 여행 경험 유무, 주중과 주말 여가 활동 유형, 여가 활용의 불만족 이유, 향후 희망 여가 활동, 가사도움 요청 대상 유무, 차급차입 도움 요청 대상 유무, 대화상대 도움 요청 대상 유무, 교류 가족친척 대상 유무, 교류 가족친척 이외 대상 유무)가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F=25.419(p<.001)$ 으로 27.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체계 관련 요인으로는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변수로 장래성에 대한 만족도($\beta=.181, p<.001$), 임금(하는 일과 비교하여)에 대한 만족도($\beta=.190, p<.001$)가 나타났다. 그리고 여가 활용의 불만족 이유(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므로)($\beta=-.149, p<.001$), 가사 도움 요청 대상 유무($\beta=.124, p<.01$),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beta=.142, p<.01$), 레저시설 이용($\beta=.109, p<.05$)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체계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면,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임금(하는 일과 비교하여)에 대한 만족도가 주관적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장래성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여가생활 관련 변수로 여가 활용의 불만족 이유(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변수 중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가사 도움 요청 대상 유무, 레저시설 이용 순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 여건 관련 임금과 장래성,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가사 도움 요청 대상이 있을 때, 레저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을 때 주관적 만족도가 높고, 여가 활용의 불만족 이유와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때 주관적 만족도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변수로 임금(하는 일과 비교하여)에 대한 만족도가 개인 체계의 다른 변수들에 비해 주관적 만족도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취업 1인 가구에게는 충분한 임금은 주관적 만족 수준을 넘어서 1인 가구의 전반적인 생활 유지 및 안정성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성민(2018)의 연구 내용과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취업 1인 가구의 일에 대한 가치를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필요하며 임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복지 혜택으로 이들의 주관적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 유지와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회귀 분석의 기본 가정 검토와 관련하여 독립변수 간의 공차한계(*TOL*)는 0.1 이상, 분산팽창지수(*VIF*)는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Durbin-Watson은 2.029로 잔차들 사이에 자기상관이 없다.

<표 29> 취업 1인 가구의 개인 체계 변수가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B	SE	$\beta(p)$	<i>TOL</i>	<i>VIF</i>
(상수)	1.396	.166			
장래성에 대한 만족도	.166	.048	.181***	.658	1.520
임금(하는 일과 비교하여)에 대한 만족도	.180	.048	.190***	.685	1.459
여가 활용의 불만족 이유(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283	.083	-.149***	.948	1.055
가사 도움 요청 대상 유무(있다)	.242	.085	.124**	.945	1.058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148	.056	.142**	.603	1.657
레저시설 이용(있다)	.207	.084	.109*	.926	1.080
<i>F(p)</i>	25.419***				
$R^2(\text{adj. } R^2)$.273(.262)				
Durbin-Watson	2.029				

주: 1) * $p < .05$, ** $p < .01$, *** $p < .001$

- 2) 여가 활용의 불만족 이유(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가사 도움 요청 대상 유무, 레저시설 이용은 더미변수로 처리됨. 여가 활용의 불만족 이유와 관련해서는 기타가 기준변수이며, 가사 도움 요청 대상 유무와 레저시설 이용은 없다가 기준변수임.

2) 사회환경 체계의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취업 1인 가구의 사회환경 체계(근로 여건에 해당하는 변수들인 인사 관리(승진, 배치, 이동)/인간관계(상하, 동료 간)/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사업체의 직장 내 폭력(언어폭력, 성희롱 등) 방지 노력/직장 내 교육 훈련의 기회에 대한 만족도,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주중과 주말 여가 활동의 파트너, 단체 활동 관련 친목·사교 단체 참여(계 모임, 동창회 등)/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참여/종교 단체 참여(자비원, 선교회, 교리 연구회 등)/시민 사회 단체 참여(환경 단체, 봉사 단체 등)/학술 단체 참여/이익 단체 참여(노동조합, 의사회, 약사회 등)/정치 단체 참여/지역사회 모임 참여(반상회, 입주자 대표회 등)/기타 참여)가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F=64.391(p<.001)$ 으로 22.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체계 관련 요인으로서는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직장 내 교육 훈련의 기회에 대한 만족도($\beta=.133, P<.001$),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beta=.162(P<.001)$),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인사 관리(승진, 배치, 이동)에 대한 만족도($\beta=.124, P<.001$), 주말 여가 활동을 혼자서 할 때($\beta=-.088, P<.001$), 단체 활동 관련 학술 단체 참여($\beta=.079, P<.001$),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beta=.120, P<.001$), 단체 활동 관련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참여($\beta=.070, P<.001$), 주중 여가 활동을 혼자서 할 때($\beta=-.067, P<.01$), 단체 활동 관련 종교 단체 참여($\beta=.046, P<.05$)로 나타났다.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면,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가 영향력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직장 내 교육 훈련의 기회에 대한 만족도, 인사 관리(승진, 배치, 이동)에 대한 만족도, 인간관계(상하, 동료 간)에 대한 만족도, 주말 여가 활동을 혼자서 할 때, 단체 활동 관련 학술 단체 참여, 단체 활동 관련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참여, 주중 여가 활동을 혼자서 할 때, 단체 활동 관련 종교 단체 참여 순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변수인 직장 내 교육 훈련의 기회 그리고 인사 관리(승진, 배치, 이동), 인간관계(상하, 동료 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단체 활동 관련 학술 단체와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종교 단체에 참여할 때 주관적 만족도 역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말 여가 활동과 주중 여가 활동에 있어 파트너 없이 혼자서 할 때 주관적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을 위해서는 직장에서는 동료들과의 관계 등 인간관계와 인사 관리 등이 중요하고 또한, 단체 참여 등을 통해 타인과의 교류가 이뤄질 때 주관적 만족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리고 주중이나 주말에 혼자서 여가 활동을 하게 되면 주관적 만족 수준이 감소한다는 결과에 따라 1인 가구에 사회환경 체계가 갖는 의미에 대한 고려와 함께 사회적 관계망을 잘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관적 만족도에 있어 상대적 영향력이 제일 큰 요인이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로 기본적으로 사회에 대한 신뢰가 긍정적이어야 결과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잘 형성할 수 있음은 물론 긍정적인 1인 가구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회귀 분석의 기본 가정 검토와 관련하여 독립변수 간의 공차한계(*TOL*)는 0.1 이상, 분산팽창지수(*VIF*)는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Durbin-Watson은 1.906로 잔차들 사이에 자기상관이 없다.

<표 30> 취업 1인 가구의 사회환경 체계 변수가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B	SE	$\beta(p)$	<i>TOL</i>	<i>VIF</i>
(상수)	1.686	.100			
직장 내 교육 훈련의 기회에 대한 만족도	.131	.025	.133***	.574	1.743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227	.028	.162***	.929	1.076
인사 관리(승진, 배치, 이동)에 대한 만족도	.122	.025	.124***	.573	1.744
주말 여가 활동을 혼자서 할 때	-.173	.042	-.088***	.849	1.178
단체 활동 관련 학술단체 참여 유무(참여하였다)	.300	.076	.079***	.952	1.050
인간관계(상하, 동료 간)에 대한 만족도	.117	.025	.120***	.584	1.712
단체 활동 관련 취미 스포츠 여가 활동 단체 참여 유무(참여하였다)	.132	.039	.070***	.902	1.109
주중 여가 활동을 혼자서 할 때	-.125	.040	-.067**	.866	1.155
단체 활동 관련 종교 단체 참여 유무(참여하였다)	.134	.058	.046*	.973	1.028
<i>F(p)</i>	64.391***				
$R^2(\text{adj. } R^2)$.222(.218)				
Durbin-Watson	1.906				

주: 1) * $p < .05$, ** $p < .01$, *** $p < .001$

- 2) 주말 여가 활동의 파트너 관련과 단체 참여는 더미변수로 처리됨.
 주말 여가 활동의 파트너 관련의 경우, 기타가 기준변수이고, 단체 참여는 참여하지 않았다가 기준변수임.

2.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경우,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과 주관적 만족도

1) 인구사회학적 변수(성별, 연령대, 교육정도, 거주종류, 점유형태, 가구소득)를 통제한 경우, 취업 1인 가구의 일 특성이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성별, 연령대, 교육정도, 거주종류, 점유형태, 가구소득을 통제한 경우, 취업 1인 가구의 일 특성이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1]은 성별, 연령대, 교육정도, 거주종류, 점유형태, 가구소득을 통제변수²⁾로 투입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모형2]는 독립변수로 일 특성을 추가 투입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취업 1인 가구의 일 특성이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1] $F=10.983(p<.001)$, [모형2] $F=26.932(p<.001)$ 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1]의 $R^2=.091$, [모형2] $R^2=.220$ 으로 R 제곱 변화량이 .129 증가하였다. R 제곱 F변화량에 따른 유의확률 $p<0.001$ 으로 통제변수 투입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1]과 [모형2]의 공차한계(TOL)는 0.1 이상, 분산팽창지수(VIF)는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모형2] 일 특성 관련 회귀 계수 검정 결과,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임금(하는 일과 비교하여)에 대한 만족도($\beta=.221, P<.001$),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beta=.089, P<.001$), 직장 내 교육 훈련의 기회에 대한 만족도($\beta=.152, P<.001$)로 나타나 주관적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 특성 관련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면,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임금(하는 일과 비교하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다음으로 직장 내 교육 훈련의 기회에 대한 만족도,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임금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직장 내 교육 훈련의 기회에 대한 만족도,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근로 여건의 만족도가 높을 때, 주관적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취업 1인 가구에게 충분한 임금이 제공되어 임금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장시간 근무보다 적절한 근로시간으로 일-생활의 균형을 누리는 등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과 더불어 직장에서의 제공되는 교육 훈련 기회를 통해 개개

2) 통제변수의 경우, 인구학적 특성의 독립변수의 집단 수에 따라 독립표본 t -검정 또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변수만을 통제변수로 하였음.

인의 역량을 높이는 만족스러운 근로 여건이 마련된다면 취업 1인 가구의 경우에는 현재 삶에 대한 만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표 31> 인구사회학적 변수(성별, 연령대, 교육정도, 거주종류, 점유형태, 가구소득)를 통제한 경우, 취업 1인 가구의 일 특성이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형1		모형2	
	B	$\beta(p)$	B	$\beta(p)$
(상수)	4.027		2.427	
성별(남자)	-.138	-.071***	-.100	-.052*
연령대(20~29세)	.247	.110***	.251	.112***
연령대(30~39세)	-.046	-.021	.053	.025
연령대(40~49세)	-.204	-.086**	-.089	-.038
연령대(50~59세)	-.195	-.087**	-.100	-.044
교육정도(초등학교 졸업 이하)	-.283	-.057*	-.189	-.038
교육정도(중학교 졸업)	-.311	-.077**	-.215	-.054*
교육정도(고등학교 졸업)	-.265	-.133**	-.202	-.102**
교육정도(대학교 졸업)	-.125	-.068	-.103	-.056
거처종류(단독주택)	-.010	-.005	-.035	-.019
거처종류(아파트)	.075	.039	.108	.056
거처종류(연립·다세대 주택)	-.020	-.007	.012	.004
점유형태(자가)	.101	.048	-.011	-.005
점유형태(전세)	-.054	-.022	-.124	-.051
점유형태(보증금 있는 월세)	-.109	-.059	-.187	-.101*
점유형태(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319	-.057*	-.366	-.066**
가구소득(100만원 미만)	-.559	-.149***	-.308	-.082***
가구소득(100~200만원 미만)	-.486	-.203***	-.228	-.095**
가구소득(200~300만원 미만)	-.376	-.194***	-.173	-.089**
가구소득(300~400만원 미만)	-.140	-.062*	-.036	-.016
가구소득(400~500만원 이상)	-.142	-.043	-.080	-.024
임금(하는 일과 비교하여)에 대한 만족도			.202	.221***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			.086	.089***
직장 내 교육 훈련의 기회에 대한 만족도			.151	.152***
$F(p)$	10.983***		26.932***	
R^2	.091		.220	
adj. R^2	.083		.212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성별, 연령대, 교육정도, 거주종류, 점유형태, 가구소득은 더미변수로 처리됨. 성별은 여자, 연령대는 60-69세, 교육정도는 대학원 졸업 이상, 거주종류는 기타, 점유형태는 무상(자가는 아니지만 세 없이 무상으로 사는 경우), 가구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기준변수임.

2) 인구사회학적 변수(성별, 연령대, 교육정도, 거주종류, 점유형태, 가구소득)를 통제한 경우, 취업 1인 가구의 여가생활 특성이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연령대, 교육정도, 거주종류, 점유형태, 가구소득을 통제변수로 하여 이와 같은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취업 1인 가구의 여가생활 특성이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1]은 성별, 연령대, 교육정도, 거주종류, 점유형태, 가구소득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모형2]는 독립변수로 여가생활 특성을 추가 투입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취업 1인 가구의 여가생활 특성이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1] $F=14.388(p<.001)$, [모형2] $F=13.675(p<.001)$ 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1]의 $R^2=.104$, [모형2] $R^2=.120$ 으로 R 제곱 변화량이 .016 증가하였다. R 제곱 F변화량에 따른 유의확률 $p<0.001$ 로 통제변수 투입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1]과 [모형2]의 공차한계(*TOL*)는 0.1 이상, 분산팽창지수(*VIF*)는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모형2] 여가생활 특성 관련 회귀 계수 검정 결과, 독서 경험 유무($\beta=.100, P<.001$)가 주관적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서 경험이 있을 때,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여가 활동 중에 독서의 경험을 하면 할수록 혹은 독서 경험이 지식과 교양 수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를 충분히 발휘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나 성취감 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32〉 인구사회학적 변수(성별, 연령대, 교육정도, 거처종류, 점유형태, 가구소득)를 통제한 경우, 취업 1인 가구의 여가생활 특성이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형1		모형2	
	B	$\beta(p)$	B	$\beta(p)$
(상수)	4.057		3.695	
성별(남자)	-.157	-.081***	-.113	-.058**
연령대(20~29세)	.289	.125***	.253	.110***
연령대(30~39세)	.002	.001	-.017	-.008
연령대(40~49세)	-.170	-.070*	-.173	-.072**
연령대(50~59세)	-.143	-.063*	-.137	-.061*
교육정도(초등학교 졸업 이하)	-.330	-.075**	-.146	-.033
교육정도(중학교 졸업)	-.335	-.087**	-.169	-.044
교육정도(고등학교 졸업)	-.277	-.140***	-.157	-.079
교육정도(대학교 졸업)	-.113	-.061	-.053	-.028
거처종류(단독주택)	-.049	-.026	-.040	-.021
거처종류(아파트)	.027	.013	.031	.016
거처종류(연립·다세대 주택)	-.058	-.020	-.048	-.017
점유형태(자가)	.081	.038	.077	.036
점유형태(전세)	-.093	-.037	-.106	-.043
점유형태(보증금 있는 월세)	-.146	-.079	-.128	-.069
점유형태(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364	-.067**	-.329	-.061**
가구소득(100만원 미만)	-.612	-.171***	-.555	-.155***
가구소득(100~200만원미만)	-.494	-.213***	-.414	-.179***
가구소득(200~300만원미만)	-.364	-.186***	-.305	-.156***
가구소득(300~400만원미만)	-.135	-.057*	-.091	-.039
가구소득(400~500만원미만)	-.148	-.043	-.124	-.036
독서 경험 유무			.187	.100***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 유무			.013	.007
레저시설 이용 유무			.138	.070
국내 관광 여행 경험 유무			-.021	-.011
해외 여행 경험 유무			.086	.033
$F(p)$	14.388***		13.675***	
R^2	.104		.120	
adj. R^2	.097		.111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성별, 연령대, 교육정도, 거처종류, 점유형태, 가구소득, 독서 경험 유무,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 유무, 레저시설 이용 유무, 국내 관광 여행 경험 유무, 해외 여행 경험 유무는 더미변수로 처리됨. 성별은 여자, 연령대는 60~69세, 교육정도는 대학원 졸업 이상, 거처종류는 기타, 점유형태는 무상(자가는 아니지만 세 없이 무상으로 사는 경우), 가구소득은 500만원 이상, 독서/문화·예술 스포츠 관람/레저시설 이용/국내 관광 여행 경험/해외여행 경험 유무는 없다가 기준변수임.

3) 인구사회학적 변수(성별, 연령대, 교육정도, 거처종류, 점유형태, 가구소득)를 통제한 경우, 취업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이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성별, 연령대, 교육정도, 거처종류, 점유형태, 가구소득을 통제한 경우, 취업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이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1]은 성별, 연령대, 교육정도, 거처종류, 점유형태, 가구소득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모형2]는 독립변수로 사회적 관계망 특성 관련 변수를 추가 투입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 후에도 취업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이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1] $F=14.388(p<.001)$, [모형2] $F=18.014(p<.001)$ 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1]의 $R^2=.104$, [모형2] $R^2=.178$ 로 R 제곱 변화량이 .074 증가하였다. R 제곱 F변화량에 따른 유의확률 $p<0.001$ 로 통제변수 투입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1]과 [모형2]의 공차한계(TOL)는 0.1 이상, 분산팽창지수(VIF)는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모형2] 사회적 관계망 특성 관련 회귀 계수 검정 결과,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beta=.218, P<.001$), 단체 활동 관련 종교 단체 참여(자비원, 선교회, 교리 연구회 등) ($\beta=.078, P<.001$), 단체 활동 관련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참여($\beta=.066, P<.001$), 단체 활동 관련 학술 단체 참여($\beta=.076, P<.001$)가 주관적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망 특성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면,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가 주관적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이어, 단체 활동 관련 종교 단체 참여(자비원, 선교회, 교리 연구회 등), 단체 활동 관련 학술 단체 참여, 단체 활동 관련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참여로 나타났다. 즉,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종교 단체와 학술 단체 그리고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에 참여할수록 주관적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와 관련해 사회적 관계망 특성 중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와 단체 참여(종교 단체 참여, 학술 단체 참여,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참여)의 영향받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는 구성원 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의 질, 정책과 인프라 등 여러 요소들의 복합체이므로 이러한 요소들의 향상과 증진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며, 단체 참여의 경우, 양과 질, 단체 활동 관련 종류, 비용, 시간 자원 등의 관련된 세부적인 내

용과 의미들이 계속 탐색되어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

〈표 33〉 인구사회학적 변수(성별, 연령대, 교육정도, 거처종류, 점유형태, 가구소득)를 통제한 경우, 취업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이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형1		모형2	
	B	$\beta(p)$	B	$\beta(p)$
(상수)	4.057		2.897	
성별(남자)	-.157	-.081***	-.147	-.076***
연령대(20~29세)	.289	.125***	.319	.139***
연령대(30~39세)	.002	.001	.084	.038
연령대(40~49세)	-.170	-.070*	-.112	-.046
연령대(50~59세)	-.143	-.063*	-.093	-.041
교육정도(초등학교 졸업 이하)	-.330	-.075**	-.128	-.029
교육정도(중학교 졸업)	-.335	-.087**	-.090	-.023
교육정도(고등학교 졸업)	-.277	-.140***	-.064	-.032
교육정도(대학교 졸업 이상)	-.113	-.061	.043	.023
거처종류(단독주택)	-.049	-.026	-.052	-.028
거처종류(아파트)	.027	.013	.016	.008
거처종류(연립·다세대주택)	-.058	-.020	-.058	-.020
점유형태(자가)	.081	.038	.039	.018
점유형태(전세)	-.093	-.037	-.151	-.061
점유형태(보증금 있는 월세)	-.146	-.079	-.163	-.088*
점유형태(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364	-.067**	-.322	-.060**
가구소득(100만원 미만)	-.612	-.171***	-.532	-.149***
가구소득(100~200만원미만)	-.494	-.213***	-.396	-.171***
가구소득(200~300만원미만)	-.364	-.186***	-.291	-.149***
가구소득(300~400만원미만)	-.135	-.057*	-.097	-.041
가구소득(400~500만원미만)	-.148	-.043	-.092	-.027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305	.218***
단체 활동 관련 친목·사교 단체 참여(계 모임, 동창회 등)			.058	.031
단체 활동 관련 종교 단체 참여(자비원, 선교회, 교리 연구회 등)			.227	.073***
단체 활동 관련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참여			.128	.066***
단체 활동 관련 시민 사회단체 참여(환경 단체, 봉사 단체 등)			.132	.032
단체 활동 관련 학술 단체 참여			.316	.076***
단체 활동 관련 이익 단체 참여(노동조합, 의사회, 약사회 등)			-.146	-.029
단체 활동 관련 정치 단체 참여			.053	.006
단체 활동 관련 지역사회 모임 참여(반상회, 이부조 대표회 등)			-.023	-.005
단체 활동 관련 기타 활동 참여			.270	.017
$F(p)$	14.388***		18.014***	
R^2	.104		.178	
R^2_{adj}	.097		.168	

주: 1) * $p < .05$, ** $p < .01$, *** $p < .001$

- 2) 성별, 연령대, 교육정도, 거처종류, 점유형태, 가구소득, 단체 참여는 더미변수로 처리됨. 성별은 여자, 연령대는 60~69세, 교육정도는 대학원 졸업 이상, 거처종류는 기타, 점유형태는 무상(자가는 아니지만 세 없이 무상으로 사는 경우), 가구소득은 500만원 이상, 단체 참여는 참여하지 않았다가 기준변수임.

3.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 특성이 영역별 만족도(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여가 활용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 취업 1인 가구의 일 특성이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취업 1인 가구의 일 특성이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매개변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모형1]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모형2]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모형3]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3단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1] $F=304.796(p<.001)$, [모형2] $F=29.574(p<.001)$, [모형3] $F=28.700(p<.001)$ 으로 회귀모형이 모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설명력은 [모형1] $R^2=.755$, $adj.R^2=.753$, [모형2] $R^2=.230$, $adj.R^2=.222$, [모형3] $R^2=.234$, $adj.R^2=.225$ 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형3]은 공차한계(TOL)는 0.1 이상, 분산팽창지수(VIF)는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모형1]의 회귀계수 검정 결과,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변수인 임금에 대한 만족도 $\beta=.157$, $p<.001$,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beta=.124$, $p<.001$,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beta=.116$, $p<.001$ 로 임금에 대한 만족도와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매개변수인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

[모형2]에서 임금에 대한 만족도 $\beta=.137$, $p<.001$,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beta=.107$, $p<.001$,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beta=.125$, $p<.001$ 로 종속변수인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형3]은 임금에 대한 만족도 $\beta=.118$, $p<.001$,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beta=.092$, $p<.01$,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beta=.111$, $p<.001$ 영향을 미쳤고, 매개변수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는 종속변수인 주관적 만족도에 $\beta=.119$,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2]에서 임금에 대한 만족도가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137$ 인 반면, [모형3]에서 임금에 대한 만족도가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118$ 그리고 [모형2]에서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107$ 인 반면, [모형3]에서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092$ 이며, [모형2]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125$ 인 반면, [모형3]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가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119$ 로 감소함에 따라 부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남은 임금에 대한 만족도,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임금에 대한 만족도의 간접효과는 .0169(.134 \times .126),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의 간접효과는 .0146(.116 \times .126),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의 간접효과는 .0135(.107 \times .126)이다. 그리고 임금에 대한 만족도의 총효과는 .1249,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의 총효과는 .1066, 인간관계 만족도의 총효과는 .1225로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변수 중 임금에 대한 만족도의 총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인간관계 만족도,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취업 1인 가구의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를 위해서는 임금에 대한 만족도,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 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4> 취업 1인 가구의 일 특성이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단계	독립변수/매개변수		종속변수	B	SE	β	t(p)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F(p)	R ²	adj. R ²
1	독립 변수	임금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134	.015	.157	9.244***	.134	-	.134	304.796***	.755	.753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116	.017	.124	6.998***	.116	-	.116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107	.016	.116	6.799***	.107	-	.107			
2	독립 변수	임금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125	.027	.137	4.547***	.125	-	.125	29.574***	.230	.222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107	.031	.107	3.406***	.107	-	.107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123	.030	.125	4.140***	.123	-	.123			
3	독립 변수	임금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108	.028	.118	3.855***	.108	.0169	.1249	28.700***	.234	.225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092	.032	.092	2.908**	.092	.0146	.1066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109	.030	.111	3.651***	.109	.0135	.1225			
	매개 변수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126	.042	.119	2.979**	-	-	-			

*p<.05, **p<.01, ***p<.001

2) 취업 1인 가구의 여가생활 특성이 여가 활용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취업 1인 가구의 여가생활 특성이 여가 활용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매개변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모형1]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모형2]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모형3]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형1] $F=3.173(p<.01)$, [모형2] $F=3.834(p<.001)$, [모형3] $F=6.088(p<.001)$ 로 회귀모형이 모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설명력은 [모형1] $R^2=.051$, $_{adj.}R^2=.035$, [모형2] $R^2=.060$, $_{adj.}R^2=.045$, [모형3] $R^2=.103$, $_{adj.}R^2=.086$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형3]은 공차한계(TOL)는 0.1 이상, 분산팽창지수(VIF)는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모형1]의 회귀계수 검정 결과, 주중 여가 활동을 가족 및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할 때 $\beta=.107$, $p<.05$, 여가활용의 불만족 이유(개인 사유로) $\beta=.110$, $p<.05$ 로 매개변수인 여가 활용 만족도에 유의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

다만, [모형2]에서 주중 여가 활동을 가족 및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일 때, 여가 활용의 불만족 이유(개인 사유로)는 종속변수인 주관적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매개효과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정리하면, 주중 여가 활동을 가족 및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할 때와 여가활용의 불만족 이유(개인 사유로)는 여가 활용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두 변수는 주관적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두 변수의 영향이 주관적 만족도에 직접적이지 않아 매개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35> 취업 1인 가구의 여가생활 특성이 여가 활용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단계	독립변수/매개변수		종속변수	B	SE	β	t(p)	F(p)	R ²	adj. R ²
1	독립 변수	주중 여가 활동을 가족 및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	여가 활용 만족도	.105	.046	.107	2.312*	3.173**	.051	.035
		여가 활용의 불만족 이유(개인 사유로)		.110	.046	.110	2.421*			
2	독립 변수	독서여부(있다)	주관적 만족도	.282	.100	.141	2.825**	3.834***	.060	.045
3	독립 변수	독서여부(있다)	주관적 만족도	.269	.098	.135	2.755**	6.088***	.103	.086
	매개 변수	여가 활용 만족도		.529	.111	.212	4.767***			

*p<.05, **p<.01, ***p<.001

3) 취업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이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취업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이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매개변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모형1]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모형2]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모형3]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으로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형1] $F=41.485(p<.001)$, [모형2] $F=29.200(p<.001)$, [모형3] $F=57.895(p<.001)$ 로 회귀모형이 모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설명력은 [모형1] $R^2=.192$, $adj.R^2=.187$, [모형2] $R^2=.143$, $adj.R^2=.138$, [모형3] $R^2=.261$, $adj.R^2=.257$ 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형3]은 공차한계(*TOL*)는 0.1 이상, 분산팽창지수(*VIF*)는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모형1]의 회귀계수 검정 결과,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beta=.268$, $p<.001$, 가사 도움 요청 대상 유무 $\beta=.066$, $p<.01$, 단체 활동 관련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참여 $\beta=.068$, $p<.001$ 로 독립변수인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와 가사 도움 요청 대상 유무 그리고 단체 활동 관련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참여가 매개변수인 사회적 관계망 만족도에 유의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

[모형2]에서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beta=.200$, $p<.001$, 가사 도움 요청 대상 유무 $\beta=.093$, $p<.001$, 단체 활동 관련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참여 유무 $\beta=.093$, $p<.001$ 로 종속변수인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형3]은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beta=.098$, $p<.001$, 가사 도움 요청 대상 유무 $\beta=.068$, $p<.01$, 단체 활동 관련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참여 유무 $\beta=.068$, $p<.001$ 로 영향을 미쳤고, 매개변수인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는 종속변수인 주관적 만족도에 $\beta=.382$,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2]에서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가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200$ 인 반면, [모형3]에서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가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098$, [모형2]에서 가사 도움 요청 대상 유무가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093$ 인 반면, [모형3]에서 가사 도움 요청 대상 유무가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068$, 그리고 [모형2]에서 단체 활동 관련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참여 유무가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093$ 인 반면, [모형3]에서 단체 활동 관련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참여 유무가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068$ 로 감소함에 따라 부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가사도움 요청 대상 유무, 단체

활동 관련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참여가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미함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의 간접효과는 0.143 (0.341×0.420), 가사도움 요청 대상 유무의 간접효과는 0.051 (0.122×0.420), 단체 활동 관련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참여의 간접효과는 0.050 (0.119×0.420)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의 총효과는 0.423, 가사도움 요청 대상 유무의 총효과는 0.241, 단체 활동 관련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참여의 총효과는 0.230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의 총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가사도움 요청 대상 유무, 단체 활동 관련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참여에 비해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주관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가사도움 요청 대상 유무, 단체 참여(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의 개선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 36> 취업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이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단계	독립변수/매개변수		종속 변수	B	SE	β	t(p)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F(p)	R ²	adj. R ²
1	독립 변수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341	.023	.268	14.884***	.341	-	.341	41.485***	.192	.187
		가사도움 요청 대상 유무(있다)		.122	.041	.066	2.991**	.122	-	.122			
		단체 활동 관련 취미, 스포츠· 여가 활동 단체 참여(참여하였다)		.119	.034	.068	3.487***	.119	-	.119			
2	독립 변수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주관적 만족도	.280	.026	.200	10.798***	.280	-	.280	29.200***	.143	.138
		가사도움 요청 대상 유무(있다)		.190	.046	.093	4.106***	.190	-	.190			
		단체 활동 관련 취미, 스포츠· 여가 활동 단체 참여(참여하였다)		.180	.039	.093	4.677***	.180	-	.180			
3	독립 변수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주관적 만족도	.137	.025	.098	5.451***	.280	.143	.423	57.895***	.261	.257
		가사도움 요청 대상 유무(있다)		.138	.043	.068	3.220**	.190	.051	.241			
		단체 활동 관련 취미, 스포츠· 여가 활동 단체 참여(참여하였다)		.130	.036	.068	3.634***	.180	.050	.230			
	매개 변수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420	.021	.382	20.457***	-	-	-			

*p<.05, **p<.01, ***p<.001

제4절 세 집단(일 우선 집단,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가정생활 우선 집단)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

‘2023 사회조사’에 제시되어 있는 “귀하는 직장 일과 가정생활 중 어느 것을 우선시 하십니까?”라는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문항을 바탕으로 취업 1인 가구를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 정도에 따라 세 집단(일 우선 집단,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가정생활 우선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유형화한 세 집단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 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세 집단에 따라 각 영역별 만족도(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여가 활용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세 집단(일 우선 집단,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가정생활 우선 집단)의 특성

1) 일 우선 집단의 특성: 남성, 50~59세, 대학교 졸업 이상, 단독주택, 보증금 있는 월세, 200~300만원 미만, 기능노무, 주관적 만족도 보통,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만족, 여가 활용 만족도 보통,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보통의 일 우선 집단의 취업 1인 가구

일 우선 집단의 성별을 보면, 남성(67.2%)이 여성(32.8%)보다 많고, 연령대는 50~59세(23.0%), 30~39세(20.7%), 60~69세(20.0%), 40~49세(19.4%), 20~29세(16.9%) 순으로 나타나 일 우선 집단에서는 연령대가 높은 경우의 비율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거주지역 관련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11.8%)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교육정도는 대학교 졸업(46.2%), 고등학교 졸업(35.3%), 중학교 졸업(6.8%), 대학원 졸업(5.9%), 초등학교 졸업 이하(5.5%)임을 알 수 있다.

거처 종류에는 단독주택(47.0%)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파트(30.5%), 연립·다세대 주택(12.9%), 기타(9.6%) 순이었다. 점유형태는 보증금 있는 월세(51.5%)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많았고, 자가(22.3%), 전세(16.8%), 무상(자가는 아니지만 세없이 무상으로 사는 경우)(5.3%),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4.1%)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200~300만원 미만(36.8%)인 경우가 많았으며, 다음으로 100~200만원 미만(21.9%), 300~400만원 미만(19.1%) 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 1인 가구의 직업 유형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중 45.6% 기능노무에 응답하여 그 비율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문관리(18.2%), 사무 및 서비스 판매(각 17.5%), 농어업(1.1%) 순이었다.

일 우선 집단의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에는 보통이다(45.3%)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사회적 관계망과 관련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는 만

족(52.7%), 여가 활용 만족도는 보통(44.7%),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보통(52.7%)에 대한 응답 비율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집단의 경우에는 일을 우선시하는데,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는 보통으로 나타났고, 직장생활에 집중이 사회적 관계망의 수준과 여가 활동 만족 정도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주관적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37> 일 우선 집단의 일반적 특성 (1)

(N=1276)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여성	418	32.8
	남성	858	67.2
연령	20~29세	216	16.9
	30~39세	264	20.7
	40~49세	247	19.4
	50~59세	294	23.0
	60~69세	255	2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137	10.7
	부산광역시	74	5.8
	대구광역시	67	5.3
	인천광역시	84	6.6
	광주광역시	51	4.0
	대전광역시	49	3.8
	울산광역시	54	4.2
	세종특별자치시	51	4.0
	경기도	151	11.8
	강원도	57	4.5
	충청북도	76	6.0
	충청남도	107	8.4
	전라북도	42	3.3
	전라남도	76	6.0
	경상북도	63	4.9
	경상남도	91	7.1
제주특별자치도	46	3.6	

<표 38> 일 우선 집단의 일반적 특성 (2)

(N=1276)

	구분	빈도	백분율(%)
교육정도	초등학교 졸업 이하	70	5.5
	중학교 졸업	87	6.8
	고등학교 졸업	451	35.3
	대학교 졸업	590	46.2
	대학원 졸업	75	5.9
거치종류	단독주택	600	47.0
	아파트	389	30.5
	연립·다세대 주택	165	12.9
	기타	122	9.6
점유형태	자가	284	22.3
	전세	215	16.8
	보증금 있는 월세	657	51.5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52	4.1
	무상(자가는 아니지만 세 없이 무상으로 사는 경우)	68	5.3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69	5.4
	100~200만원 미만	279	21.9
	200~300만원 미만	470	36.8
	300~400만원 미만	244	19.1
	400~500만원 미만	101	7.9
	500만원 이상	113	8.9
직업 유형	전문관리	232	18.2
	사무	223	17.5
	서비스 판매	223	17.5
	농어업	14	1.1
	기능노무	582	45.6

<표 39> 일 우선 집단의 일반적 특성 (3)

(N=1276)

	구분	빈도	백분율(%)
주관적 만족도	불만족	191	15.0
	보통	578	45.3
	만족	507	39.7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불만족	70	5.5
	보통	534	41.8
	만족	672	52.7
여가 활용 만족도	불만족	275	21.6
	보통	571	44.7
	만족	430	33.7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불만족	177	13.9
	보통	673	52.7
	만족	426	33.4

2)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의 특성: 남성, 50~59세 다음으로 30~39세와 20~29세, 대학교 졸업, 단독주택, 보증금 있는 월세, 200~300만원 미만, 기능노무, 주관적 만족도 보통,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만족, 여가 활용 만족도 보통,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보통의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의 취업 1인 가구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의 취업 1인 가구의 특성을 보면, 먼저 성별에 있어 남성은 60.9%, 여성 39.1%로 남성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연령은 50~59세(22.9%)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39세(22.6%), 20~29세(21.8%), 40~49세(17.2%), 60~69세(15.5%) 순으로 나타났다.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있게 생각하는 집단에서 남성이 많고, 젊은 연령층의 비율이 높은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생활 균형의 문화가 중요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거주지역은 경기도(12.3%)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교육정도와 관련해서는 대학교 졸업(52.2%)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31.9%), 대학원 졸업(6.3%), 중학교 졸업(5.3%), 초등학교 졸업 이하(4.1%) 순이었다.

거처종류에 있어 단독주택(45.9%)에 대한 응답 비율이 많았고, 아파트(35.6%), 연립·다세대 주택(11.1%), 기타(7.4%) 순으로 응답함을 알 수 있다. 점유형태에는 보증금 있는 월세(48.2%), 자가(29.1%), 전세(15.7%), 무상(자가는 아니지만 세 없이 무상으로 사는 경우)(4.6%),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2.4%) 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득수준과 관련해서는 200~300만원 미만(32.3%)에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이어 100~200만원 미만(19.2%), 300~400만원 미만(19.0%)으로 나타났다.

직업유형에는 기능노무(41.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문관리(22.3%), 사무(19.0%), 서비스 판매(16.9%), 농어업(0.4%) 순임을 알 수 있다.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의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와 관련해 보통(44.5%)에 응답한 경우가 대다수이고, 사회적 관계망 관련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54.9%)는 만족에 응답한 비율이 많으며, 여가 활용 만족도는 보통(49.0%),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 수준도 보통(48.6%)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0>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의 일반적 특성 (1)

(N=1027)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여성	402	39.1
	남성	625	60.9
연령	20~29세	224	21.8
	30~39세	232	22.6
	40~49세	177	17.2
	50~59세	235	22.9
	60~69세	159	15.5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103	10.0
	부산광역시	42	4.1
	대구광역시	29	2.8
	인천광역시	36	3.5
	광주광역시	42	4.1
	대전광역시	55	5.4
	울산광역시	32	3.1
	세종특별자치시	80	7.8
	경기도	126	12.3
	강원도	42	4.1
	충청북도	58	5.6
	충청남도	68	6.6
	전라북도	61	5.9
	전라남도	75	7.3
	경상북도	69	6.7
	경상남도	65	6.3
제주특별자치도	44	4.3	

<표 41>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의 일반적 특성 (2)

(N=1027)

	구분	빈도	백분율(%)
교육정도	초등학교 졸업 이하	42	4.1
	중학교 졸업	54	5.3
	고등학교 졸업	328	31.9
	대학교 졸업	536	52.2
	대학원 졸업	65	6.3
거처종류	단독주택	471	45.9
	아파트	366	35.6
	연립·다세대 주택	114	11.1
	기타	76	7.4
점유형태	자가	299	29.1
	전세	161	15.7
	보증금 있는 월세	495	48.2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25	2.4
	무상(자가는 아니지만 세 없이 무상으로 사는 경우)	47	4.6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90	8.8
	100~200만원 미만	197	19.2
	200~300만원 미만	332	32.3
	300~400만원 미만	195	19.0
	400~500만원 미만	80	7.8
	500만원 이상	133	13.0
직업 유형	전문관리	229	22.3
	사무	195	19.0
	서비스 판매	174	16.9
	농어업	4	.4
	기능노무	422	41.1

<표 42>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의 일반적 특성 (3)

(N=1027)

구분		빈도	백분율(%)
주관적 만족도	불만족	128	12.5
	보통	457	44.5
	만족	442	43.0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불만족	53	5.2
	보통	410	39.9
	만족	564	54.9
여가 활용 만족도	불만족	152	14.8
	보통	503	49.0
	만족	372	36.2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불만족	145	14.1
	보통	499	48.6
	만족	383	37.3

3) 가정생활 우선 집단의 특성: 남성, 60세 이상과 30~39세, 대학교 졸업 이상, 미혼, 단독주택, 보증금 있는 월세, 200~300만원 미만, 기능노무, 주관적 만족감 만족,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만족, 여가 활동 만족도 만족,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보통인 가정생활 우선 집단의 취업 1인 가구

가정생활 우선 집단의 취업 1인 가구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 65.1%, 여성 34.9%로 나타났다.

연령은 30~39세(31.0%)로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이어 20~29세(29.2%) 순으로 가정생활 우선 집단은 일 우선 집단이나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의 연령대보다 젊은층의 연령대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거주지역은 경기도(16.0%)가 가장 많았고, 교육정도는 대학교 졸업(58.7%), 고등학교 졸업(24.1%), 대학원 졸업(8.1%), 중학교 졸업(6.0%), 초등학교 졸업 이하(2.7%)순으로 나타났다.

거처종류는 단독주택(40.7%)에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고, 아파트(38.9%), 연립·다세 주택(9.9%), 기타(10.5%) 순이었다.

점유형태와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보인 보증금 있는 월세(45.5%)에 이어 자가(25.0%), 전세(21.4%), 무상(자가는 아니지만 세없이 무상으로 사는 경우)(7.2%),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0.9%) 순임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은 200~300만원 미만(32.2%)에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고, 이어 300~400만원 미만(19.0%), 100만원~200만원 미만(17.2%)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 유형은 기능노무(36.7%), 전문관리(24.4%), 사무(22.9%), 서비스 판매(14.2%), 농어업(0.9%) 순이다.

가정생활 우선 집단의 취업 1인 가구 경우, 주관적 만족도에 대해 만족(48.2%)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역시 만족(58.1%)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여가 활용 만족도도 만족(44.6%)에 대한 응답 비율이 많았다. 다만,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는 보통(49.4%)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다른 두 집단(일 우선, 일과 가정생활 균형)과 달리 전반적이 일자리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주관적 만족도와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여가 활용 만족도의 모든 항목에 대해 만족한다고 한 특징을 보인다.

<표 43> 가정생활 우선 집단의 일반적 특성 (1)

(N=332)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여성	116	34.9
	남성	216	65.1
연령	20~29세	97	29.2
	30~39세	103	31.0
	40~49세	47	14.2
	50~59세	41	12.3
	60~69세	44	13.3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31	9.3
	부산광역시	20	6.0
	대구광역시	4	1.2
	인천광역시	14	4.2
	광주광역시	13	3.9
	대전광역시	15	4.5
	울산광역시	9	2.7
	세종특별자치시	15	4.5
	경기도	53	16.0
	강원도	33	9.9
	충청북도	23	6.9
	충청남도	22	6.6
	전라북도	17	5.1
	전라남도	16	4.8
	경상북도	22	6.6
	경상남도	16	4.8
제주특별자치도	9	2.7	

<표 44> 가정생활 우선 집단의 일반적 특성 (2)

(N=332)

	구분	빈도	백분율(%)
교육정도	초등학교 졸업 이하	9	2.7
	중학교 졸업	20	6.0
	고등학교 졸업	80	24.1
	대학교 졸업	195	58.7
	대학원 졸업	27	8.1
거처종류	단독주택	135	40.7
	아파트	129	38.9
	연립·다세대 주택	33	9.9
	기타	35	10.5
점유형태	자가	83	25.0
	전세	71	21.4
	보증금 있는 월세	151	45.5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3	.9
	무상(자가는 아니지만 세 없이 무상으로 사는 경우)	24	7.2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34	10.2
	100~200만원 미만	57	17.2
	200~300만원 미만	107	32.2
	300~400만원 미만	63	19.0
	400~500만원 미만	29	8.7
	500만원 이상	42	12.7
직업 유형	전문관리	81	24.4
	사무	76	22.9
	서비스 판매	47	14.2
	농어업	3	.9
	기능노무	122	36.7

<표 45> 가정생활 우선 집단의 일반적 특성 (3)

(N=332)

구분		빈도	백분율(%)
주관적 만족도	불만족	50	15.1
	보통	122	36.7
	만족	160	48.2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불만족	23	6.9
	보통	116	34.9
	만족	193	58.1
여가 활용 만족도	불만족	23	17.8
	보통	116	37.7
	만족	193	44.6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불만족	59	17.8
	보통	164	49.4
	만족	109	32.8

취업 1인 가구의 일과 가정생활 우선 정도에 따라 세 집단, 즉 일 우선 집단과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가정생활 우선 집단으로 구분하여 실태와 특성을 살펴본 결과, 원자료에 대한 응답자 자체가 남성이 많았으므로 세 집단 모두 남성이 많았고, 연령대는 50-59세 이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의 응답자 대부분은 대학교 졸업 이상, 경기도 그리고 단독주택 거주, 보증금 있는 월세로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 직업 유형에 있어서는 기능노무가 대다수였다. 또한, 일 우선, 일과 가정생활 균형, 가정생활 우선의 세 집단 모두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세 집단 중 유일하게 가정생활 우선 집단만이 여가 활용 만족도와 주관적 만족도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생활 우선 집단의 경우, 가정생활을 우선시하므로 시간이 나면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이와 같은 활동으로 인해 여가 활용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예측된다.

2. 일과 가정생활 우선 정도에 따른 세 집단(일 우선 집단,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가정생활 우선 집단)의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여가 활용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차이

일과 가정생활 우선 정도에 따른 집단 간에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여가 활용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과 가정생활 우선 정도에 따른 세 집단의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는 $F=2.525$, $p=.080$ 으로 $p<.05$ 기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우선 정도에 따른 세 집단의 여가 활용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³⁾는 살펴보면, 세 집단의 여가 활용 만족도는 $F=11.084$, $p<.001$,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는 $F=3.834$, $p<.05$, 주관적 만족도는 $F=3.665$,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Games-Howell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 집단에 따라 여가 활용 만족도를 보면, 일 우선 집단과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의 평균차이는 $-.13924$ 로 나타나 일 우선 집단의 여가 활용 만족도가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의 여가 활용 만족도보다 평균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일 우선 집단과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의 신뢰구간은 하한값 $-.2304$, 상한값 $-.0481$ 이다. 일 우선 집단과 가정생활 우선 집단의 평균차이는 $-.24597$ 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는 일 우선 집단의 여가 활용 만족도가 가정생활 우선 집단의 여가 활용 만족도 보다 평균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신뢰구간은 $-.3908$ 에서 -0.1011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여가 활용 만족도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일 우선 집단의 여가 활용 만족도가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과 가정생활 우선 집단의 여가 활용 만족도 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가 활용 만족도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 수준을 보이는 집단은 가정생활 우선 집단이며, 이어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일 우선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일을 우선시할 때 일하는 시간과 집중도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나 활동이 줄어들게 되며 이는 여가생활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일과 가정생활 우선 정도에 따른 세 집단의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를 보면 일 우선 집단과 가정생활 우선 집단 간에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평균차는 $-.14462$ 로 일 우선 집단의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가 가정생활 우선 집단의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보다 낮다는 것을

3) 일원배치 분산분석 관련 분산의 동질성 검정을 통해 등분산을 확인함.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Welch 검정을 실시하여 Welch's F 값에 대한 유의확률을 확인한 후, 등분산 가정이 필요 없는 Games-Howell로 사후분석을 진행함.

보여준다. 신뢰구간은 하한값 -0.2744 , 상한값 -0.0148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일 우선 집단의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가 가정생활 우선 집단의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에 대해 가정생활 우선 집단,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일 우선 집단 순으로 만족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의 여가 활용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일을 우선 시하는 집단의 경우 다양한 인간관계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활동 등이 충분치 않고,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세 집단의 주관적 만족도를 보면 일 우선 집단과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은 평균 차이가 -0.09607 로 일 우선 집단의 주관적 만족도가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의 주관적 만족도보다 낮으며,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신뢰구간은 -0.1864 에서 -0.057 로 나타난다. 따라서, 일 우선 집단의 주관적 만족도가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의 주관적 만족도보다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집단 중 주관적 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이고, 다음으로 일 우선 집단, 가정생활 우선 집단 순이다.

정리하면, 세 집단 중 주관적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가 활용 만족도와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일 우선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을 하는 시간과 집중력이 여가나 인간관계와 같은 생활영역, 나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전반적인 삶의 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적으로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업 1인 가구가 일을 우선시하여 일에만 몰입과 집중을 하게 되면, 장시간의 노동 등으로 여가 활동을 누리거나 타인과의 소통, 상호작용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일을 중시하는 집단의 여가생활, 개인적 인간관계 등에서의 취약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 46〉 일과 가정생활 우선 정도에 따른 세 집단(일 우선 집단,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가정생활 우선 집단)의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여가 활용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차이

(N=2635)

구분		N	M	SD	F(p)	Welch' s F(p)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일 우선	1276	3.2304	.85875	2.525	
	일과 가정생활 균형	1027	3.2911	.86177		
	가정생활 우선	332	3.1807	.92491		
	전체	2635	3.2478	.86902		
여가 활용 만족도	일 우선	1276	3.1607	.95797		11.084***
	일과 가정생활 균형	1027	3.2999	.90139		
	가정생활 우선	332	3.4066	1.01068		
	전체	2635	3.2459	.94709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일 우선	1276	3.6144	.82143		3.834*
	일과 가정생활 균형	1027	3.6699	.84989		
	가정생활 우선	332	3.7590	.91434		
	전체	2635	3.6543	.84574		
주관적 만족도	일 우선	1276	3.3119	.91688		3.665*
	일과 가정생활 균형	1027	3.4080	.92087		
	가정생활 우선	332	3.4157	.99339		
	전체	2635	3.3624	.92933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 Welch' s test

〈표 47〉 일과 가정생활 우선 정도에 따른 세 집단(일 우선 집단,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가정생활 우선 집단)의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여가 활용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차이: Games-Howell 사후분석 결과

(N=2635)

Games-Howell 사후분석			평균차이(p)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여가 활용 만족도	일 우선	일과 가정생활 균형	-.13924**	-.2304	-.0481
		가정생활 우선	-.24597***	-.3908	-.1011
	일과 가정생활 균형	일 우선	.13924**	.0481	.2304
		가정생활 우선	-.10672	-.2529	.0395
	가정생활 우선	일 우선	.24597***	.1011	.3908
		일과 가정생활 균형	.10672	-.0395	.2529
개인적 인간관 계 만족도	일 우선	일과 가정생활 균형	-.05549	-.1378	.0268
		가정생활 우선	-.14462*	-.2744	-.0148
	일과 가정생활 균형	일 우선	.05549	-.0268	.1378
		가정생활 우선	-.08912	-.2225	.0443
	가정생활 우선	일 우선	.14462*	.0148	.2744
		일과 가정생활 균형	.08912	-.0443	.2225
주관적 만족도	일 우선	일과 가정생활 균형	-.09607*	-.1864	-.0057
		가정생활 우선	-.10375	-.2454	.0379
	일과 가정생활 균형	일 우선	.09607*	.0057	.1864
		가정생활 우선	-.00768	-.1525	.1372
	가정생활 우선	일 우선	.10375	-.0379	.2454
		일과 가정생활 균형	.00768	-.1372	.1525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 Welch's test ‡ Games-Howell post hoc test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과 논의

본 연구는 일-생활 균형과 생태체계적 관점에 적용하여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고,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2023 사회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혼자서 생활해야 하는 취업 1인 가구라는 특성을 중심으로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의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인 요소가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 관련 실태와 특성에서 경제적 요소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먼저 일과 관련된 영역에서 취업 1인 가구는 직업 선택 시, 외재적 동기 즉, 수입과 안정성과 같은 것을 중요시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취업 1인 가구의 가장 큰 고충인 경제적 어려움(관악구, 2023)과도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취업 1인 가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보고 부양해야 하므로 경제적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만큼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낌과 동시에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직업 선택에서 수입이나 안정성과 같은 외재적 동기, 요인을 중시하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취업 1인 가구 가운데 고용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불안함을 느낀다는 응답이 다수였으며, 취업 1인 가구 중 대부분이 상용 근로자이지만 29.9%가 임시 및 일용직임으로 이들의 생활 전반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여 고용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인 가구의 고용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취업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맞춤형의 설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여가생활 영역에서 나타난 경제적인 내용을 보면, 여가 활용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1순위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취업 1인 가구의 여가 활동에 있어 최대한 경제적 부담없이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비영리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와 같은 현장에서의 1인 가구를 위한 여가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 특성에서는 도움요청 대상 유무 관련 항목에 대해 가사도움, 대화상대 등 도움을 받을 대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대부분 높게 나타났지만, 자금차입 도움 요청 대상 유무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 비율이 53.2%, 없

다는 응답 비율이 46.8%로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하여 사회적 관계망 특성에서는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응답률이 거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1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가족센터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등 뿐 아니라 정책적 차원에서 1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와 서비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취업 1인 가구를 위한 정부보조금 지원, 주거지원 등이 있으며, 자립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등과 같은 제도적 서비스가 있는데(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4; 서울주거포털, 2024; 정부24, 2024),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필요성과 함께 실효성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취업 1인 가구의 각 영역의 특성에 따라 영역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즉, 취업 1인 가구의 일 특성이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여가생활 특성이 여가 활용 만족도, 사회적 관계망 특성이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일 특성, 여가생활 특성, 사회적 관계망 특성의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 특성의 변수 중에서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직장 내 교육 훈련의 기회 만족도가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 결과에서는 일과 관련된 만족 수준, 삶의 수준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강승엽, 2018),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유유선, 2021), 경제적인 소득(한성민, 2018) 등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장 내 교육 훈련의 기회 만족도가 취업 1인 가구의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과를 반영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1인 가구의 특성에 부응하는 맞춤형의 일자리 정보 제공 등 교육과 재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새로운 관점, 새로운 접근에서의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여가생활 특성 중에서는 주말 여가 활동을 가족 및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할 때가 여가 활용 만족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여가 활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말의 경우, 혼자서 여가 활동을 하기보다는 가까운 사이인 가족 및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 소통이나 교류를 통한 여가 활동이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등 여가 활용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업 생활을 하는 집단의 경우, 주중에는 근무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충분히 하기가 힘들 수 있으므로 주말 여가활동의 양과 질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일상생활을 혼자하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가족, 친구와 함께 하는 주말 여가활동은 여가 만족도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 1인 가구가 가족들을 비롯한 가까운 사람들과 주말을 함께 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화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긴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망 특성 중에서는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가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이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와 연결되는 사실은 결국 개인의 관계 만족도가 개인적인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견고하게 구축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거시적이고 환경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가 채택한 생태체계관점에서의 조망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유기적이라는 점에서 개인으로서의 삶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이 상호작용하며 일상생활 그리고 삶의 여러 영역에서의 만족도로부터 나아가 포괄적인 만족도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이 단지 개인의 삶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어떠한가에 영향받는다라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매우 복잡적이고 총체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삶의 질, 행복, 웰빙을 측정하는 지표에서 사회의 지원, 사회의 연결, 사회적 신뢰와 같은 요소가 부각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단체 참여, 사회적 고립, 기관 신뢰, 대인 신뢰와 같은 영역에서 점수가 높지 않다(심수진 외, 2024). 또한, 개인 간 신뢰, 국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나타내는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지수를 보면 세계에서 107위로 나타나 개인과 사회의 신뢰가 매우 낮은 상황임을 보여준다(매일경제, 2023). 한국 사회에서 신뢰의 반경범위는 가족이나 친척 등 좁은 범위의 관계에 국한되고, 동료나 이웃을 벗어나면 신뢰하지 못하므로 우리나라의 사회 신뢰 지수는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KDI 경제정보센터, 2024).

이처럼, 우리의 사회적 신뢰수준에 대한 여러 조사 결과와 함께 많은 우려, 그리고 동시에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회적 과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다. 특히 취업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도 사회적 신뢰수준 향상은 긴급한 해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의 특성에 비추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그래서 1인 가구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과 위협을 개인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인프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감은 1인 가구의 일상생활 그리고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와 더불어 신뢰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하므로 1인 가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긴급 상황에 대비한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취업 1인 가구의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주목한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조망할 때, 삶의

여러 영역들이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일상에서 견고한 사회적 관계망의 구축은 단지 관계와 관련된 만족도 뿐 아니라 일 및 여가 활용의 만족도, 나아가 삶의 만족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직장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교육 훈련이 단순히 업무와 관련된, 즉 업무 능력이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주제 및 내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주제 및 내용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의 동료들 비롯하여 타인과의 관계 맺기 또는 소통,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한 교육 훈련이나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 등과 같은 주제도 포함이 된다면 취업 1인 가구 개개인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을 넘어 전반적인 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주제와 시스템을 고려하면서 1인 가구의 삶의 만족을 증진시키는 대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일-생활 균형 관점과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개인 체계와 사회환경 체계의 변수를 선정하여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개인 체계의 변수 중에서는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변수인 임금(하는 일과 비교하여)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주관적 만족도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앞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취업 1인 가구의 경우, 근로 여건과 관련해 장래성, 임금, 복리후생 순으로 불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통계청, 2023). 본 연구 결과에서는 개인체계 변수들 중 임금이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나 임금에 대해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 1인 가구의 직장에서는 임금을 비롯하여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마련되어 취업 1인 가구의 근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주관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논의점에서 강조한 바, 임금은 직업과 직무의 안정성, 재교육 기회 등 다른 요소들과 연계된다는 점, 이러한 요소들은 1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환경 체계가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해 살펴보면, 일과 관련된 변수인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직장 내 교육 훈련의 기회 만족도, 그리고 인간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관련한 변수인 주중 및 주말 여가 활동을 파트너 없이 혼자서 할 때, 사회적 관계망 관련 변수인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단체 활동 관련 학술단체 참여와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참여, 종교 단체 참여가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과의 연계가 강할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클수록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이옥분(2018)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주관적 만족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환경 체계 변수로는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로 나타나 긍정적인 신뢰가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효과적일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분석의 결과와 집단별 특성에 따른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서 그 결과에 대한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 1인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연령대, 교육정도, 거주종류, 점유형태, 가구소득을 통제했을 경우, 영역별 특성이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근로 여건의 만족도와 관련해 임금 만족도, 근로시간 만족도, 직장 내 교육 훈련의 기회의 만족도가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에 대해 임금의 영향력이 커 다시 한 번 취업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분석에서 경제적 측면에 대한 집중적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할 수 있다. 결국, 충분한 임금과 함께 일-생활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개개인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훈련이 제공되는 것이 일 특성과 관련해 그리고 취업 1인 가구의 높은 주관적 만족 수준을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했을 때, 여가생활 특성이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독서 경험 유무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독서가 지식 수준과 교양에 영향을 주고 스스로의 만족감이나 성취감 등으로 이어져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독서를 자기계발, 여가와 연결시켜 일상에서 독서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또한, 독서를 타인과의 소통 및 상호작용의 중심 기제로 활용하면서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연결시키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했을 때, 사회적 관계망이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가 있을수록, 단체 활동 관련 종교 단체와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학술 단체에 참여할 때, 주관적 만족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단체에 참여를 하며, 타인들과의 교류를 하는 등 생활의 전반적인 수준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잘 형성된다면 만족스러운 1인 가구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각 영역의 특성이 영역별 만족도를 매개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이 결과, 일 특성에서는 근로 여건에 해당되는 변수인 임금과 하는 일, 인간관계 만족도가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매개변수인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와 부분 매개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어 임금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거나 공정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하는 일에 대한 질 개선과 함께 동료들과의 관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향상과 주관적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의 경우,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가사도움

요청 대상 유무, 단체 활동 관련 취미, 스포츠·여가 활동 단체 참여가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와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관계망이 잘 형성되면, 취업 1인 가구의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를 높이고 주관적 만족도도 높일 수 있으므로 사회적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거나 신뢰 기반의 관계가 구축되어 가사도움과 같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가정 양립을 넘어 일-생활 균형, 삶의 균형 등이 강조 및 이 슈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과 가정생활 우선 정도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눠 영역별 만족도와 주관적 만족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가 활용 만족도는 일 우선 집단과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그리고 일 우선 집단과 가정생활 우선 집단 간에,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는 일 우선 집단과 가정생활 우선 집단 간에, 주관적 만족도는 일 우선 집단과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리하면 세 집단 중 주관적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일과 가정생활 균형 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가 활용 만족도와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일 우선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전반적인 삶의 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적으로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유연한 근무환경과 여가 활동 지원,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등에 앞서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교육과 훈련의 기회 제공의 필요성과 연계될 수 있는데,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자기관리 방법, 업무와 개인 생활의 균형 유지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생활 균형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조직문화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직적인 차원에서 일-생활 균형을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며, 일과 생활 균형에 대한 성과 측정 및 피드백 수용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취업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과 관련하여 다양한 요인들이 이들의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1인 가구 개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이 나타나고, 이러한 연계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 취업 1인 가구의 삶의 만족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후속 연구를 제안

본 절에서는 실천적 함의의 측면에서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 즉 삶의 만족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제가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을 분석한 것이므로, 이 세 가지 영역에 따라 제안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일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취업 1인 가구의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에, 많은 직장에서 실천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 탄력근무제, 선택적 근무제 등을 포함한 유연 근무제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2024).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집단의 만족도가 일 우선 집단, 가정생활 우선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바, 일생활의 균형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 특성에서의 직장 내 교육 훈련의 기회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이에, 개인 역량 강화, 일과 생활의 균형,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양성평등 등의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취업 1인 가구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직장 내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여 취업 1인 가구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직장 내에서의 사회적 관계망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 1인 가구의 경우, 경제적 부담과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크거나 수입 또는 임금을 중요시하는 이들의 경우를 고려한다면 고용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취업 1인 가구의 경우에는 혼자서 벌어서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할 수 있다.

여가생활에서는 취업 1인 가구가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활동, 스포츠, 관광, 취미 및 자기개발 등 다양한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충분한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가 시간이 보장되는 등 여가활동 지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여가 시설을 확충하여 취업 1인 가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다양한 여가 활동 정보를 어려움 없이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관계망을 위해서는 동호회,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모임 등 취업 1인 가구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고,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로 온라인상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정보 공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으로 취업 1인 가구가 지역사회와 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이벤트와 모임에 참여를 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의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다(네이버 블로그, 2004).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역시 취업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와 함께 이들의 심리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역시 제공한다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2024).

이와 더불어 일-생활 균형 관점과 생태체계적 관점에서의 취업 1인 가구의 삶의 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생활 균형 관점에서는 유연 근무제, 여가 시간 보장 등 취업 1인 가구가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이 잘 마련되어 시행될 수 있어야 하겠으며, 기업이나 직장에서는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문화, 분위기들을 조성함은 물론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자체를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취업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일-생활 균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취업 1인 가구의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일-생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보면,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취업 1인 가구가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취업 1인 가구를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장 내 상담 서비스,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을 포함,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생태체계적 접근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취업 1인 가구로서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제공하는 등 다차원적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 관련 특성은 이들의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과적으로 취업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 영역에서의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생태체계적 관점을 통해 이미 그 유용성을 검증한 접근이다. 즉, 1인 가구 그리고 1인 가구를 둘러싼 환경의 여러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유기성을 고려하여, 어느 한 영역이 아닌 전체 영역들 간에 연계되는 특성과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강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23 사회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취업 1인 가구의 일, 여가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 특성과 함께 이들의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이에,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1인 가구와

관련한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써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며, 추후 1인 가구의 정책과 제도 마련, 프로그램 기획 등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그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2023 사회조사’ 자료에서 다른 변수들을 탐색하여 1인 가구 관련 새로운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으며, 서로 다른 집단 간을 연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일과 가정생활 우선 정도에 따라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여가 활용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이나 연령대 등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영역별 만족도에 대해 연구해보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취업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관적 만족도에 대해 심층 인터뷰 실시 등 질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취업 1인 가구 집단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관련해 심도있게 파악하는 등 이와 같은 연구 실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수택(1991).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일의 의미. *사회과학연구*, 9, 57-73.

강승엽(2018). 주거환경과 고용환경이 청년 1인 가구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도 거주 청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정책학석사 학위논문.

강은나, 이민홍(2016). 우리나라 세대별 1인 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34, 47-56.

강은주(2024). *일과 생활의 균형*.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강의 자료집.

강은택, 강정구, 마강래(2016). 1인 가구의 주관적 삶의 만족감에 관한 연구: 미혼 1인 가구와 기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1), 3-23.
<http://dx.doi.org/10.16881/jss.2016.01.27.1.3>

강지현(2017). 1인 가구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가구 유형별 범죄피해 영향요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8(2), 287-320.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2024). 1인 가구 프로그램. <https://www.familynet.or.kr/web/lay1/program/S1T304C450/recruitReceipt/list.do>에서 인출.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2024). 유연근무제. https://worklife.kr/website/index/m2/flexitime_what.asp에서 인출.

관악구(2023). *관악구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관악구.

권세연, 박환용(2014). 서울시 1인 가구의 주거환경만족 영향요인 연구. *주택연구*, 22(1), 77-104.

권안나(2021). 1인 가구의 일·여가 유형에 따른 행복수준. 울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권종선(2019). 중노년 1인 가구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 요인.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5(1), 153-167.
<http://dx.doi.org/10.17703/JCCT.2019.5.1.153>

권태연(2024). 1인 가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6(1), 395-413.
<http://dx.doi.org/10.37727/jkdas.2024.26.1.395>

권혁철, 김형용(2017). 홀로 살아야 행복한, 중년 남성의 삶: 4050세대 1인 남성 가구의 사회적 관계와 주관적 행복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4(3), 267-290.
<http://dx.doi.org/10.46415/jss.2017.09.24.3.267>

경기신문(2023). ‘1인 가구 체계적 지원’ …경기도, 5년간 5조6천억 투입.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32810>에서 인출.

김가원, 황혜신(2021). 노인 1인 가구의 연령대별 행복감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6(1), 45-70. <http://dx.doi.org/10.21194/kjgsw.76.1.202103.45>

김민주(2017). **취업 1인 가구의 생활시간사용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수영, 박준혁, 권하늬(2022). 1인 가구 노동자의 생산-재생산 활동에 대한 사례 분석: 개인화된 사회의 자기중심적 생산-재생산 메커니즘에 관한 시론적 탐색. *한국사회정책*, 29(4), 105-150. <http://dx.doi.org/10.17000/kspr.29.4.202212.105>

김수진, 류주연(2023). 고독생 요인이 1인 가구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중년 층과 노년층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78(3), 59-81.
<http://dx.doi.org/10.21194/kjgsw.78.3.202309.59>

김용욱(2022).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서울시 전체 1인 가구와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15.

김재이(2022).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및 여가만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경기도 거주 청년·중장년·노년세대를 대상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운, 박정열, 손영미, 장훈(2005). 일과 삶의 조화(Work-life balance)에 대한

개념의 이해와 효과성. *여가학연구*, 2(3), 29-48.

김정은, 박정윤, 서지원, 송혜림(2023).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생활실태 및 생활 만족도: 김포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3(3), 21-37.
<http://dx.doi.org/10.22626/jkfrma.2023.27.3.002>

김지혜, 윤지인(2020). 청년 1인 가구의 여가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4), 353-374. <https://doi.org/10.30974/kaice.2020.9.4.16>

김종숙(2014). *세대별, 성별 1인 가구의 현황과 고용-복지 정책*.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현성, 이기영, 김강민, 이교창, 안준형, 황재건(2019).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및 여가생활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여가학연구*, 17(1), 73-94.

남기민, 정은경(2011). 여성독거노인들이 인지한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2, 325-348.

네이버 블로그(2024). 그래서, ‘스마트 커뮤니티’가 뭔데?. <https://m.blog.naver.com/esrikr/221244989146>에서 인출.

네이버 지식백과(2024). *여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2605&cid=46634&categoryId=46634>에서 인출.

노혜진(2018).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보건사회연구*, 38(2), 71-102.
<http://dx.doi.org/10.15709/hswr.2018.38.2.71>

데일리팝(2022. 11. 17). 1인 가구 40% 시대, 현재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64330>에서 인출.

데일리팝(2024. 02. 19). 1인 가구 정책, 사회 관계망에 관심 가지는 지자체들.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75150>에서 인출.

데일리안(2024. 04. 04). “따로 또 같이” …1인 가구 사로잡은 코리빙하우스 ‘맵그로브 신촌’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16907?sid=101>에서 인출.

매일경제(2023). “둘 중 한명은 못 믿을 사람” …중국·필리핀에도 밀린 한국 신뢰지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63198?sid=102>에서 인출.

민보경(2022).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민보경(2023a). *1인 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민보경(2023b).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신뢰와 행복. *한국인구학*, 46(4), 107~137. <https://doi.org/10.31693/KJPS.2023.12.46.4.5>

변미리(2015). 도시에서 혼자 사는 것이 의미: 1인 가구 현황 및 도시정책 수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551-573. <http://dx.doi.org/10.20406/kjcs.2015.08.21.3.55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24. 01. 11). 긴급복지 지원대상 늘고 지원금액 오른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79784&tag=&nPage=3에서 인출.

서명희, 김영희, 이현옥(2017). 1인 가구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연구: 미혼과 기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 718-727. <http://dx.doi.org/10.5392/JKCA.2017.17.01.718>

서울연구원(2022). 1인 가구의 삶-1인 가구의 어려움. <https://www.si.re.kr/node/66490>에서 인출.

서울시, 서울연구원, 리서치앤리서치, 한국도시연구소(2022).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보고서*. 서울: 서울시 외.

서울주거포털(2024).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1028에서 인출,

서종수, 양지훈(2020).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살펴본 노인의 행복결정요인. *한국행
정논집*, 32(4), 701-717. <http://dx.doi.org/10.21888/KPAQ.2020.12.32.4.701>

서현(2017). 여가의 개념에 대한 탐색적 고찰-주요 개념의 제한점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9(8), 367-377.

성혜영(2021). 중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노후준비.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6(1), 61-79. <https://doi.org/10.13049/kfwa.2021.26.1.4>

손화희(2004). 서울지역 노인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에 관한 연
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2(12), 77-92.

송혜림, 강은주(2021). 취업 1인 가구의 일-생활 균형: 20-30대 미혼을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4), 55-70. <http://dx.doi.org/10.22626/jkfrma.2021.25.4.005>

송혜림(2021). *포스트코로나, 일생활 균형의 변화를 다시 읽다*. 울산여성가족개발원 개원
6주년 기념 여성가족정책포럼 기조강연, 울산, 한국.

송혜림, 강은주(2022). 취업 청년 1인 가구의 돌봄노동에 대한 경험. *가족자원경
영과 정책*, 26(4), 25-38. <http://dx.doi.org/10.22626/jkfrma.2022.26.4.003>

신미아(2019).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건강행태 및 정신건강 비교: 국민건강영
양조사자료분석(2013, 2015, 2017). *한국웰니스학회지*, 14(4), 11-23.
<http://dx.doi.org/10.21097/ksw.2019.11.14.4.11>

신미아(2023). 중년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걷기 운동과 행복감 연관성. *한국엔
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7(7), 189-197.
<http://dx.doi.org/10.21194/kjgsw.76.1.202103.45>

심수진, 남상민, 김은아(2024). *국민 삶의 질 2023*.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양지명(2019). **청년 취업 1인 가구의 일과 여가의 균형에 대한 연구**. 가톨릭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준영(2022). *1인 가구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방안*. 서울: 한국여성정
책연구원.

SBS(2024. 02. 17). ‘나 혼자 산다’ 1인 세대 천만 시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31580?sid=102>에서 인출.

유수열, 조옥선(2023).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의 매개효과 및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산업융합연구*, 21(9), 77-87. <https://doi.org/10.22678/JIC.2023.21.9.077>

유유선(2021). 생존경로로써 경력단절: 20대 1인 가구 여성의 ‘취업과 퇴사’의 반복적 노동서사. *문화와 사회*, 29(2), 137-182. <https://doi.org/10.17328/kjcs.2021.29.2.004>

유정호, 함주빈, 김영직, 박범준, 문상호(2016). 노인 1인 가구의 취업결정요인 예측: 데이터마이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907-934.

윤소영(2019). *한국의 사회동향 2019-행복에 영향을 주는 여가 관련 요소들*.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윤수인, 이홍직(2020). 임금노동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인구사회학적 요인, 좋은 일자리 요인, 일-생활 균형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2(2), 373-400. <https://doi.org/10.20970/kasw.2020.72.2.014>

이금미, 김상미(2023). 중장년층의 여가활동과 여가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제주지역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105-129.

이명진, 최유정, 이상수(2014). 1인 가구의 현황과 사회적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27(1), 229-253.

이선희(2023). 여가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삶의 만족도 연구: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비교 분석. *관광레저연구*, 35, 251-270. <https://doi.org/10.31336/JTLR.2023.4.35.sp1.251>

이성림, 이승주(2016). 1인 가구의 식생활 행태와 식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식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19(3), 115-133. <http://dx.doi.org/10.17053/jcc.2016.19.3.006>

이수인, 최지훈, 유지영(2021). 농촌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70, 123-144. <https://doi.org/10.17997/SWRY.70.1.5>

이수현(2021). **한국 청년세대 일과 여가의 균형과 행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신애, 황원경, 정승환(2022). *2022년 한국 1인가구 보고서-한국 1인 가구 새롭게 들여다보기*. 서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이여봉(2017). 1인 가구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52, 64-77.

이옥분(2018). **1인 가구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유미, 최윤희, 최귀선(2024). 여성 노인의 사회적 관계, 건강정보 리터러시 및 신체 건강에 관한 연구: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44(2), 107-128. 28. <https://doi.org/10.31888/JKGS.2024.44.2.107>

이재완, 강혜진(2018). 워라벨과 삶의 만족: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3), 267-291. <http://dx.doi.org/10.20484/klog.22.3.11>

이지현, 정라나(2018). Kano모형을 이용한 HMR 편의점 도시락의 선택속성 분류: 1인 가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외식경영연구*, 21(1), 73-93.

이창효, 이승일(2010). 서울시 1인 가구의 밀집지역 분석과 주거환경 평가. *서울도시연구*, 11(2), 69-84. <http://dx.doi.org/10.23129/seouls.11.2.201006.69>

이태형, 윤성원(2023).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일자리 현황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 거주 청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7(3), 103-127. <https://doi.org/10.22718/kg.2023.7.3.005>

이하나, 조영태(2019). 중년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건강행태 및 질병 이환 비교. *보건사회연구*, 39(3), 380-407. <http://dx.doi.org/10.15709/hswr.2019.39.3.380>

이현민, 최미선(2022). 노인 1인 가구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고령친화 지

역 사회환경 요인. *보건사회연구*, 42(2), 262-279.
<http://dx.doi.org/10.15709/hswr.2022.42.2.262>

1코노미 뉴스. 수치로 드러난 1인 가구 삶... 사회적 관계망 약해졌다.
<https://www.l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01>에서 인출.

임유진, 박미현(2018). 1인 가구 중년의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마르크스주의 연구, 34(1), 187-206. <http://dx.doi.org/10.18859/ssrr.2018.02.34.1.187>

장명숙, 박경숙(201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보건사회연구*, 32(2), 232-266.

장진희(2018). 1인 가구와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패널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9(4), 87-110.
<http://dx.doi.org/10.23129/seouls.19.4.201812.87>

정부24(2024). 보조금2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nonLogin>에서 인출.

정영금, 윤소영(2018). 1인 가구의 세대별 여가행태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4), 1-15.

정영미, 김영수(2021). 초기 노인의 여가생활이 사회적 친분관계를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생명연구*, 59, 1-21.

정인, 강서진(2019). *2019 한국 1인 가구 보고서*. 서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1인 가구 연구센터.

정진곤(2001). 일의 의미와 교육. *열린교육연구*, 9(2), 221-237.

조규준(2023). 우리나라 여가 시간 사용현황과 삶의 만족도. *노동리뷰*, 217, 59-61.

조미라(2018). 일-생활 균형 관점에서 본 기혼남녀의 시간표: 부부결합 가구노동 시간 유형에 따른 남녀의 일-생활시간의 비교분석. *사회복지연구*, 49(2), 5-38.

조주현, 김주원(2010). 1인 가구의 주택수요 특성에 관한 연구-서울시를 중심으로

로. *부동산학연구*, 16(4), 33-52.

최성현(2020). 도시 거주 노인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 및 경제활동 참여 유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0(2), 244-282. <http://dx.doi.org/10.15709/hswr.2020.40.2.244>

최순화(2021).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이 전시·공연 관람,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1(4), 25-50. <https://doi.org/10.22340/seps.2021.11.11.4.25>

최유정, 이명진, 최셋별(2016). 가구형태와 사회적 관계의 객관적, 주관적 측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 회지*, 21(2), 25-51. <http://dx.doi.org/10.21321/jfr.21.2.25>

KDI 경제정보센터(2024). 한국사회 신뢰지수 선진국보다 크게 낮아.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nara_yymm=200703&fcode=0000200004000100001&cidx=5520&sel_year=2007&sel_month=03에서 인출.

통계청(2021).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ct=view&list_no=415446에서 인출.

통계청(2023). 2023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tag=&act=view&list_no=428414&ref_bid=에서 인출.

통계청(2024). 2023년 사회조사. https://kostat.go.kr/ansk/file/2023_Survey_social.pdf에서 인출.

한성민(2018). 1인 가구 삶의 질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도 1인 가구 세대별 특성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송이, 허연, 선우성(2022).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EQ-5D를 사용하여 1인 가구와 다인가구의 건강관련 삶의 질 비교.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12(1), 22-27.

한준, 김석호, 하상응, 신인철(2014). 사회적 관계의 양면성과 삶의 만족. *한국사회학*, 48(5), 1-24.

황성은, 강부성, 박지연(2013). 주택유형별 1인 가구의 범죄 안전성에 대한 조사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4(4), 9-17.
<http://dx.doi.org/10.6107/JKHA.2013.24.4.009>

<부 록>

<표 48> ‘2023 사회조사’ 조사 내용 구성 (1)

부문	영역	측정 내용
공통	주관적 만족도	자신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대한 만족 정도
	성취에 대한 만족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성취한 것에 대한 만족 정도
	활동 제약 상태	건강 문제로 제시된 활동(안경 착용, 보청기 사용, 걷기 또는 계단 오르기, 기억 및 집중, 자기 관리 활동, 언어 경청 및 이해)에 대한 어려움
		활동 제약 지속 예상 기간
일반 복지	생활 여건의 변화	2년 전(2021년)과 비교해 우리 사회의 생활 여건 변화(보건 의료 서비스, 사회 보장 제도, 문화·여가생활 여건, 전반적인 생활 여건)에 대한 의견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매월 사회보험료 납부 유무 및 각각의 사회보험료가 소득 대비 부담 정도
	늘려야 할 공공시설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
	늘려야 할 복지 서비스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 서비스
	선호하는 장례 방법	본인 장례 절차 관련 선호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출처: 통계청 「2023 사회조사」

〈표 49〉 ‘2023 사회조사’ 조사 내용 구성 (2)

부문	영역	측정 내용
장애인 복지	장애인과 의 유대 관계	장애인과 의 연락 및 소통 등 지속적인 관계 유지 유무 및 관계 유형
	사회의 장애인 차별 정도	우리 사회의 교육, 고용 등 생활 전반에서의 장애인 차별 정도에 대한 의견
	장애인 관련 시설	집 근처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의견
	장애인 복지 사업	현재 정부의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복지 사업에 대한 의견 향후 정부에서 확대해야 할 장애인 복지 사업
노인 복지	노후 준비 방법	노후 준비 유무 및 준비 과정에서의 가장 주된 부분과 부수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
	노후를 위한 사회의 역할	국민의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의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한 선호
	노후 생활 방법	현재 노후를 보내고 있는 방법
	생활비 마련 방법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한 의견
	자녀 유무	자녀 유무
	자녀와의 동거 유무	자녀 동거 유무와 동거 유무에 따른 이유
	자녀와 동거 의향	향후 자녀와 동거 의향 및 비동거 선호 시, 희망하는 거주 방법

출처: 통계청 「2023 사회조사」

〈표 50〉 ‘2023 사회조사’ 조사 내용 구성 (3)

부문	영역	측정 내용
사회 참여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개인적 인간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
	신뢰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사회적 관계망	특정 상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유무 및 사람 수
		교류하는 사람 유무 및 교류하는 사람 수
	단체 참여	단체활동 참여 유무
	기부 유무	지난 1년 동안 현금 또는 물품 기부 유무
	기부 내용	지난 1년 동안 기부하신 현금의 기부 경로별 횟수와 금액
	기부 문화 확산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필요 영역
	기부 의사	향후 1년 이내 현금 또는 물품 기부 의사
	유산 기부 의사	향후 유산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할 의사
	자원봉사 활동 유무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 참여 유무
	자원봉사 활동 내용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총횟수와 1회 평균 활동 시간
	전문성을 위한 활용한 자원봉사	지난 1년 동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봉사 활동 참여 유무 및 주된 봉사 활동 내용
	자원봉사 활동 의사	향후 1년 이내 자원봉사 하실 의향
	계층의식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대한 의견
	계층 이동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노력에 따라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의견
자식 세대에서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의견		

출처: 통계청 「2023 사회조사」

〈표 51〉 ‘2023 사회조사’ 조사 내용 구성 (4)

부문	영역	측정 내용	
여가	독서	지난 1년 동안 독서 경험 유무 및 권 수	
	문화 예술·스포츠 관람	지난 1년 동안 공연, 전시, 스포츠 경기 관람 유무 및 관람 수	
	레저시설 이용	지난 1년 동안 레저시설 이용 유무 및 이용 시설의 이용 횟수	
	국내 관광 여행	지난 1년 동안 관광을 목적으로 국내 여행 경험에 대한 유무 및 여행 경험 횟수	
	해외여행 경험	지난 1년 동안 해외여행 경험 유무 및 목적과 여행 경험 횟수	
	여가 활용		여가 시간의 여가 활동 유형
			여가 활동 파트너
	여가 활용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 정도
		여가생활 불만족의 이유	
	하고 싶은 여가 활동	향후 시간적/경제적 여유에 따라 희망하는 여가 활동 유형	
소득과 소비	주관적 소득 수준	가구의 한 달 평균 최소 생활비와 비교해 가구의 실제 소득 수준 정도	
	소득과 부채의 변화	1년 전(2021년)과 비교할 때 가의 소득과 부채 변화 정도	
	내년 가구의 재정 상태	내년 가구의 재정 상태의 변화	
	건축 상황 지출 항목 변화	가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지출 감소할 항목	
	소득 만족도	현재 소득 유무 및 본인 소득 만족 정도	
	소비 생활 만족도	현재 전반적인 소비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출처: 통계청 「2023 사회조사」

〈표 52〉 ‘2023 사회조사’ 조사 내용 구성 (5)

부문	영역	측정 내용
노동	직업 선택 요인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	가장 희망하는 근무지(직장)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여성 취업 유무에 대한 의견 및 여성 취업 시기에 대한 의견
	여성 취업 장애 요인	여성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지난 1주일 간 경제 활동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소득)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근로에 대한 유무 직장 일과 가정생활 중 우선 정도
	고용의 안정성	미래에 직장(직업)에 대한 불안감
	산업 유형	지난 1주일 동안 일한 곳
	직업 유형	지난 1주일 동안 한 일
	종사상의 지위	지난 1주일 동안 직장(일) 내 지위
	근로 여건 만족도	현재 직장의 근로 여건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배우자의 지난 1주일 간 경제 활동	지난 1주일 동안 배우자의 수입(소득)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근로에 대한 유무
개인 및 가구 일반사항	성별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최종 교육정도
	혼인상태	혼인상태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 유무
	거처의 종류	현재 거주 유형
	점유형태	현재 거주지의 점유 형태
	가구소득	지난 1년 동안 세금 납부(공제) 전 월평균 총 가득 소득
	조사표 작성 시간	조사표 작성을 위해 소요된 시간

출처: 통계청 「2023 사회조사」

Abstract

A study on the work, leisure life, and social network of employed single-person households

Kang EunJu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Ulsan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work, leisure, and social relationship networks of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employment. To achieve this,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work, leisure, and social relationship networks in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n selected individual system and social environment system variables by applying work-life balance and ecosystemic perspectives. We also identified factors influencing the subjective satisfac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cluding the selected variables related to work, leisure, and social relationship networks, and conducted various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To conduct the analysis related to the research content, we utilized data from the “2023 Social Survey” by Statistics Korea.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work in single-person households, external motivations such as income and stability were considered when choosing a profession. The main reason for dissatisfaction with leisure utilization was found to be economic burden. Additionally, in terms of social relationship network characteristics, 46.8% of single-person households responded that they had no one to turn to for financial assistance, indicating vulnerability in coping with emergencies. Thus, economic factors related to work, leisure, and social relationship networks play a crucial role in daily life. Furthermore, we examined how the domain-specific characteristics of work, leisure, and social relationship networks in single-person households influence satisfa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opportunities for workplace education and training significantly impact overall job satisfaction in terms of work characteristics. Regarding leisure characteristics, engaging in weekend leisure activities with family and friends (including partners) contributes to leisure utilization satisfaction. Among the social relationship network characteristics, trust in our society was relatively influential on

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Next, we applied the work-life balance perspective and the ecosystemic perspective to select variables related to individual systems and social environment systems. We then examined the impact of these variables on the subjective satisfac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employment. Within the individual system, satisfaction with wages (compared to the work being done) was found to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subjective satisfaction. In the social environment system, satisfaction with workplace education and training opportunities related to work conditions, as well as satisfaction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ignificantly affected subjective satisfaction. Regarding leisure characteristics, whether individuals engaged in weekday and weekend leisure activities alone or with others, and social relationship network features such as trust in our society, participation in academic, hobby, sports, and leisure activity groups, and involvement in religious groups, all influenced subjective satisfaction.

Additionally, we analyzed the impact of domain-specific characteristics on subjective satisfaction, controlling for significant variables related to subjective satisfaction among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results revealed that within work characteristics, satisfaction with wages, work hours, and workplace education and training opportunities significantly influenced subjective satisfaction in single-person households. In terms of leisure, the presence or absence of reading experiences affected subjective satisfaction. For social relationship network characteristics, higher trust in our society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subjective satisfaction when participating in religious, hobby, sports, and leisure activity groups.

Furthermore, we explored wheth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omain mediated the impact on subjective satisfaction. Work characteristics, including satisfaction with wages, job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had both direct and partial mediating effects on overall job satisfaction. Similarly, social relationship network characteristics, such as trust in our society, the presence of assistance-seeking targets in household matters, and participation in hobby, sports, and leisure activity groups, also had partial mediating effects on subjective satisfaction.

Furthermore, beyond the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life, the emphasis on work-life balance and overall life balance has become an issue in the current context. We divided individuals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ir prioritization of work versus home life and examined differences in satisfaction levels and subjective satisfaction across different domains. The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leisure utilization satisfaction among the group that prioritized work, the group that balanced work and family life, and the group that prioritized family life. Similarly, 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showed differences between the work-prioritizing group and the family life-prioritizing group. Overall, subjective satisfaction was highest in the work-life balance group. To enhance overall life satisfaction, it is important to strike a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life.

In practical terms, considering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e propose ways to enhance the subjective satisfac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employment, which directly impacts overall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earch topic, we derive recommendations within three domains: work, leisure, and social relationship networks.

Firstly, regarding work, there is a need to expand policies and systems that promote work-life balance, such as flexible work arrangements. Continuou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related to enhancing individual capabilities and achieving balance between work and personal life should be provided. Policies that strengthen employment stability are also essential. In the realm of leisure, programs should be established to enable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employment to participate in various leisure activities, including cultural and artistic events, sports, tourism, hobbies, and self-development. Support for leisure activities, including ensuring leisure time, is crucial. Additionally, expanding local leisure facilities will facilitate easy access for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 development of online platforms will provide seamless access to diverse leisure activity informatio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a trustworthy social environment is essential for social relationship networks. Strengthening local community networks will foster close connections between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ir communities. Programs such as local community gatherings for single-person households should be provided, along with efforts to enhance online community engagement and information sharing.

Furthermore, considering work-life balance and ecosystemic perspectives, we propose ways to enhance the life satisfac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employment. Firstly, from a work-life balance perspective, policies and implementation supporting a balanced work and personal life for single-person households should be expanded. This includes fostering a workplace culture and atmosphere that promotes work-life balance. From an ecosystemic perspective, a multidimensional support policy is needed to improve the lives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to provide diverse forms of assistance.

When considering these results, it can be said that efforts are needed in a balanced and integrated manner across the domains of work, leisure, and social relationship networks to enhance the subjective satisfac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employment. Particularly, from an ecosystemic perspective, which has already demonstrated its utility, it is essential to derive alternatives that consider the organic interactions among various factors related to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ir surrounding environment. These efforts should aim to improve overall life satisfaction for single-person households.

keyword: employed single-person household, work, leisure life, social network, subjective well-being, work-life balance perspective, ecosystemic perspective